

- 1) 本源的 蓄積期의 폭력의 두 가지 유형 ..... 84
- 2) 자본주의 사회의 助産婦로서의 '본원적 축적의 폭력' ..... 85
- 3) 폭력에 의한 본원적 축적과 '否定의 否定' ..... 86
- 4. 계급투쟁과 폭력 ..... 90
- 제4절. 마르크스와 폭력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 ..... 93

- 圖文抄錄 ..... i
- 獨文抄錄 ..... v

제1장. 서론

- 1. 분계 계기 ..... 1
- 2. 근대 부르조아 민주주의와 전쟁·평화의 사상 ..... 3
- 3. '과학적' 사회주의의 전쟁·평화의 사상 ..... 5
- 4. 본 논문의 구성과 방법론 ..... 7

제2장. 마르크스의 폭력 개념

- 제1절. 初期 마르크스의 폭력 개념 ..... 14
  - 1. 교동형태와 폭력 ..... 14
    - 1) 생산력과 교동형태 ..... 15
    - 2) 생산력과 교동형태의 모순 ..... 19
  - 2. 『철학의 빈곤』, 『공산당 선언』의 폭력 개념 ..... 20
- 제2절. 中期 마르크스의 폭력 개념 ..... 30
- 제3절. 後期 마르크스의 폭력 개념 ..... 33
  - 1. 상품-화폐 관계와 폭력 ..... 33
    - 1) 富의 基本形態-상품의 二重性 ..... 33
    - 2) 폭력의 不在의 現前 ..... 36
  - 2) 마르크스의 價値形態論과 폭력 ..... 40
  - 3) 第3項으로서의 화폐·자본과 폭력 ..... 62
- 2. 자본-국가와 폭력 ..... 65
  - 1) 私法 體系를 보호하는 정치적 強制力 體系로서의 국가 ..... 70
  - 2) 국가의 기본적 형태성 ..... 78
- 3. 본원적 축적과 폭력 ..... 81

제3장. 마르크스의 전쟁론

- 제1절. 전쟁에 관한 마르크스의 기본입장 ..... 100
  - 1. 역사적 고찰 ..... 100
  - 2. 계급적 파악 ..... 100
  - 3. 전쟁과 혁명을 결합시키는 실천적 관점 ..... 101
  - 4. 경제적 요인의 重觀 ..... 102
  - 5. '경제'·'정치'·'전쟁'의 종합적 파악 ..... 102
- 제2절. 마르크스의 전쟁에 대한 역사적 고찰 ..... 102
  - 1. 고대·중세의 전쟁에 대한 평가 ..... 102
    - 1) 원시공동체에 있어서 전쟁의 存在形態 ..... 104
    - 2) 古典的 共同體에 있어서 전쟁의 존재형태 ..... 105
    - 3) 게르만의 공동체에 있어서 전쟁의 존재형태 ..... 107
  - 2. 마르크스의 當代의 전쟁에 대한 평가 ..... 108
    - 1) 1848~1850년의 혁명적 전쟁 ..... 108
    - 2) 1850~1860년대의 전쟁 ..... 111
    - 3) 普佛戰爭 ..... 117
    - 4) 파리코뮌 ..... 120
- 제3절. 마르크스의 戰爭觀 ..... 126
  - 1. 進歩戰爭觀 ..... 127
  - 2. 防禦戰爭觀 ..... 129
  - 3. 世界戰爭觀 ..... 132
  - 4. 正義의 戰爭觀 ..... 133

제4장. 마르크스의 평화론

- 제1절. 마르크스의 평화론의 특징 ..... 141
  - 1. 프롤레타리아트가 주도하는 평화 ..... 141
  - 2. 평화도 정치의 연속이다 ..... 142
  - 3. 평화의 최고상대는 공산주의이다 ..... 143
- 제2절. 마르크스 평화론의 구도 ..... 146
  - 1. 혁명과 평화 ..... 146
  - 2. 노동과 평화 ..... 148
  - 3. 평화혁명과 폭력혁명 ..... 153
  - 4. 계급사회의 평화 ..... 161
  - 5. 국제평화와 민족문제 ..... 163
- 제3절. 마르크스의 '평화'와 비판적 평화연구자들의 '평화' ..... 165
  - 1. 비판적 평화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평화' ..... 165
  - 2. '구조적 폭력'과 평화의 확대 개념 ..... 167

제5장. 결론

- 참고 문헌 ..... 177

제3장. 마르크스의 전쟁론

마르크스는 '전쟁은 다른 수단에 의한 정치의 延長이다'는 클라우제비츠(Klauswitz)의 전쟁관을 수용한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전쟁이란 국내 혹은 국제 체계에 있어서 계급간의 무력(폭력) 대결이다. 전쟁이란 무력(폭력) 수단에 의한 계급정치(Klassenpolitik)의 연장이다.

전쟁이란 계급투쟁의 한 형태로서 諸사회계급의 계급정책의 수단이라고 정의할 때, 이 전쟁은 어떠한 원인에서 발생하는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우리의 견해에 의하면 의하면 역사상의 일체의 충돌은 생산력과 교동형태의 모순 속에 그 원인을 가지고 있다"(MEW 3, p.73)라고 말한다. 그리고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인격적 표현이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라고 한다. 이 전쟁은 이들이 의도하는 계급적 이해의 대립에 원인을 가지는 것이 된다. 이는 곧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내재하는 운동법칙, 그 중의 하나로서 '전쟁'의 자연 법칙이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바로 이러한 자본주의적 경쟁으로부터 영겔스는 '사회전쟁(der soziale Krieg)' 개념을 연역해내고 있다.<sup>168)</sup>

영겔스는 영국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비판을 통해 다음과 같이 '사회전쟁' 상 태를 묘사한다: "이 나라에서는 사회전쟁이 완전히 발발하였다. 각자는 각자에 대립하며 다른 모든 사람들과 투쟁한다... 평화적인 방법으로(auf friedlichem Wege) 자신의 이웃을 이해하는 일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다. 모든 각자는 위협과 自救(Selbsthilfe), 그리고 판결에 의해 해결된다. 각자는 타인을, 길에서 물어 내거나 기껏해야 자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할 수단으로서, 敵으로 간주한다."<sup>169)</sup>

본질적으로 '사회전쟁' 상태에 있는 근대 부르조아 사회를 지배하는 '萬人의 萬人에 대한 전쟁'에 대하여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생산물과 모

168. 이해영 편 『영겔스 연구』 (서울: 녹두, 1989), 163쪽.  
 169. Engels 『Die Lage der arbeitenden Klasse in England』 MEW 2, p.369.



는 활동이 교환가치로 해소되는 것은, 생산 내부에 (역사적으로) 고정된 모든 人 格的 依存關係(die persönlichen Abhängigkeitsverhältnisse)의 해체를 상징함과 동시에 생산자 상호간의 보편적인 부족도 상징한다. 각 개인의 생산은 모든 他者의 생산에 의존할 뿐 아니라, 자신의 생산물을 자신을 위한 생존수단으로 변경함으로써 他者 전체의 소비에 의존한다... 이와 같은 상호의존은, 교환이라는 영속적인 필연성이나 보편적인 媒介로서의 교환가치 속에서 표현된다. 경제학자들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한다: '각 사람은 자신의 個別利得만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萬人의 個別利得, 즉 普遍的 利得에 도음이 된다.' 要點은, 個別利得의 개별적 추구에 의하여, 개별이해의 總體 즉 보편적 이해가 실현되는 것이 아닌 데 있다. 오히려 이러한 추상적인 文句로부터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각 사람은 他人의 利得의 충족을 다룰어 방해할 것이며, 보편적 긍정(die allgemeine Affirmation)이기는 커녕 보편적 부정(die allgemeine Negation)이 萬人의 萬人에 대한 전쟁(bellum omnium contra omnes)으로 끝날 것이다.<sup>170)</sup>

엥겔스도 '萬人의 萬人에 대한 전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개별 자본가들은 여타의 모든 자본가들과의 투쟁에 열중해 있으며 개별 노동자들은 여타의 모든 노동자들과의 투쟁에 열중해 있고, 노동자 대중이 필연적으로 자본가 대중에 대항해 싸워야만 하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모든 자본가들도 또한 노동자들에 대항해 싸워야 한다. 이러한 萬人의 萬人에 대한 전쟁상태에서 그리고 이러한 일반적인 혼란과 상호 착취 상태하에서, 오늘날의 부르조아 사회의 본질이 나타나고 있다.'<sup>171)</sup>

이러한 '萬人의 萬人에 대한 전쟁'의 또 다른 표현이 바로 '경쟁(Konkurrenz)'이다. '탐욕의 전쟁'에 다름 아닌 '전쟁'의 대립물은 독점이다. 그러나 경쟁은 독점을 전제로 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자유경쟁은 하나의 불가

170.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42, pp.89-90.  
171. Engels 'Zwei Reden im Elberfeld,' MEW 2, p.536.

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더소 은폐된 內戰의 산물이다.'<sup>172)</sup> 그러므로 마르크스에 있어서 '자본이 유발하는 전쟁'은 강력한 吿發의 대상이며, 전쟁의 정당성 문제가 증대하게 떠오른다.

### 제1절. 전쟁에 관한 마르크스의 기본입장

#### 1. 역사적 고찰

마르크스는 각 시대의 특수성을 중요시하면서 전쟁을 고찰한다. 그는 각 시대의 각종의 전쟁을 구체적인 歷史性에 따라 고찰한다. 모든 전쟁에는 각기 특수한 역사적 원인·조건·형식이 있음을 마르크스는 중요시한다. 그는 역사의 발전에 공헌하는 바에 따라 전쟁을 進歩戰爭과 反動戰爭으로 구분한다. 자본주의 시대의 전쟁에도 發展期와 沒落期에 따라 성격의 차이가 있다. 發展期의 전쟁은, 사회로부터 봉건적 잔존물을 제거하고 민족국가를 세우는 진보전쟁이었으나 沒落期인 제국주의 시대의 전쟁은 약소민족을 억압하고 식민지 분할을 다루는 反動戰爭으로 규정된다. 마르크스는 전쟁 일반에 대하여 대담 "뽀이다" "뽀이다"고 말하는 방식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인류의 진보'라는 관점에서 각종 전쟁의 역사성을 판단한다.<sup>173)</sup>

#### 2. 계급적 파악

마르크스는 전쟁을 계급투쟁과의 因果關係로 이해한다. 마르크스는 '어떠한 계급이 전쟁을 이끌고 있는가' '전쟁이 국내 계급관계 특히 계급투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고찰하는 데에서 출발한다. 전쟁을 계급의 밖으로 추상화하고, 막연하게 방어전쟁과 공격전쟁, 정당한 전쟁과 정당하지 못한 전쟁, 문명적인 전쟁과 야만적인 전쟁 등으로 구별하는 것은 부르조아적·소부르조아적 전

174. Ibid., p.316.  
175. 佐野 學 저음 「共產主義戰爭論」(東京: 青山書院, 1951), 31-32쪽.

능'으로서 경쟁은 '우리 모든 삶의 관계를 관철하고 인간의 예속상태를 완성'하였으므로, 사적소유로부터 출발한 '자본과 노동간의 분열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인간의 분열속에서 완성'되어 결국 이 분열은 첨예화될 것이다.

흡스를 연상케 하는 이와 같은 자본주의 사회의 전쟁상태로 말미암아 자본과 노동이라는 경제적 범주의 인격화이자 계급이해의 현실적 담지자로서 자본가와 노동자의 '유혈적(blutig)' 충돌은 불가피하다.(MEW 2, p.504.) 이것은 다름 아닌 내전상태이며 [고용주들과 노동자들이 불행하게도 서로 永久戰爭 상태에 있는(In ewigem Kriegszustand); MEW 23, p.461.] 이러한 부르조아 사회의 일상적인 내전 상태는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존재하는 한 불가피하다.

자본주의적 경쟁을 '사회전쟁'의 원인으로 간주하는 이러한 인식은 국가간의 전쟁에 있어서도 연장되어 적용된다. 즉, '한 국가 내부에서의 계급대립이 소멸되고 아울러 국가들 상호간의 적대관계도 소멸'(MEW 4, p.479)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간 전쟁의 원인은 국내의 계급갈등에 존재하는 것이 된다.<sup>172)</sup>

마르크스는 계급과 경쟁이라는 분석 틀을 전쟁론에 도입한다. 전쟁이 자본의 모순에 기인하는 바, 전쟁을 자본의 논리의 연관시켜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勞動日'을 에워싸고 자본가 계급과 프롤레타리아트 사이에 벌어진 투쟁을 상징하면 '자본과 전쟁의 相關性'이 쉽게 풀린다: "자본주의적 생산의 역사에서 勞動日의 標準化는 勞動日의 한계를 둘러싼 투쟁, 다시 말하면 總資本家(Cesamtkapitalist), 즉 자본가 계급과 總勞動者(Gesamtarbeiter), 즉 노동자 계급 사이의 투쟁으로 나타난다."<sup>173)</sup> "어떤 생산부문에서의 勞動日 규제의 역사와, 다른 생산부문에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이 규제를 둘러싼 투쟁은, 자본주의적 생산이 일정한 단계에 도달하고 나면 개별 노동자, 즉 자기 노동력의 '자유로운' 판매자로서의 노동자는 아무런 저항력도 없이 굴복해 버리고 만다는 사실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다. 그러므로 標準勞動日의 제정은 장기간에 걸친 자본가 계급

172. 이 해영 편, 위의 책, 163-164쪽.  
173. Marx 'Das Kapital,' MEW 23, p.249.

쟁 이론의 특징이며 프롤레타리아트를 誤導하게 된다고 그는 말한다. 전쟁과 계급 투쟁의 관계가 가장 선명한, 가장 高潮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전쟁과 혁명의 연관이다. 따라서 전쟁으로부터 혁명을 이끌어 내는 것이 마르크스의 논리이다.<sup>176)</sup>

#### 3. 전쟁과 혁명을 결합시키는 실천적 관점

전쟁은 사회적 모순의 결과로서 폭발한 것이고, 혁명도 사회적 모순의 해소를 위하여 요구된다. 전쟁에 의한 '질서의 혼란'은 혁명을 위한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 때문에 전쟁과 혁명은 필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전쟁은 하나의 국민에게 시련을 준다. 미이러를 大氣에 적이면 별안간 쓰러지는 것처럼, 전쟁은 生活力을 갖추지 못한 모든 사회제도에 사망선고를 내린다'고 말함으로써 전쟁의 사회적 意義를 명백히 했다.

마르크스는 혁명적 관점에서 진보전쟁과 反動戰爭을 구별한다. 진보적 계급이 반동적 계급에 대하여 행하는 혁명적인 전쟁을 진보적이라고 해석하고, 반동적 계급끼리 혹은 반동적 계급이 진보적 계급에 대하여 행하는 전쟁을 반동적이라고 해석한다. 유럽에서 부르조아지가 진보적이었던 시대, 즉 중세의 봉건 잔존물을 제거하는 사회적 역할을 수행했던 1789년의 革命期에 부르조아지가 遂行한 전쟁은 진보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미 反動化된 부르조아지가 遂行하는 제국주의 전쟁은 '反動的'임에 다를 아니다. 레닌은, 진보적 전쟁으로 불리울 만한 전쟁은 첫째 부르조아지에 대항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전쟁, 둘째 혁명적 민족의 反帝國主義的인 민족전쟁, 셋째 자본주의 국가에 대한 프롤레타리아 국가의 전쟁이라고 말했다. 그러므로 반동적 전쟁으로부터 도피하면 안되지만, 노동대중이 혼란의 와중에 빠진 전쟁의 시대에 오히려 혁명의 기회가 많다.<sup>177)</sup>

176. 위의 책, 32-33쪽.  
177. 같은 책, 34-35쪽, 참조



#### 4. 경제적 요인의 중요

마르크스는 전쟁의 원인을 경제로 환원하여 설명한다. 전쟁은 帝王의 野心, 인종적·국민적 중요성, 종교적 反感과 같은 원인으로 설명되어서는 안되며, 전쟁의 근본원인이 사회의 물질적 생활과정에 있다고 마르크스는 강조한다. 전쟁을 자본주의와의 연관 속에서 파악한 마르크스의 영향을 받은 해넌은, 자본주의가 최고의 발전단계에 도달한 시대의 조건 속에서 전쟁이 발생한다고 분석했다. 한편 자본주의가 최고로 발전한 단계에서 사회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객관적 조건도 성숙하기 때문에, 이 조건에 걸맞는 전쟁이 일어난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 발전의 불균등 현상이 일어나므로, 자본주의 나라들 사이의 힘의 관계를 다시금 均等化하는 운동'으로서 전쟁이 필연적으로 터진다고 말한다.<sup>178)</sup>

#### 5. '경제'·'정치'·'전쟁'의 종합적 파악

그렇다고 마르크스가 경제주의자는 아니다. 오히려 민감한 정치주의자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정치는 경제의 집중적인 표현인 바, 경제 - 정치 - 전쟁을 '하나의 쇄사슬에 있는 다른 고리'로 본다. 전쟁은 정치의 한 형태에 다름 아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전쟁은 다른 (폭력적)수단에 의한 정치의 연장'이라는 클라우제비츠의 말을 그의 전쟁론에 있어서 지도이념의 하나로 삼는다. 마르크스는, 전쟁은 '평화의 정치'가 연장된 것이며 평화는 '전쟁의 정치'가 연장된 것이라고 판단한다.<sup>179)</sup>

#### 제2절. 마르크스의 전쟁에 대한 역사적 고찰

##### 1. 고대·중세의 전쟁에 대한 평가

---- 「要綱」을 중심으로

178. 같은 책, 33쪽.  
179. 같은 책, 33~34쪽.

마르크스는 여기에서 '전쟁'에 대한 엄밀한 규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要綱」의 전쟁 개념을 확정하는데 있어서 위의 '주의사항'에 따라 총괄하는 것이不可分한 전제이다.

「要綱」의 전쟁 개념은 역사적으로 상당히 거슬러 올라간 지점에서 고려할 수 있다. 이는 특히 「要綱」Ⅲ의 「資本主義的 生産에 先行하는 諸形態 (Formen, die der kapitalistischen Produktion vorhergehen)」(이하 「諸形態」)에서 집중적으로 표현된다. 따라서 「諸形態」의 전쟁개념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 보아야 한다. 「독일 이데올로기」의 '分業의 여러가지 발전단계' 연구를 바탕으로 삼은 마르크스는 「諸形態」에서 3가지의 共同的 土地所有 형태의 특징 즉 ① 東洋的 또는 아시아의 형태 ② 古代的 또는 그리스·로마의 형태 ③ 게르만的 형태를 총괄한다. 마르크스는 人類史의 발전단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命題를 내린다: "대체로 말하여 경제적 사회구성(Gesellschaftsformation)이 진보하여 가는 단계로서 아시아적 생산양식, 고대적 생산양식, 봉건적 생산양식, 근대 부르조아적 생산양식을 들 수 있다."<sup>182)</sup>

여기에서는 논의의 편의상 ① 원시공동체 ② 고전적 공동체 ③ 게르만의 공동체에 걸쳐 「諸形態」의 전쟁 개념을 抽出한다.

##### 1) 원시 공동체에 있어서 전쟁의 存在形態

원시공동체의 생산관계의 기초는 생산수단의 공동적 소유이다. 마르크스는 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한다: "所有란 본원적으로 자기에 속한 것으로서, 자기의 것으로서, 인간 고유의 삶의 모습과 더불어 전제된 것으로서, 자연적 생산 조건에 대한 인간의 關係行爲에 다름 아니다."<sup>183)</sup> 원시공동체에 있어서 토지는 공동의 재산이었으며 '노동수단이나 노동제료를 제공하고 거주지, 공동단체의 기초

181. Marx 'Einführung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13, p.639.  
182. Marx 'Zu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Vorwort,' MEW 13, p.9.  
183.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42, p.399.

만약 우리가 「序說」 그 자체의 원문으로 돌아간다면 우리는 실제로 '사회구성체'와 그 '경제적 토대' 또는 '경제적 구조(Struktur)' 사이의 관계에 대한 해명, 즉 생산양식의 연구를 통해 구성된 해부학을 발전하는 것이다. 사회구성체는 제계급 간의 제1의 '모순'의 장으로서, 그것을 마르크스는 투쟁·전쟁·대립이라는 용어로 표현했다. 그 '모순'은 '한 마디로 억압자와 피억압자'('공산당 선언')로 이루어지며 '때로는 공개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은폐되기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그것은 마르크스가 용어법에 이르러까지 제1의 모순과 혼동하지 않도록 항상 주의의를 기울인 제2의 '모순' 형태와 판련된다. 그는 제2의 '모순' 형태를 '적대'(antagonism)라고 부르는데, 그것은 '개인적인 적대의 의미에서가 아니라', 즉 개인 간의 투쟁이 아니라 적대적인 구조라는 의미이다. 그것은 어떤 일정한 생산양식에 전형적인 경제적 토대 내부에 있다. 그리고 그 항들(terms)은 '생산력의 수준'과 '생산관계'라고 불리우는 것이다. 생산력과 생산관계 간의 적대는 하나의 혁명적인 단결의 효과를 갖는 것인데, 한 생산양식으로부터 다른 생산양식으로의 이행(경제적 사회구성체의 전진적인 모든 시기들), 따라서 사회구성체 전체 전체의 변형까지도 결정하는 것은 이 효과이다. 마르크스는 자신의 연구를 경제적 구조 내부에서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영역의 수준이나 이 '적대'의 단계에 한정시키려고 한다.<sup>180)</sup>

마르크스에 있어서 사회구성체의 모순은 투쟁·전쟁·대립·적대의 형태로 드러난다. 마르크스는 더 나아가 '여기에서 서술하지 않으면 안되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되는 점들에 관한 주의 사항'을 환기시키며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전쟁은 평화보다 더 일찍 이루어졌다(Krieg früher ausgebildet wie Frieden). 전쟁에 의하여, 또한 군대 등의 내부에서 임금노동·기계 등의 일정한 경제적 관계들이 부르조아 사회 내부에서보다 더 일찍 발전되는 방식이 완성되었다. 생산력과 교통관계(교류관계: Verkehrsverhältnis)의 관련 역시 군대 안에서 특히 명백하다."<sup>181)</sup>

180. 알튀세르 저음 김진업 옮김, 위의 책, 260쪽.

제도 제공하는 거대한 작업장이었으며 兵器廠이었다.<sup>184)</sup> 따라서 이러한 共同體的 토지소유를 기본으로 하는 원시공동체의 생산력 발전에 있어서 폭력에 의한 他人의 토지 奪取-전쟁은 必要不可缺한 조건이다. 원시공동체에 있어서 전쟁은 '하나의 정상적인 고형형태'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작은 공동체는 서로 獨立한 存하며 草木처럼 생명을 유지하고, 그 공동체 속의 개인은 그에게 할당된 分有地에서 가족과 더불어 독립한다. (한편 공동의 비축, 이른바 保險을 위한 일정한 노동 및 공동체 자체의 經費에 충당하기 위하여 즉 전쟁, 祭祀 등을 위한 일정한 노동들을 지출한다.)"<sup>185)</sup>

마르크스는 '공동노동의 관리', 首長的財産管理(das herrschaftliche

Dominium)에서 賦役 등으로 移行하는 현상의 기초를 발견한다. 이러한 停滞의 원시공동체 사회에서도 일정한 발전이 있었다. 즉 "인구와 수요의 증가, 전쟁이나 교역과 같은 外的交通(der äußere Verkehr)의 확장과 더불어 가족 안에 潛재해 있던 노예제가 비로소 서서히 발전한다."<sup>186)</sup>

그리고 농업·공업이 조화를 이루며 자급자족하는 아시아의 형태와 전쟁의 관계에 관하여 말하자면, '오로지 토지소유·人工權漸가 有力하므로 정복전쟁이 그리스·로마 만큼 필수적인 조건은 아니다.'<sup>187)</sup> 바꾸어 말하면 많은 공동체의 아버지인 전제군주가 여러 공동체의 위에서 군림하는 아시아의 농업사회에서 전쟁이 공동체적 소유관계를 거의 分解시킬 수 없었다.

##### 2) 古典的 共同體에 있어서 전쟁의 존재형태

고전적 공동체의 경제적 기초는 小農民經營과 독립한 手工業經營이다. 그리

184. Ibid., p.384.  
185. Ibid., p.385.  
186. Marx·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MEW 3, p.22.  
187.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42, p.401.



고 고대세계에 있어서 대규모의 協業은 직접적인 지배·예속관계-노예제에 기초하고 있다. 그런데 생산력이 발전하면서 즉 원시공산제 사회에서 노예제 사회로 발전하면서 '공동노동에서 私的勞動에로의 발전'이 이루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要綱」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個個人의 재산이 사실상 공동노동-예컨대 동양의 用水路와 같은-에 의해서만 이용되는 일이 적을수록, 또 역사적인 운동·移動이 종족의 순수하게 자연발생적인 성격을 파괴하는 일이 많을수록, 또 종족이 최초의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진 만 곳의 토지를 점령함으로써 본질적으로 세로운 노동조건 속으로 뛰어들어 개개인의 精力이 점점 더 발전할수록, 종족의 공동적 성격이 외부로 향하여 점점 더 소극적인 統一體로 나타난다. 이런 일이 나타날수록 드디어 個個人이 토지-개별적인 分割地(Parzelle)-의 私的所有자가 되고, 그 토지의 개별적인 경작이 그와 가족의 손으로 되돌아가는 조건을 부여하는 일이 많아진다. 공동체는 국가로서- 한편으로는 自由平等한 私的所有者 상호관계, 외부에 대한 그들의 결합인 동시에 그들의 保障이기도 하다."<sup>188)</sup>

마르크스는 '역사적 운동이나 移動' 더 나아가 '만 곳의 토지를 점령'하기 위한 전쟁을 先進的인 그리스·로마의 원시공동체에서 例證하며, 이러한 전쟁이 고전적 공동체 성립의 전제를 이루는 계기임을 밝힌다. 마르크스의 말을 빌리면 "전쟁은 생존의 재관적 조건을 占取하기 위하여 존재하며 그 占取를 유지하고 永久化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거대한 共同的 임무(die große Gesamtaufgabe)이며 거대한 공동적 노동(die große gemeinschaftliche Arbeit)이다. 가족으로 이루어진 공동체는 당장 군사적으로 軍制·兵制로 편제되며, 所有者로 존재하는 조건 중의 하나이다."<sup>189)</sup>

마르크스에 의하면 전쟁은 공동체의 노동이다. 고전적 공동체의 생산관계의 특징을 드러내는 공동체는, 공동체 구성원의 軍器 등의 형태를 띤 잉여노동에 의하여 보장받는다. 그것은 富를 생산하는 노동-이것에 의하여 공동체 구성원은

188.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42, p.367.  
189. Ibid., p.366.

방식은 게르만 兵制의 영향하에서 봉건적 소유를 발전시켰다."<sup>189)</sup>

이 게르만의 소유형태의 특징은, 개개의 家族長이 먼 길의 안쪽에 떨어진 森林 속에 정착하는 고립된, 자립적인 가족거주에 있다. 그것은 같은 종족 이외의 가족거주와의 동맹과, 이를 상호보충하기 위하여 수시로 벌어지는 전쟁, 종교, 법적 調停 등을 위한 會合에 의하여 보증된다. 이러한 공동체는 이들 개인적 토지소유자들 자체의 상호교섭 가운데서만 존재하게 된다.<sup>190)</sup> 이처럼 게르만의 공동체에서도 전쟁은 생산·분배에 있어서 경제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이 분명해진다.

지금까지 「諸形態」의 전쟁 개념을 정립한 끝에 게르만의 공동체의 전쟁형태를 규정하기에 이르렀다. 「諸形態」에 있어서 '전쟁'을 한마디로 총괄하면 "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의 新規獲得을 위하여 자연발생적인 공동체가 수행하는 가장 本源的인 노동(die ursprünglichste Arbeit) 중의 하나이다."<sup>191)</sup>

## 2. 마르크스의 當대의 전쟁에 대한 평가

### 1) 1848~1850년의 혁명적 전쟁

마르크스는 이 기간에 '新라인 신문(Neue Rheinische Zeitung)'의 편집장으로 수 많은 예리한 정치 논문을 발표한다. 이 논문들의 주요한 주장은, 유럽의 혁명적 민주주의에 관한 것과 反動러시아에 대한 전쟁을 주장한 것이었으며, 이 두 가지 사항을 서로 관련된 것으로 다루었다.

1848년과 1849년에 유럽의 대부분 지역을 휩쓸었던 혁명의 물결이 러시아·오스트리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 弱小 전쟁을 일으켰다. 이 당시 마르크스가 전쟁에 관하여 쓴 글들은 거의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빨리 다가온다는 기대감으로 부풀어 있었다. 그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유럽에서 무르익었다고 믿었다. 그

193. Marx·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MEW 3, p.24.  
194. Ibid., pp.391~392.  
195. Ibid., p.399.

자신을 재생산한다-에 있어서의 協業이 아니라, 공동체 안팎의 단결을 유지하는 (假想的이거나 현실적인) 공동의 이익을 위한 노동에 있어서의 협업이다."<sup>190)</sup>

「要綱」을 잘 읽어보면 이 '고전적 공동체'를 유지·재생산하는 조건들이, 동시에 '필연적으로 공동체의 파괴조건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개인들이 각자 상당한 경각자를 점유해야 할 경우 인구 증가가 방해요소로 된다. 이러한 장애를 예방하려면 權民을 해악하고 權民은 征服戰爭을 필요로 한다. 그와 더불어 노예제 등이 생긴다. 예컨대 公有地(ager publicus)의 확대가 일어나며, 그와 더불어 共同團體를 대표하는 귀족이 생기는 등. 이처럼 남은 공동단계의 유지는 그것의 기초를 이루는 조건들의 파괴요소를 지닌채 反對物로 轉回한다."<sup>191)</sup>

지금까지 그리스·로마의 고전적 공동체 형성이 노예제로 歸結하는 과정을 개괄하고, 고전적 공동체에 있어서 전쟁의 존재형태를 확인했다. 여기에서 한디 더 덧붙이지 않을 수 없는데 전쟁이 노예제를 직접적으로 성립시킨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의하여 비로소 방대한 노예의 공급이 실현된 점이다.<sup>192)</sup>

### 3) 게르만의 공동체에 있어서 전쟁의 존재형태

게르만적 공동체를 문제삼을 경우 「독일 이데올로기」의 다음과 같은 문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봉건제적 발전은 그리스나 로마와는 대조적으로 로마의 정복과 당초에는 그것에 수반된 농업의 확장 및 보다 광활한 대지 위에서 시작되었다. 봉파하는 로마제국의 마지막 몇 세기, 그리고 야만족에 의한 로마제국은 상당 부분의 생산력을 파괴시켰다. 그에 따라 농업은 침체되었고 산업은 판매부족으로 쇠퇴하였으며 교역은 마비되거나 치명적으로 붕괴되어 농촌에서나 도시에서나 인구가 감소했다. 이 기존의 관계와 이것에 따라 조건지워진 정복의 조직

190. Marx 'Grundrisse der Kritik der politischen Ökonomie' MEW 42, p.388.  
191. Ibid., pp.401~402.  
192. 竹村民郎 「マルクスにおける暴力-戰爭概念」, 위의 책, 51쪽.

는 유럽전쟁 혹은 세계전쟁이 곧 터질 것이며 그것이 유럽의 혁명과정을 촉진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 때문에 그는 그 당시 가장 반동적이며 억압적인 권력을 휘두른 제르 러시아에 대항하는 유럽세력의 전쟁을 회망했다.<sup>193)</sup>

마르크스는 '新라인신문' (1848년 7월11일號)을 통하여 '러시아에 대한 전쟁이야말로 혁명적 러시아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프러시아가 과거의 죄악을 씻어내는 전쟁, 프러시아의 君主主義者들을 극복하는 전쟁, 외국을 해방시킴으로써 프러시아도 해방시키는 전쟁'이라는 논지를 펼쳤다. 마르크스는 러시아의 反動에 대한 전쟁의 필연적인 전제는 프러시아 反動的 打破·프러시아의 內戰에 있다고 강조했다. 마르크스는 革命 프러시아가 革命 폴란드와 동맹하여 이 전쟁을 수행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는 유럽전쟁의 결과로서 사회혁명을 기대했다.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관점은 원칙적인 平和至上主義와는 거리가 있다. 마르크스의 사상은 平和至上主義의 敎理가 아니라 革命의 敎理이다. 이 敎理는 '解放戰爭의 성질을 갖는 전쟁'을 승인한다. 사회주의자는 무조건적으로 각종의 전쟁을 否認하지는 않는다. 마르크스는 봉건적인 外國支配·민족적 분열을 제거할 목적을 지닌 '정당한' 민족전쟁에 대하여 同情을 표시한다. 마르크스는 1848년의 정세에 대하여 平和至上主義者로서 판단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그렇다고 그가 슬라브 민족을 증오한 排主義者로서 판단한 것도 아니다.<sup>194)</sup>

유럽혁명을 위한 이러한 對러시아 혁명전쟁의 강조는 1848~49년 혁명에 있어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혁명전략과 변증법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대내적 혁명과 이것의 완성을 위한 대외적인 혁명전쟁의 수행이라는 기본노선은 분명 그들이 프랑스대혁명과 그로 이어진 혁명전쟁의 像에 영향받고 있음을 보여준다. 1848~49년의 혁명과정을 통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조아지의 나약과 비검함이었다. 즉, 당시 독일혁명을 부르조아혁명으로

196. S. F. Kissin 'War and the Marxists' (Boulder: Westview Press, 1988), p.3.  
197. シノブイェフ 저, 佐野 學 옮김 「マルクス・エンゲルスと農民問題」(東京: 白鷺社, 1927), 19~20쪽.



구정하고 1793년 프랑스혁명 모델에 따라 독일 부르조아지의 헤게모니로 수행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들에게 1848~49년 혁명의 실패는 『신라인신문』을 통해 어렵게이 등장한 '永久革命論'을 강조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그들에게 혁명은 '계급적자가 기초하는 모든 생산관계, 모든 사회관계를 철폐하는 필연적인 經過地點'으로서 혁명의 '永久宣言(Permanenzklärung der Revolution),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독재가 필수적이었다.'(MEW 7, p.90)

그렇다면 프롤레타리아트가 국가권력을 쟁취할 때까지 혁명을 永久化할 수만과 전술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의식과 관련하여 '제2의 『공산당 선언』'이라 할 만한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공산주의자동맹 중앙위원회 3월 호소문

(Ansprache der Zentralbehörde an den Bund der Kommunisten vom März 1850),은 실로 1848~49년 혁명의 경험이 농축되어 있는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단계'에 있어서 노동자 계급정당의 전략, 전술에 관한 가장 중요한 문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승리의 첫 순간부터 노동자들을 배반하기 시작하는 이 당파를 확고하게 위협적으로 제압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은 무장하고 조직되어야 한다. 모든 프롤레타리아트는 소총, 기병총, 대포, 탄약으로 즉각 무장하여야 하며 노동자들과 대립되는 낡은 시민자위대의 복구를 반대하여야 한다. 이렇게 할 수 없는 곳에서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신출한 지휘관과 총참모부를 가진 자립적인 프롤레타리아 자위대를 창설하여 그것을 국가권력의 지휘하에 두지 말고 대신 노동자들이 창설한 혁명적인 지방자치 평의회'의 지휘하에 두도록 해야한다... 무기과 탄약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내추어서는 안된다. 무장해제 시도가 있을 때에는 무력으로(mit Gewalt) 이를 격퇴해야 한다.'(MEW 7, pp.250~251.)

「3월 호소문」에서 본 것처럼 마르크스의 논리는, 프롤레타리아 득계·영구혁명론과 밀접히 상관되면서 독자적인 혁명군 사건의 단초라 할 수 있는 프롤레타리아 자위대 창설론으로까지 전개되고 있다.<sup>199)</sup>

199. 이해영 편, 위의 책, 195~197쪽.

구축한 '근대적 전쟁체계'의 '두개의 축'으로 '공격수단의 大量性'

(Massenhaftigkeit)과 이 공격수단의 '기동성'을 제시하며 이러한 근대전의 진체가 '부르조아지와 小農의 사회적, 정치적 해방'이며 부르조아지가 화폐를 발행했듯이 소농은 사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sup>201)</sup>

엥겔스는 "근대전의 수행은 부르조아와 농민의 해방을 전제로 하며 그것은 이러한 해방의 군사적인 표현이다(militärische Ausdruck dieser Emanzipation). 프롤레타리아트의 해방 역시 독자적인 군사적 표현을 가질 것이며 별개의 새로운 전쟁방식을 만들어 낼 것이다... 군사과학(Kriegswissenschaft)에서의 나폴레옹의 위대한 발견이 하나의 기적 따위로 처리될 일이 아니다. 혁명과 나폴레옹에 의하여 만들어진 군사과학이 혁명에 의하여 주어진 새로운 관계들의 필연적인 결과인 것과 마찬가지로, 새로운 군사과학도 새로운 사회적 관계의 필연적 산물일 수밖에 없다."<sup>202)</sup>라고 기술한다.

엥겔스는 '도시의 프롤레타리아 자위대와 농촌의 농민 자위대'와 정규군이 공동으로 수행하는 혁명전쟁의 방법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sup>203)</sup> 내전과 외부의 침략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엥겔스가 그려내고 있는 프랑스의 방어를 위한 가상적 시나리오는 혁명이 전쟁방식을 혁명화한다는 그의 생각에 기초한 것이다.<sup>204)</sup>

보나파르트의 동장은 곧 엥겔스의 프롤레타리아 세계혁명 전략에 있어서 러시아와 함께 붕괴시키지 않으면 아니 될 또 하나의 적이 출현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새로운 상황전개와 함께 전쟁론과 씨름한 엥겔스의 연구는 계속적으로 진전되어 나갔다. 1852년 5월 7일 그는 마르크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우리가 군사과학에 관하여 말할 때, 일반적으로 技術(Kunst)개념에

201. Engels 'Bedingungen und Aussichten eines Krieges der Heiligen Allianz gegen ein revolutionäres Frankreich im Jahre 1852,' MEW 7, p.477.

202. Ibid., pp.480~481.

203. Ibid., p.477.

204. 이해영 편, 위의 책, 201쪽.

## 2) 1850~1860년대의 전쟁

1850~1860년대는 투르크(터어키) 문제를 에워싼 유럽 對 러시아의 투쟁(1854~1855년의 크림 전쟁)이 격화된 '민족전쟁의 시기'일과 동시에, 미국 남북전쟁·普興(프러시아-오스트리아)戰爭이 터진 기간이다. 마르크스는 미국의 'New York Tribune'紙에 기고한 글에서 러시아 제리의 정책이나 당시 유럽 나라들의 (집이 많아 동요하는) 현상유지 정책에 대하여 예리한 정치분석을 한다. 마르크스는 이들 기고문에서도 유럽의 진보세력과 러시아의 反動政治는 兩立하기 어려우며 後者의 압력에 의한 前者의 瓦解危機를 역설하면서, 러시아에 대하여 전쟁을 벌여야한다는 태도를 보인다.

1850~1860년대에 걸쳐서 일어난 유럽 및 기타 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에서 마르크스가 의도한 바는, 그 전쟁이나 충돌이 프롤레타리아 혁명에 여하히 유리한 계기로 작용할 것이며 또 작용하도록 혁명운동을 지도할 것인가였다. 특히 1851년 12월 쿠데타로 집권한 프랑스의 보나파르티즘이라는 반혁명세력과 유럽 반동의 보루인 러시아를 어떻게 견제하며 그것들을 분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이 시기 마르크스주의 세계혁명 전략의 기축을 이루는 것이었다.<sup>199)</sup>

당시 군사과학에 입문한 엥겔스의 최초의 성과는 1851년 9~10월에 집필된 「反佛神聖同盟 전쟁의 가능성과 전제, 1852」라는 논문이었다. 이 논문에서 엥겔스는 전쟁수행 및 군대의 발전을 생산력과 생산관계와의 상호연관하에서 발전시킨면서 동시에 프랑스에 차기 혁명이 일어날 때 필연적으로 도래할 주변 반동적 국가의 침략으로부터 여하히 프랑스를 방어할 것인가 하는 문제의식을 구체적으로 전개하고 있다.<sup>200)</sup>

엥겔스는 近代戰의 수행이 프랑스혁명의 산물이며 바로 나폴레옹이 완전히

199. 이해영 편, 위의 책, 198쪽.

200. 같은 책, 200~201쪽.

서 시작하여 그 다음 요리기술도 하나의 기술이라는 점을 논증한 다음 기술과 과학의 관계로 확장하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으로 군사기술(Kriegskunst)의 모든 법칙, 관계, 가능성을 하나의 절대적 경식, 즉 강자는 언제나 약자에게 승리한다는 사실로 상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여기에 산뜻한 착상과 단순화된 근본법칙으로 사용할 만한 환원이 존재한다. 만일 그것이 사색에 적합하지 않다면 그것 또한 곤란할 것이다. 나는 아직 실천에 적용할 만큼 도달하지 못했다"<sup>205)</sup>

이처럼 엥겔스는 완성된 형태는 아닐지라도 프러시아의 장군이자 군사이론가인 빌리켄(Wilisen)의 저서를 평가하면서 '군사과학'의 근본법칙을 개념화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런데 엥겔스의 군사론 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을 보게 되고 따라서 독자적인 군사적 판단을 가지고 당대 유럽전쟁을 판단한 계기가 된 것은 1854년에 발발한 크림전쟁(Krimkrieg)이었다.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지적 협력의 탁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뉴욕 데일리 타임즈'지의 군사관계 논문에서 엥겔스는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의 입장에서 자신의 '독자적인 군사적 판단'을 전개하고 있다. 이 신문에 대한 평가고로 생계의 상당 부분을 빼우고 있던 마르크스는 특히 '지구적국한 동방문제 (déstorable question orientale)'는 무엇보다 군사적이며 지리적인 것으로 나의 영역이 아니므로 엥겔스에게 일임한다고 일린다. 마르크스는 크림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한다면 '맨체스터의 전쟁장관

(Kriegsministerium zu Manchester)의 즉각적 혼령'에 맡겨 버릴 것이라고 전쟁 전에 말하고 있다.<sup>206)</sup>

### ① 크림 전쟁 (1854~1856년)

흔히 '승려들의 전쟁'이라 불리는 크림전쟁은 터어키를 둘러싼 소위 열강들의 세력각축이었다. 크림전쟁은 당시 터어키의 영토에 속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서의 카를타과 그리스정교 간의 성지분쟁을 빌미로 하여 이들 종교세력의 보호자 역할을 하고 있던 프랑스와 러시아, 그리고 오트만제국 내에 상당한 경제적

205. Engels 'Engels an Marx in London(1852. 5. 7),' MEW 28, p.71.

206. Marx 'Marx an Engels in Manchester(1853. 9. 30),' MEW 28, p.299.



이해를 가지고 있었고 오토만제국 내에서 러시아의 세력증대를 원하지 않던 영국의 이해가 맞물리면서 발생한 전쟁이었다.<sup>207)</sup>

마르크스는 크림전쟁에서 어떤 입장을 취했을까? '反動的 러시아에 反動!' - 이 표어는 마르크스에 있어서 움직일 수 없는 확고한 것이었다. 그는 크림 전쟁이 혁명운동의 新生을 불러일으키리라는 희망을 가졌다. 마르크스는 유럽혁명 의 일반적 · 국제적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크림전쟁을 관찰했다. 그들은 유럽 민족들의 자유를 위하여 反動的 러시아의 패배를 회려했다.<sup>208)</sup>

여기에서 국제관계 인식의 출발점이자 전략기준인 '제6세력(sechste Macht)' 개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우리가 잊어서는 안되는 것은 유럽에서는 어느 순간에 소위 5개의 열강의 모두에 대해 자신들의 지배권을 주장하고 그들을 공포에 쫓게할 제6세력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이 세력은 혁명이다(Diese Macht ist die Revolution). 그것은 오랫동안의 침잠 끝에 무역위기와 생계수단의 압박을 통해서 제차 戰場에 나타날 것이다... 이 제6의 강력한 유럽세력은 마치 유럽피어 신전에서 날아오르는 미네르바처럼 손에는 칼을 들고 빛나는 투구를 쓰고 등장할 것이다"<sup>209)</sup>

엥겔스가, 원칙적으로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에 입각한 유럽의 혁명운동을 (민족국가가 지배하는 국제관계의 틀 속에서 분리시켜) 하나의 독자적인 세력으로, 즉 소위 열강인 영국,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과 차별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여기에서 알 수 있다. 이것은 또한 엄격히 계급적 관점에서 당대의 국제관계를 혁명적 민주주의와 프롤레타리아 해방운동, 그리고 민족해방 운동의 시각에서 조망하고 나폴레옹 전쟁 이후 1815년 수립된 유럽의 반동적 국제제, 즉 유럽협조제(Concert of Europe)를 진보적 역사발전의 장애로 인식하고 있던 마르크스와 엥겔스의 입장을 명백히 확인할 수 있는 개념이다.<sup>210)</sup>

207. 이 해명, 위의 책, 203쪽.

208. シノヴィエフ 저음·佐野 學 옮김, 위의 책, 29~30쪽.

209. Engels 『Der europäische Krieg』 MEW 10, p.8.

210. 이해명 편, 위의 책, 204쪽.

것이다."<sup>213)</sup>

이처럼 남북전쟁이 內戰의 성격을 갖는다고 규정한 마르크스는 ① 남북전쟁은 불가피했다는 점 ② '남북전쟁은 실제로 연방의 해체가 아니라 노예를 소유한寡頭政治의 통제 아래에서, 노예제의 토대 위에서 재구성한 결과로서 발생한 것이다'<sup>214)</sup>는 점을 전제로 삼는다. 남북전쟁의 원인이 노예제와 자유노동제라는 본질적으로 다른 제도 사이의 모순에 있다는 점을 명백히 한 마르크스는, 남북전쟁의 진보적 의미를 강조하면서 남부측의 공격성을 비판한다.<sup>215)</sup>

### ㉠ 남북전쟁의 계급성

내전의 계급성이라는 관점에서 마르크스는 당연히 북부를 지원한다. 즉, 남부와 북부의 전쟁이 노예제와 자유의 전쟁일 때, 남부의 전쟁은 방어전쟁(Verteidigungskrieg)이 아니라 노예제의 확산과 영구화를 위한 정복전쟁(Eroberungskrieg)이다.<sup>216)</sup> 마르크스는 이러한 '정복전쟁'을 일으킨 남부의 노예소유주 파두제가 노예제를 정당화시켜 왔고, 이 뿐만 아니라 노동자계급 일반을 노예로 만들어 왔음을 강조한다.<sup>217)</sup> 즉, 남부에서 노예노동이 존재하는 한 미국 전체에서의 노동운동의 발전은 장애를 받게 될 것인 바, 이것은 흑인노동이 노예적인 한 백인노동 또한 해방될 수 없다는 관점이다. 그러므로 노동자계급의 이해는 북부의 노예제 폐지를 위한 진보적 성격의 전쟁에 있게 된다.

마르크스가 1862년 8월 9일자 『Die Presse』 지에 기고한 글에 따르면, '진보적인 북부가 승리하기 위하여 정부로 하여금 혁명전쟁의 수행을 강요하게 하고 성조기에도 노예제 폐지를 전후구호로 써 넣어야 한다.'<sup>218)</sup> 그리고 노예제 폐지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전쟁은 내전의 제1장으로서, 즉 임헌주의적 전쟁수행에 불

213. Marx 『Der Bürgerkrieg in den Vereinigten Staaten』 MEW 15, p.346.

214. Ibid., p.345.

215. 編本保信 『マルクスの南北戦争論』 『西南學院大學文理學論』 第26卷第1號(1985年 7月), 2~3쪽.

216. Marx 『Der Bürgerkrieg in den Vereinigten Staaten』 MEW 15, p.340.

217. Ibid., p.344.

218. Marx 『Zur Kritik der Dinge in Amerika』 MEW 15, p.525.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크림전쟁은 혁명적 상황의 유리한 계기를 창출해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다. 특히 이것은 러시아와 관련지었을 때 명백한 것이다. 반동적 짜리즘의 유럽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는, '단지 하나의 대안이 있을 뿐이다. 슬라브측에 의한 노예화, 아니면 항상 그 공격력의 중심인 러시아의 멸망이 있을 뿐이다.'<sup>211)</sup>

마르크스는 크림 전쟁을 '자유와 전체의 투쟁'이라고 규정한다. 그러므로 마르크스는 기본적으로 러시아 심벌전이라는 『新라인신문』시기의 전략의 연장으로 헝가리아 혁명전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짜리즘에 대한 전쟁을 통하여 새로운 혁명적 상황을 창출하고 러시아의 유럽에 대한 반동적 영향력으로부터 유럽을 해방시켜 혁명운동을 고양시키고자 하는 그들의 의도에 부합되는 것이었다.<sup>212)</sup>

### ㉡ 미국 남북전쟁(1861~1865년)

1861년 4월, 15개 노예소유주로 구성된 남부의 신제국격으로 개진된 미국의 내전은 새로운 혁명적 시기의 고양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마르크스의 관심을 끈 전쟁이었다. 마르크스가 남북전쟁을 특별히 연구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없으나, 남북전쟁이 유럽의 노동자 계급에 큰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여 수십편의 논문을 발표한다.

#### ㉠ 남북전쟁의 원인

마르크스는 남북전쟁 발발 7개월 뒤인 1861년 11월 7일 『Die Presse』에 기고한 글에서 다음과 같이 밝힌다: "현재 남부와 북부간의 이 전쟁은 두개의 사회체제, 즉 노예제 체제와 자유노동 체제 간의 투쟁에 지나지 않는다. 두 체제가 북미대륙에서 더 이상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없기 때문에 투쟁이 발발하였다. 이 싸움은 두 체제 중 어느 한쪽이 다른 쪽에 승리를 거둠으로써만 종결될 수 있을

211. Engels 『Deutschland und der Panislawismus』 MEW 11, p.194.

212. 이해명 편, 위의 책, 205쪽.

과하며, 제2장은 혁명전쟁의 수행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sup>219)</sup> 이는 전쟁을 혁명의 유용한 계기로 이용하려는 그의 전략이 재차 확인되는 대목이다.

#### 3) 普佛戰爭

1870년 7월 19일 루이 나폴레옹의 선전포고로 시작된 보불전쟁은 독일통일의 주敵이었던 반혁명적 프랑스를 분쇄함으로써 독일이 통일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는 전쟁이었다.

보불전쟁은 권모술수와 힘의 신봉자인 비스마르크의 지도 아래에서 벌어졌는데, 마르크스는 철저한 國際主義者로서 이 전쟁을 비판했다. 이러한 전쟁 비판에 기초한 제1인터내셔널의 普佛戰爭에 관한 제1선언, 제2선언, 제3선언, 엥겔스·쿠겔만(Kugelmann) · 비슬리(Beesly)에게 보낸 편지 등에 그의 普佛戰爭觀이 잘 나타나 있다.<sup>220)</sup>

普佛戰爭은, 유럽 최후의 민족전쟁이었다. 이 단계에서 마르크스의 입장은 이 전과 달랐다. 당시 자본주의의 입구에 들어선 러시아에서는 국내적 위기가 발생함과 동시에 내부에서 혁명 운동이 시작된다. 이 때 유럽 노동자 운동의 새로운 약진이 이루어져 제1인터내셔널이 창립된다. 이제 전쟁의 문제는 '혁명적 민주주의'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름으로 제기되었다. 이는 '민족문제가 유럽정치적 중심'이라고 본 1848~1863년의 전쟁에 대한 입장과 다른 것이다.<sup>221)</sup>

普佛戰爭이 발발하자 마르크스는 『普佛戰爭에 관한 국제노동자회의 총평의 회에서의 첫번째 연설(Erste Adresse des Generalrats über den Deutsch-

219. Ibid., p.526.

220. 佐野 學, 위의 책, 37~38쪽.

221. シュミット 편 高田爾郎 옮김 『エンゲルス』(東京: 現代思想社, 1977), 14~15쪽. [K.Schmidt 『Engels』]



Französischen Krieg』을 통해 이 전쟁에 대한 혁명적 노동운동의 입장을 천명한다. 마르크스는 '이 전쟁이 루이 보나파르트의 1851년 12월 쿠데타의 개정에 불과하며 이것은 제2제정의 屍體가 파리에 울러퍼진 것이며 시작과 동시에 장송곡으로 끝날 전쟁'이라고 선언한다.<sup>222)</sup> 그러므로 '이 전쟁은 독일인 쪽에서 보면 방어전쟁, 必要惡으로서의 방어전쟁'<sup>223)</sup>이라고 마르크스는 주장한다.

또한 이 전쟁은 (나폴레옹 3세가 쓰러지기 전까지) 독일 쪽에서 보면 부르조아적-진보적인 전쟁이었으며 민주주의의 발전을 촉진시키는 재판적·역사적 기초를 갖고 있었다. 나폴레옹 3세가 러시아 짜리즘과 함께 독일의 봉건적 분열상태를 유지함으로써 독일의 통일을 방해하고 독일을 억압해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일에 의한 프랑스 약탈이 자행되었을 때, 즉 독일이 알사스-로렌을 병합했을 때 마르크스는 普佛戰爭을 가치없이 비난한다.<sup>224)</sup>

포러시아는 '국내 민중의 저항을 봉쇄하고 독일을 호헌쥬레른 王朝에 합병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전쟁을 시작한 '王朝戰爭'을 벌인다.(MEW17, p.5.) 그러나 보나파르티즘의 독일판에 다름없는 비스마르크 체제와 반혁명적인 프랑스 지배 계급이 전쟁을 수행하는 한 반동적 왕조전쟁이지만 전쟁의 진보적 측면 — 독일 통일을 완수하고 반혁명적 보나파르티즘을 분쇄하는 — 으로 볼 때, 독일이 방어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보불전쟁에서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사용하는 '방어'의 개념은 평면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복합적 계기가 내재해 있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sup>225)</sup>

결국 프랑스는 1870년 9월 2일에 패전하고 나폴레옹은 독일의 포로가 되었으며 곧 이어 파리에서는 공화국이 선포된다. 이 시점에서 마르크스의 전쟁정책은 대전환을 한다. 즉, 방어전쟁 개념에 기초하여 전쟁의 제한적 가치를 승인한

222. Marx "Erste Adresse des Generalrats über den Deutsch-Französischen Krieg" MEW 17, pp. 4-5.  
223. Ibid., p.6.  
224. 平野義太郎 지음 『平和の思想』(東京:白石書店, 1978), 65쪽.  
225. 이해영 편, 위의 책, 220쪽.

4) 파리코뮌

마르크스는 내전·계급투쟁을 통한 인민전쟁(Volkskrieg)에서 혁명·대중봉기에 이르러까지 전쟁의 여러가지 양상을 이론화한다.<sup>230)</sup> 이러한 내전·계급투쟁·인민전쟁·혁명·대중봉기의 모습을 가장 翻의 것으로 보여준 것이 파리코뮌이다.

1870년 9월 2일의 세당에서의 프랑스군의 항복으로 보나파르트 체제는 붕괴되기에 이른다. 그리고 프러시아 군대가 파리의 문전을 위협하는 긴급상황에서 파리의 민중은 그 대표들로 하여금 '국방정부'를 선포케 하였다. 이 국방정부에 대한 입장을 마르크스는 이미 『普佛戰爭에 관한 국제노동자협회 총평의회에서 의 두번째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반동세력이 군대와 경찰을 장악하고 프러시아 군대가 파리의 성문을 두드리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부르조아정부 진부기도는 전적으로 어리석은 일이며 따라서 프랑스 노동자들은 시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러나 결코 1792년의 추억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파기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계급조직을 구성하고 신정부에 의해 주어진 정치적 자유를 수단으로 활용하여야만 하며, 이러한 정치적 자유는 프롤레타리아 해방을 위한 헤라클레스적인 힘을 노동자계급에게 부여할 것이다."<sup>231)</sup>

파리의 노동자가 프로이센 軍의 눈 앞에서 무장봉기하는 것에 대하여 마르크스는 처음 얼마 동안 반대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도중에 전면적인 지지로 전환한 것은 결코 '일이 벌어진 이상 다른 방도가 없다'는 소극적인 이유에서가 아니었다. 또한 '노동계급의 투쟁이라면 무엇이든 전면적으로 지지해야 한다'는 단

102-103쪽. [Л. Троцкий] 『Война и революция』 (Москва: НКВД, 1925).  
(『Война и революция』, т.1, 3-е изд. М. 1924, 3-е.)  
230. W.B. Gallie 지음 『Philosophers of peace and war』(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p.80.  
231. Marx "Zweite Adresse des Generalrats über den Deutsch-Französischen Krieg" MEW 17, pp.277-278.

보불전쟁의 제1국면에서와는 달리 프랑스공화국이 수립된 이 시점에서는 평화가 그의 관심이 되는 것이다.<sup>226)</sup>

전쟁국면의 새로운 전개에 따른 독일 노동자들의 입장을 마르크스는 '프랑스를 위한 영광스러운 평화와 프랑스 공화국의 승인'이라는 슬로건 속에 집약시킨다.<sup>227)</sup>

마르크스는 보불전쟁에서 첫째, 제1국면(전쟁발발에서 프랑스의 항복까지)에서는 보불전쟁의 진보적 측면, 즉 프랑스의 해방과 독일통일에 주목하면서 이 전쟁을 '독일측의 방어전쟁'이라는 개념으로 정당화시켰고, 둘째로 자신이 설정한 소기의 전쟁목적이 완료되자 일종의 사회주의적 평화원칙에 따라 이 전쟁을不正義한 전쟁으로 비판하면서 특히 독일의 알사스-로렌합병을 새로운 전쟁의 병이라고 인식하였다.<sup>228)</sup>

마르크스에 있어서 근본적인 의의를 갖는 것은, 전쟁의 역사적 역할을 예외시킨 문제이다. 즉 '전쟁은, 생산력·국가형태의 발전이나 프롤레타리아트의 힘(力)의 집적을 촉진하는 것일까, 그렇지 않으면 저해하는 것일까'에 관한 문제이다. 전쟁에 관한 이러한 유물론적인 평가는 어떠한 형식적 계기보다 가치가 있다. 이는 본질적으로 방위적인가 공격적인가 하는 문제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때때로 이러한 형식적 표현은, 多少나마 근거를 갖고 전쟁의 역사적 평가를 표시하는 것이기도 하다. 엥겔스가 1870년에 독일이 방위의 입장에서 서 있다고 말했다 때, 그는 직접적인 정치적·외교적인 사정을 전혀 眼中에 두지 않았다. 그에 있어서 결정적인 사실은, 이 전쟁을 통하여 독일이 스스로 민족통일의 권리를 위하여 싸우고 있으며, 민족통일은 독일의 경제발전과 프롤레타리아트의 사회주의적 결집에 必要條件이라는 점이다.<sup>229)</sup>

226. 같은 책, 222쪽.  
227. Marx "Zweite Adresse des Generalrats über den Deutsch-Französischen Krieg" MEW 17, p.276.  
228. 이해영 편, 위의 책, 225쪽.  
229. 트로츠키 지음, 西島 榮·早川 潤 옮김 『戰爭とインターナショナル』(東京:拓樹書房, 1991), 119.

순한 윤리 의의에서도 아니었다. 거기에는 普佛戰爭의 성격이 도중에 변질되기 시작한 것이나 당시 유럽의 정치역학에 대한 일정한 계산 등 복잡한 요인이 개재되어 있다.<sup>232)</sup>

프롤레타리아트의 무장과 부르조아 정부의 갈등은 필연적인 것이었다. 1870년 10월 31일 베르사유가 함락되고 프랑스의 바젠느 장군의 투항소식을 접한 후 시민들이 시적으로 집결하자 국방정부는 부르조아 지구의 국민위병을 동원해 이를 진압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역설한다: "파리는 노동자계급을 무장시키지 않고는, 그들을 쓸모 있는 戰力으로 전환하여 전투 자체에 의하여 그들의 대열을 단련시키지 않고는 방어될 수 없다. 武裝한 파리는 곧 武裝한 혁명이었다.(Paris in Waffen, das war die Revolution in Waffen) 만약 프로이센의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파리가 승리하게 된다면, 이는 곧 프랑스의 자본가들과 그들의 國家寄生蟲(Staatsparasiten)에 대한 프랑스 노동자들의 승리가 될 것이다."<sup>233)</sup>

코뮌은 지배계급의 수중에 있는 盲目的인 무기 — 常備軍을 전인민의 무장력으로 대체시켰다. 코뮌은 국가로부터 교회의 분리를 선언하고, 종교예신(宗敎豫申)에 대한 국가의 봉급을 폐지하고, 국민교육에 전적으로 무종교적 성격을 부여하였다. 그리고 이렇게 함으로써 法衣를 걸친 憲兵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했다. 코뮌은 파괴된 국가기구를 '단지' 보다 완전한 민주주의로 교체한 것, 즉 상비군을 폐지하고 모든 공직자의 완전한 선거제의 해임제를 실시한 데 지나지 않는 것이 보인다. 그러나 사실에 있어서는 이 '단지'란 것은 한 기구를 원칙적으로 다른 종류의 기구로 바꾸어 놓는 거대한 교체를 의미한다. 여기에서 바로 '양이 질로 진화'하는 경우의 실례를 볼 수 있다.<sup>234)</sup>

이렇게 量에서 質로 변증법적인 轉化를 일으킨 파리코뮌을 마르크스는 이렇게 222. 廣松渉·片岡啓治 편, 권명의 옮김 『마르크스·엥겔스 혁명론』(서울: 지평, 1988), 96쪽.  
[『マルクス・エンゲルス革命論』(東京: 紀伊國屋書店, 1982)]  
233. Marx "Der Bürgerkrieg in Frankreich" MEW 17, p.319.  
234. 국공문제연구소 편 『馬克思主義大系』(서울: 1984), 244-245쪽.



게 평가했는가? 마르크스에 의하면 “코문은 본질적으로 노동자 계급의 정부였으며 橫額者階級에 대항한 生産者階級의 투쟁의 산물이고, 노동의 경제적 해방을 완수하기 위하여 마지막으로 발전된 정치형태였다.”<sup>235</sup> 인간이 계급지배로부터 영원히 해방될 위대한 사회혁명의 아침노을<sup>236</sup>인 파리고문은 그 ‘직접적 결과’가 무엇이건 간에 세계사적 중요성을 지닌 새로운 출발점이 획득된 것<sup>237</sup>으로서, 파리 노동자들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정치권력을 장악해야 하는 최고 의 의무와 절대적 권리를 자각’<sup>238</sup>하게 되는 역사적 계기였다고 마르크스는 평가했다. 마르크스는 또한 ‘帝政에 대한 직접적 대항물은 코문이었으며,’<sup>239</sup> ‘코문은 社會共和國(die soziale Republik)의 확고한 형태였다’<sup>240</sup>고 평가했다.

그리고 앙겔스의 다음과 같은 평가는 주목할 만하다: “파리고문은 전투적 프롤레타리아트도 마침내 대강되었다고 사람들은 믿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코문과 普佛戰爭을 起點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참으로 강력한 비약이 시작된다. 북부 가능한 전국민이 배만 단위를 해아리는 군대에 편제되었고 미중유의 효력을 가진 화기·총탄·폭약에 의하여 軍事 전방이 전면적으로 변혁되었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보나파르트주의의 전쟁시대는 급속히 종결되고 평화로운 산업발전이 보장되었다. 왜냐하면 前代未聞의 잔학함과 豫測 不詳의 결과를 가져 올 세계전쟁(Weltkrieg) 이외에 어떠한 전쟁도 불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 군사변혁에 의하여 군사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대했고 조세는 전쟁부지로 뛰어올랐기 때문에 가난한 인민계급을 사회주의의 품 속으로 내모는 결과가 되었다.”

241)

235. Marx 'Der Bürgerkrieg in Frankreich' MEW 17, p.342.  
 236. Marx 'Resolutions der Feier zu Ehren des Jahrestags der Pariser Kommune,' MEW 18, p.56.  
 237. Marx 'Marx an Ludwig Kugelmann(1871.4.17.)' MEW 33, p.209.  
 238. Marx 'Der Bürgerkrieg in Frankreich' MEW 17, p.336.  
 239. Ibid., p. 338.  
 240. Ibid.,  
 241. Engels 'Einleitung zu Karl Marx' 'Die Klassenkämpfe in Frankreich 1848 bis 1850.' MEW 7, p.518.

것이다.”<sup>246</sup> 그의 이러한 예언은 파리고문 이후의 역사 속에서 충분히 검증되었다.

마르크스는 普佛戰爭에 관한 탁월한 연설문을 통하여 파리고문을 예견한다. 그러므로 파리고문을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보불전쟁에 관한 마르크스의 연설문을 미리 고찰할 필요가 있다.

마르크스는 코문이 최후를 맞이한 ‘피의 週間’이 끝난 이틀 뒤에 ‘프랑스에 있어서의 內戰(Der Bürgerkrieg in Frankreich)’을 脫稿한다. 파리고문에 관한 여러 저술들 중에서도 壓卷인 ‘프랑스에 있어서의 內戰’에서 ‘계급투쟁을 한 단계 끌어 올리는 모든 혁명 뒤에는, 국가권력의 완전히 억압적인 성격이 더욱 공공연하게 나타난다’<sup>246</sup>고 지적한 마르크스는 ‘생산대중에 맞서는 지배계급의 끊임 없는 十字軍이, 지배계급으로 하여금 행정부에 부단히 증대하는 억압권력(Unterdrückungsmacht)을 부여하도록 강요했다’<sup>247</sup>고 언급함으로써, 파리고문을 무력진압한 국가권력(피에르 정부)의 暴暴를 비판한다.

마르크스는 코문이 대체한 자본주의적 국가권력의 성격을 ‘노동자 계급의 억압을 위한 공권력(die öffentliche Gewalt)’이자 ‘계급지배의 機構’로 규정한다. 그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봉기위협에 부딪친 부르조아지가 국가권력을 ‘노동에 대립한 자본의 국가적 전쟁도구(das nationale Kriegswerkzeug des Kapitals gegen die Arbeit)’로서 무자비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한다.<sup>248</sup> 마르크스에 의하면 ‘議會制 共和國의 시기에 국가권력은, 마침내 생산하는 인민대중에 대립하여 橫額者階級이 지휘하는 노골적인 전쟁도구이다.’<sup>249</sup>

그러므로 이 국가적 전쟁도구에 맞선 ‘코문의 첫번째 포고는 상비군을 진압

245. Marx 'Zweite Adresse des Generalrats über den Deutsch-Französischen Krieg' MEW 17, p. 278.  
 246. Marx 'Der Bürgerkrieg in Frankreich' MEW 17, p.336.  
 247. Ibid., p.337.  
 248. Ibid., pp.336~337.  
 249. Marx 'Zweiter Entwurf zum 'Bürgerkrieg in Frankreich.' MEW 17, p. 594.

마르크스는 파리고문의 본질을 여러 저술에서 밝히는데, 군국주의와 전쟁에 대하여 노동자 계급이 취해야 할 관점을 서술하고 있는 ‘普佛戰爭에 관한 국제 노동자대회 총평의회에서의 첫번째 연설’과 ‘두번째 연설’, 自國의 평창을 위한 전쟁에 반대하고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원칙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가 수행한 비타협적인 투쟁을 잘 보여주고 있다.<sup>242</sup>

‘첫번째 연설’은 자신들의 王家의 이기적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전쟁을 도발했던 프로이센 왕국과 보나파르트주의적인 프랑스의 반동적 음모들을 폭로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마르세예즈(Marseillaise), 지(1870년 7월 22일자)의 다음과 같은 기사를 인용한다: “전쟁, 그것은 정당한가?—아니다! 전쟁, 그것은 국가적인 것인가?—아니다! 그것은 단지 王朝의 일일 뿐이다. 正義·민주주의·프랑스의 진정한 이익의 이름으로, 전쟁에 반대하는 인터내셔널의 항의를 전적으로 열렬히 지지한다.”<sup>243</sup>

그는 이어서 ‘우리는 모든 전쟁, 무엇보다도 王朝間의 전쟁의 반대자이다... 유감스럽고 서글프게도 우리는 必要惡으로서의 방어전쟁을 겪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는 생각이 있는 전체 노동자 계급에게, 민중들 자신을 위하여 전쟁과 평화에 대하여 결정할 권력(Macht)을 요구하고, 그들 자신을 자신의 운명의 주인으로 만들도록써 그러한 엄청난 사회적 불행의 재발을 방지하도록 호소한다’는 대중집회의 결론을 인용한다.<sup>244</sup>

‘두번째 연설’은 전쟁의 성격이 일정하게 변화를 겪고 난 뒤에 쓰여졌다. 마르크스는 ‘두번째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현재의 무시무시한 전쟁은 한층 더 무시무시한 국제적 분쟁의 전조에 지나지 않는 것이며, 모든 국가에서 칼·망·자본의 주인들이 노동자들에 대하여 새로운 승리를 거두도록 해줄

242. 마르크스·앙겔스 지음, 대백 편집부 옮김 ‘프랑스 혁명 연구(III)’, 4쪽. [Marx·Engels 'On the Paris Commune', (Moscow: Progress Publishers)]  
 243. Marx 'Erste Adresse des Generalrats über den Deutsch-Französischen Krieg' MEW 17, p.5.  
 244. Ibid., p. 6.

하고 이를 무장한 인민으로 대체하는 것이었다.”<sup>250</sup> 그리고 코문이 주도해야 할 역사의 새 시대를 명백히 알리기 위하여, 한쪽에서는 프로이센 정복자가, 다른 쪽에서는 보나파르트주의자 장군들이 이끄는 보나파르트 군대가 보는 앞에서, 코문은 전쟁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대한 상징물인 방돔기둥(Vendôme-Säule)을 허물어 버렸다.<sup>251</sup> 이러한 코문의 ‘노동자 정부는, 노동수단의 獨占者들과 자본에 대한 전쟁으로서 선포된 것이다.’<sup>252</sup>

파리고문은 계급투쟁이 內戰으로 飛火한 것이므로, 국가나 민족 사이의 전쟁(Nationalkrieg)과 성격을 달리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계급투쟁으로서의 內戰’과 ‘國家間 전쟁’의 相關性을 강조한다: “舊社會가 아직도 할 수 있는 최상의 영웅적인 飛翔은 國家間的 전쟁이다. 그리고 이제 그것은 다름 아닌 계급투쟁을 지연시키려는 목적을 지닌 정부의 속임수임이 증명되고 있으며, 계급투쟁이 內戰으로 飛火되자마자 國家間 전쟁은 飛散한다.”<sup>253</sup>

<계급투쟁을 지연시키는 전략으로 國家間 전쟁을 일으키거나 대중들의 불만을 무마하기 위하여 전쟁을 일으키는 지배계급<sup>254</sup>은, 계급투쟁이 內戰으로 변하면 內戰을 진압하기 위하여 國家間 전쟁을 중단한다<sup>255</sup>>는 마르크스의 통찰은, 계급투쟁-內戰-國家間 전쟁의 三角關係를 확인시켜준다. 이 三角關係에 ‘Gewalt’가 內在하는데, 이 三角關係의 轉變에 따라 전쟁과 평화의 分岐點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250. Ibid., p. 338.  
 251. Ibid., pp.346~347.  
 252. Marx 'Erster Entwurf zum 'Bürgerkrieg in Frankreich.' MEW 17, p.558.  
 253. Ibid., p.361.  
 254. 프러시아의 지배계급은, 국내 민중의 저항을 봉쇄하기 위하여 프랑스와 普佛戰爭을 벌였다.  
 255. 1870년에 普佛戰爭을 치른 프랑스와 프러시아의 지배계급은 파리고문을 리견까지 군사적인 갈등관계에 있었으나, 파리고문 이후 프랑크푸르트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反파리고문’ 공존선을 펼친다. 프랑크푸르트 평화협정은 1871년 5월 10일에 체결된 협정으로 알사스와 로렌지방을 독일에 양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파리고문 전담을 도약준 비스마르크의 對價가 이 협정에 보장되어 있었다.



지금까지 記述한 파리코문의 意義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파리코문을 계기로 근대 국가체계의 일상적 전쟁양식인 民族戰爭은 일단 시효만기된 것으로 간주되고 이를 대체하여 內戰이 전쟁개념의 중심에 등장하게 된다. 이 내전이야말로 미래세계의 진보적 기능을 담지하는 전쟁형식이 되는 것이며, 이 內戰이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계급전쟁인 한 그것은 당연히 正義의 戰爭(der gerechte Krieg)으로 이해된다. 둘째, 파리코문에 의하여 부르주아 사회의 억압적 '판료적 - 군사적 기구'를 프롤레타리아 국가권력에 의해 지도되는 민주적 군사조직으로 대체한 것, 즉 상비군을 대체할 프로그래밍으로서 '무장 프롤레타리아트'라는 새로운 군사조직 개념이 제시되었다는 점이다. 이것은 다름 아닌 프롤레타리아 혁명의 완수를 위한 프롤레타리아 혁명군의 구성을 말하며, 프롤레타리아 독재의 군사적 표현에 다름 아닌 것이다.<sup>256</sup> 셋째, 世界史的인 중요성을 지닌 새로운 출발점으로서의 파리코문은, 노동자들 스스로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해야 하는 의무와 권리를 자각한 역사적 계기였다. 마르크스는 파리코문을 프롤레타리아 혁명 이후의 '새로운 사회'의 기초를 이루는 정치행태로 인식했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Commune'은 'Communism'의 기초였다. 그는 파리코문에서 다음 시대의 曙光을 발견했다. '파리코문은 第2帝政의 국가권력에 대한 단호한 부정, 19세기 사회혁명의 시작이었으며<sup>257</sup> 위대한 과거에 사로잡혀 '첫번째는 悲劇으로 두번째는 笑劇으로 끝나는<sup>258</sup> 愚를 결코 범하지 않았다.

### 제3절. 마르크스의 戰爭觀

마르크스는 전쟁론에 관한 이론적인 저작을 남기지 않았으나, 그의 수많은 정치적 저작·논문·서간집에는 전쟁에 관한 글이 많다. 역사발전의 주요 계기나 계급투쟁에 있다고 보는 마르크스가 정치의 긴장된 국면인 전쟁을 생생하게 기

256. 이해영 편, 위의 책, 230쪽.

257. Marx 'Erster Entwurf zum "Bürgerkrieg in Frankreich..." MEW 17, p.542.

258. Marx 'Der achtzehnte Brumaire des Louis Bonaparte' MEW 8, p.115.

을 오랫동안 간직했다. 짜리즘이라는 反動을 쓰러뜨리지 않으면 유럽에서 진보의 숨통이 끊긴다는 것이다. 유럽의 革命主義는 러시아 反動政治와의 대립을 피할 수 없으며, 오히려 전쟁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자는 것이 마르크스의 주장이다.<sup>259)</sup>

마르크스는 특히 普佛戰爭에서 진보전쟁의 요소를 발견한다. 마르크스의 견해에 따르면, 普佛戰爭은 프랑스 대혁명 이후의 자본주의 發展期에 있어서 進歩戰爭의 최후의 형태이다. 마르크스가 大義名分으로 삼는 것은 유럽 민주주의의 진보와 국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익이다. 佐野 學은, 마르크스가 普佛戰爭에서 발견한 진보적인 측면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① 만약 이 전쟁에서 프랑스가 이겨 나폴레옹 3세의 제2帝國이 존속한다면, 프랑스 국민은 反動政治 아래에 묶이고 유럽의 민주주의는 미숙한 체로 머물 것이다. 18년에 걸친 제2帝國을 와해시키는 일은 프랑스 국민을 해방시킬 뿐 아니라 유럽의 反動政治 전체에 대한 타격이 되어 노동계급의 혁명운동을 촉진한다.

② 나폴레옹 3세가 승리하면 독일의 민족통일은 더욱 지연되고 독일의 노동운동·사회주의 운동은 민족통일 운동을 위해 정력을 쏟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나폴레옹 3세의 패배가 없었다면 독일은 통일될 수 없었으며, 유럽의 프롤레타리아 운동의 발달도 기대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반동적인 비스마르크의 劊에 의해서라도 독일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바람직하다.

③ 마르크스는 1870년 12월 13일에 루겔만 앞으로 보낸 편지에서 "전쟁이 어떻게 끝나더라도 프랑스의 프롤레타리아는 그 덕분에 무기에 익숙해진 다. 이는 미래에 있어서 最良의 보증인 것이다"라고 말한다. 설령 프랑스가 패배하더라도 프랑스의 노동자가 전쟁기술을 습득한 것은 중요한 획득물이라는 것이 다.

261. 佐野 學, 위의 책, 41~42쪽.

술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마르크스는 모든 전쟁이 본래 사악하거나 비합리적이기 때문에 전쟁을 배척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어떤 전쟁, 예컨대 억압받는 계급을 해방시키기 위하여 투쟁한 전쟁은 승인하지만, 위와 반대되는 목적을 지닌 전쟁은 인정하지 않는다. 마르크스는 전쟁 자체에서 창조적·적극적인 人本的 價値(human value)를 찾지 않는다.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하면 'human value'는, 생산의 새로운 가능성에 기반을 둔 사회변혁의 압력으로부터 생긴다. 전쟁이 이러한 사회변혁을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는 한, 전쟁은 人間事에 있어서 진보적인 요소로 간주될 수 있다. 마르크스의 위의 관점을 종합하면, 인간의 조직된 생산학의 심층적인 변혁과 갈등의 연관 속에서만 전쟁은 인식된다. 한편 전쟁은, 정치·법률·종교 등 이른바 이데올로기 형태(ideological forms)변혁의 종속변수이다.<sup>260)</sup>

마르크스는, 전쟁이 기본적인 사회적 필요(basic social needs), 생산의 사회적 준비(social arrangements)에 起因한다고 말하면서 '자본주의는 전쟁을 의미한다(Capitalism means war)'고 강조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전쟁은 산업의 영원한 派生物이다.<sup>261)</sup>

### 1. 進歩戰爭觀

마르크스는, 역사를 唯物辯證法으로 파악하는 방법론, 역사변화의 주체적 동기를 계급투쟁에서 찾아내는 방법론을, 자신의 전쟁론에서도 채택한다. 그는 전쟁을 '사회적으로 누적된 모순을 급격하게 해소하는 수단·실마리'로 상정한다. 전쟁과 혁명은 사회적 모순의 급격한 해소라는 점에서 유사할 뿐 아니라, 兩者는 내면적으로 상호연관되어 있으며 前者가 後者を 촉진한다. 역사의 진보를 위하여 유럽 전쟁이 공포의 대상이 아니라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마르크스는 유럽의 革命主義자가 꼭 斷行하지 않으면 안되는 進歩戰爭은 對 러시아 전쟁이라는 의견

259. W.B. Gallie, op. cit., p.74.

260. Ibid., p.76.

가 없어지고, 그 대신 계급투쟁이 노골적으로 일어날 것이라며 기뻐했다.<sup>262)</sup>

### 2. 防禦戰爭觀

전쟁을 방어전쟁과 공격전쟁으로 나누고 前者는 공격하고 後者は 反動的으로 간주하는 것이 사회주의의 일반적인 사고방식이다. 마르크스는 공격전쟁을 반동적이라고 규정하는 한편 방어전쟁에 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생각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노동자가 전쟁을 멈출 수 없을 경우 방어전쟁을 하지 않으면 안되며, 이 때의 방어전쟁은 不正하지 않다. 그러나 방어전쟁의 한계는 모호하며, 군사적 이유를 빙자하여 방어전쟁이 공격전쟁으로 쉽게 전환될 수 있음을 지적한 사람도 역시 마르크스이다. 군사적인 측면에서만 '방어'를 고려해서는 안되고 다른 민족을 존중하는 정치적 고려가 있어야 진정한 방어전쟁이라고 마르크스는 말한다. 방어전쟁이라는 公式를 군사에만 한정하여 그것을 절대화하는 일이 잘못된 이유를 지적한 것이다. 한편 마르크스는, 방어전쟁이기 때문에 군사상 필요한 공격적 방법마저 보류해야 한다는 기계적인, 융통성 없는, 마음씨 착한 부처님 같은 생각을 냉소적으로 비판했다. 방어전쟁의 정치적 성격과 군사상 필요한 공격수단을 구분하지 못하게 잘못 이해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방어전쟁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군사적인 공격을 취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普佛戰爭 당시 루겔만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여 '군사적으로도 절대적인 수동적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했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는 1870년 8월 17일 영겔스에게 보낸 편지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루겔만은 방어적 군사작전과 방어전쟁을 혼동하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떤 暴漢이 길거리에서 나를 습격하더라도, 내가 그저 그 사람의 打撃을 피할 뿐 그 녀석을 때려 놓을 수 없게 된다. 왜냐하면 [루겔만에 따르면] 내가 공격자로 變하기 때문이다. 辯證法에 대한 無

262. 같은 책, 81~82쪽.



제가, 온갖 언어를 통하여 이러한 사람들을 사로잡을 수 있다." (MEW 33, p.44). '독한에게 습격 당해도 몸을 피하면 될 뿐이며, 폭탄을 쓰러뜨리면 나쁘다'는 평가에 대한 마르크스의 풍자는 상당히 흥미롭다.<sup>263)</sup>

마르크스의 이러한 풍자는 '오른 뺨을 치거든 왼뺨 뺨까지 돌려대라'는 예수의 비폭력적 평화관과 비교된다. 마르크스는 "당신들은 만일 자신이 사기당했을 경우에 이를 법정에서 고소하는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는가? 그런데 사도 (Apostel)들은 그런 행위가 나쁘다고 기록해 놓았다. 당신들은 왼뺨을 맞으면 오른뺨도 내놓을텐가? 아니면 폭행에 대한 소송이 屬罪되도록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데 복음서는 이러한 반례를 금지하고 있다"<sup>264)</sup>고 비판한다.

예수의 비폭력적 평화관이 정당방위를 거부하느냐 수용하느냐의 문제와, 정당방어를 인정하는 마르크스의 관점을 종합평가하면 폭력-전쟁-평화에 관한思考의 軸平을 넘힐 수 있다.<sup>265)</sup>

263. 같은 책, 49-51쪽.

264. Marx 'Der leitende Artikel in Nr. 179 der "Kölnischen Zeitung"', MEW 1, p.101.  
265. 박 중화 교수는, 비폭력과 관련된 마태복음 5:39-42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강조한다. "오른 뺨을 맞으면 왼뺨도 내주고 오 리를 가려거든 십 리까지 가주라"는 말은 당시의 사회적 상황에서 무저항적·수세적 비폭력이 아니라 불의에 대한 비폭력적 저항의 표현임을 확고의 인 구결과가 밝히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예컨대 이미 탈권된 피식민지 주민으로서의 로마 시민 이 오른 뺨을 때릴 때 저항할 권한이 없는 대신 왼 뺨을 스스로 채우는 행위는 로마의 부당한 체제에 대한 항거의 간접적 표시이자 동시에 노예신분으로 처할 수 있는 '자주적 자유'의 발현 이었다는 점이다. 로마 시민은 노예들에게 무거운 짐을 '오 리'까지 풀어서 달라고 명령할 권한 이 있으며 노예는 이에 승복해야 할 의무만 있었다. 여기에 또 오 리를 추가하여 십 리까지 가주 는 결단은 노예의 자주적 결단과 자유에 속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로마제국의 불의를 비웃고 무의미하게 하는 비폭력적 저항의 표현이었다는 말이다.<박중화 「기독교 평화운동의 이론과 실천요령」, 『평화-이론과 실천의 모색(II)』 (서울: 삼민사, 1992), 30쪽.>

이러 김 창택 교수는 다음과 같은 논리를 전개한다. "오른 뺨을 맞으면 왼 뺨도 내주고 오 리를 가려거든 십 리까지 가주라"는 예수의 이 말은 흔히 절대평화주의의 근거로 이용된다. 이에 반해서 예수가 마지막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제는... 감이 없는 사람은 겹옷을 팔아 짐을 사라" (누가복음 22:36)고 지시한 말들은 경우에 따라서는 劍 사용이 정당화된다는 근거로 이용된다. 뿐만 아니라 예수의 성전경화 활동이 폭력사용의 좋은 본보기로 인용되기도 한다. 앞의 인용에서 예수는 폭력에 대해 폭력으로 대항하는 것을 금했다는 것을 금했다는 것인가? 예수는 불의한 폭력에 대항하는 대응

폭력도 꼭 같이 불의한 것으로 거부했는가? 그렇지 않으면, 막강한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다가는 자멸하거나 막대한 희생을 치를 수밖에 없다는 전략적 계산에 근거하여 대응폭력을 삼가하라고 권유했는가?

"오른뺨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 뺨을 돌려대라"는 예수의 권고를 실천할 수 있는 또는 실천해야 하는 행동규칙으로 절대화하여 무저항적 순용주의 처세술의 근거로 이용하는 것은 그 본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며 반대로 그것을 그렇게 처신할 수밖에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의 행동지침으로 상대화하여 자유자재로 처신할 수 있는 保身術의 하나로 취급하는 것은 그 본래 의 미를 곡해하는 것이다. 예수는 폭력적 상황 아래에서 이렇게 살아 남을 수 있는 나쁜 방법은 가르 치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예수는 악한 강자의 일차적 폭력은 문제 삼지 않은 채 단지 천한 약자 의 대응폭력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다. 예수는 강자의 폭력에 대항해서 약자가 호신 또는 보복 의 목적으로 대응폭력을 행사하는 것이 단지 기술적 계산에 의거해서 불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 에 대응폭력을 단념하라고 권고하는 것이 아니다. 만일 예수가 대응폭력을 단념하고 폭력에 순용 하는 것이 살아 남을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임을 가르치려고 했다면 "누가 네 뺨을 치더라도 때리지 말고 참아라"고 말하는 것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네 오른뺨 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 뺨까지 돌려대라"는 것은 단순히 폭력에 맞서지 말고 폭력에 순용하라는 소극적인 행동지시가 아니다. 오른뺨을 치는 사람에게 왼뺨까지 돌려 대고 오 리를 가자고 강요하는 사람에게 십 리를 가주고 속옷을 벗으라는 사람에게 겹옷까지도 내주는 것은 폭력의 소극적 수용태도도 아니라 폭력에 대한 적극적 응수행위이다. 이것은 폭력을 당하는 측에서 폭력을 중용시켜 그 폭력의 폭 력성을 더욱 선명하게 노출시키는 행위이다. 이것은 폭력의 위력에 압도당해서 폭력에 비굴하게 굴복하는 패배주의적 처신이 아니라 폭력이 노리는 것에 스스로를 내던짐으로써 폭력의 위세에 맞서는 적극적 행동이며 그리하여 폭력의 부도덕성을 폭로하는 희생적 투쟁방식이다. <김창택 저음 『제로는 성서해석과 해방의 실천』 (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93), 290-291쪽.>

마태가 보도하는 바와 같이 예수의 이 짧은 말씀은 비폭력의 근거를 위한 세 가지 관점을 내포하고 있다. 에바하(Ebachi)는 폭력체계의 윤리적 요청과 그 신약성서적 근거를 참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약한다.

㉠ 비폭력은 폭력이 계속 폭력을 부르는 연쇄작용을 파괴시켜 버린다. 이러한 악순환은 실제로 기 존하는 폭력구조들과 그 범죄들을 인식하고 면밀하게 검토할 때에만 극복될 수 있다.

㉡ 비폭력은 침묵을 지키며 무기력에 빠지는 패배감의 형태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함의 확증에서 나오는 능동적인 자세로서 행사될 수 있다.

㉢ 폭력의 포기는 그 기본요소가 비폭력적인 관계적인 목표를 지향한다. 비폭력은 이미 이 목표에 의해서 어느 정도 규정되며 그것을 앞당겨 실행에 옮긴다. <위르겐 에바하 저음, 김형기 옮김 『성서와 폭력』 (서울: 대학기독교서회, 1988) 75쪽. [Jurgen Ebach 'Das Ende der Gewalt』 (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80)>

### 3. 世界戰爭觀

유럽의 혁명적 민주주의를 위하여 '反動 러시아에 대한 革命 프러시아의 陣 營'이 필요하다고 역설한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의 승리라는 관점에 따라 세 계전쟁(Weltkrieg)의 상상을 전개한다. 그는 영국을 끌어들이는 세계전쟁을 통해서 만 사회혁명이 승리할 수 있다는 인식에 도달한다. 마르크스는 영국 자본주의를 에워싸고 세계전쟁이 일어난다는 인식, 세계전쟁을 통해서만 프롤레타리아트가 승리한다는 인식에 이른다. 유럽의 사회주의 혁명운동은 영국의 부르조아지와의 충돌을, 영국의 산업적인 세계지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마르크스는 판단 한다. 세계혁명의 임장을 취한 마르크스는 영국의 부르조아지 지배가 계속되는 限 프랑스 등 대륙 국가들의 사회적임의 충돌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 세계전쟁을 통해 서만 사회혁명의 최대장애물을 파괴할 수 있다는 것이다.<sup>266)</sup>

마르크스는 "세계혁명은 영국은 세계전쟁을 통해서만 분쇄될 것이다. 이 세계 전쟁은 영국의 조직된 노동자당인 차티스트 당을 통해서만, 거대한 壓迫者에 대 하여 유호한 봉기의 조건을 제공할 수 있다. 차티스트가 영국 정부의 선두에 서 게 된 순간부터 사회혁명은 유평피아의 왕국으로부터 현실의 왕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나 영국을 끌어 넣은 유럽전쟁은 어떤 전쟁이든지간에 세계전쟁으로 된다. 이 전쟁은 이탈리아에서도 캐나다에서도 동인도에서도 프로이센에서도 도나우에 서도 아프리카에서도 일어나게 될 것이다. 영국은 나폴레옹 시대와 마찬가지로 反革命의 선두에 서게 될 것이며, 18세기의 혁명에 맞선 영국의 罪狀을 치루게 될 것이다."<sup>267)</sup>라고 역설한다.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전쟁이라는 마르크스의 구상은 실현되지 않았으나, 마르크스의 역사적 직관력이 돋보인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은 세계전쟁의 부산물이다.'<sup>268)</sup> 1848년의 혁명의 참패를 총괄한 마르크스는

266. 佐野 學, 위의 책, 92-93쪽.

267. Marx 'Die revolutionäre Bewegung', MEW 6, p.150.

268. Bernard Semmel 편 『Marxism and the science of war』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p.6.

프롤레타리아의 의미에서 세계전쟁 [유럽전쟁] 만이 혁명의 승리를 가져오는 점 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모든 혁명적 봉기는 비록 그 목표가 계급투 쟁과는 멀리 떨어진 것처럼 보일지라도 혁명적 노동자계급이 승리하지 않은 限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없다. 또 프롤레타리아 혁명과 봉진적 反動革命이 무기를 들고 세계전쟁에서 승패를 판가름하지 않는 限 사회개혁은 하나의 유평피아에 지나지 않는다."<sup>269)</sup>

마르크스는 혁명과 세계전쟁 [유럽전쟁] 의 상호관계를 열정적으로 파력한 다.<sup>270)</sup> 이는 '세계전쟁이 사회적 조건으로부터 도출되는 객관적 필연'이라는 마 르크스 특유의 역사관으로부터 나왔지만 '전쟁을 통하여 혁명으로 나아가다'는 실천방침과 연계되어 있다. 마르크스는 단순히 힘에만 의존하는 好戰主義자가 아 니며, 전쟁을 혁명의 수단으로 보는 사람이다. 이 때문에 그를 平和至上主義者라 고 부를 수 없다. 다만 마르크스는 현실적으로 전쟁의 物發을 좋아하지 않았다.<sup>271)</sup>

### 4. 正義의 戰爭觀

전쟁을 절대적으로 나쁜 것으로 간주하는 교조주의적 견해와는 반대로 마르 크스주의는 '정의로운' 전쟁과 '정의롭지 못한' 전쟁, '반동적' 전쟁과 '혁명적' 전쟁을 구분한다. 한 나라의 지배 계급이 자기 나라의 인민과 다른 나라의 인민 을 武裝으로 억압하고 착취하는 전쟁과, 착취 계급의 지배 영역을 폭력적으로 확

269. Marx 'Lohnarbeit und Kapital', MEW 6, pp.397-398.

270. [우리는] 고통스러운 경합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것들을 배웠다: '유럽민족들의 和戰' 이란 단순한 空文句나 순수한 희망 따위로 실현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혁명과 유 혈투쟁을 통해서(durch gründliche Revolutionen und blutige Kämpfe) 이루어질 수밖에 없 다는 것, 중요한 것은 유럽의 모든 민족이 공화제라는 하나의 깃발 아래 우여를 맺는 따위 가 아니라 反革命的인 민족들에 대항하여 혁명적인 민족들이 동맹을 맺는 일이며 그 동맹이 란 종이 위예서가 아니라 戰場(Schlachtfeld)에서의 농병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MEW 6, pp.270-271.)  
271. 佐野 學, 위의 책, 97쪽.



장시키고 반동 세력의 역량을 폭력적으로 유지하는데 봉사하는 전쟁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에 반하여 인민이 국가적, 식민지적 억압으로부터 자신을 해방시키고 피억압, 피착취 계급이 계급적 질곡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수행하는 전쟁은 정의롭다. 어떤 특정한 전쟁의 성격은 그것이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 달라질 수 있다. 즉 정의로운 전쟁이 정의롭지 못한 전쟁으로 전환될 수 있고, 그 반대도 가능하다. 전쟁 과정에서 특정 계급 및 사회 집단의 이해가 전쟁의 초기 단계에 다른 계급 및 사회 집단에 의해 주장된 이해와 대립하면서 관찰될 때 종종 이런 경우가 나타났다. 어떤 전쟁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이 전쟁의 정치적 내용을 탐구하고 어떤 정책, 어떤 계급의 정치가 그 전쟁을 통해 추구되고 있는가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sup>272)</sup>

앞에서 內戰이 지배계급에 대항하는 계급전쟁인 限 그것을 正義의 戰爭(der gerechte Krieg, Just War)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기술했다. 여기에서 '마르크스'에 있어서 전쟁과 正義가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을 던질 수 있다.

'전쟁'과 '정의'는 모순관계이다. 그런데 '전쟁과 정의는 兩立하지 않는다'는 명제를 수용하기 전에 검증할 사항이 있다.

전쟁의 倫理에 관한 일반적 문제·원칙적 문제로서 '정의의 전쟁은 없다'라는 주장을 자세히 검토해보면, 그 내용이 결코 동일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원칙으로서 이를 주장하는 것, 예컨대 모든 전쟁이 絕對惡이라는 주장은 윤리적 원칙에 관한 '價値判斷'에 따른 것이다. 그런데 전쟁을 企圖하는 인간의 현실을 감안하여 주장하는 입장, 예컨대 모든 전쟁은 利己的 動機에 의거한 것이라는 주장('전쟁의 大義를 주장하더라도 그것은 事實에 불과하다')은, 인간의 사회적·심리적 현실에 관한 '事實判斷'으로서 '가치판단'에 따른 주장과 다르다.

272. 根井康雄 「戰爭に關する倫理的問題」, 『宮崎大學教育學部紀要社會科學』, 第70-71號 (1992), 12~13쪽.참조

두 번째 대답에서 '전쟁은 오히려지만 自衛만을 위한 경우 금지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는 Pacifism의 '絕對平和' 信條가 붕괴될 수 있는 함정이다.<sup>275)</sup>

위의 두 가지 대답을 마르크스의 관점에 따라 비판적으로 수정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自衛를 위한 전쟁일 경우 전쟁은 허용될 수 있다'로 바꾸면 마르크스의 전쟁론에 상당히 접근하게 된다.

이를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프롤레타리아트의 自衛·해방을 위한 進歩 戰爭, 抑壓階級에 대한 被抑壓階級の 전쟁, 부르조아지에 대한 임금노동자의 전쟁, 피리코론에서의 같은 內戰, 1789~1871년의 유럽 민족전쟁, 극제프롤레타리

274. 根井康雄 「戰爭に關する倫理的問題」, 위의 책, 13~14쪽.

275. 여기에서 Pacifism의 결함이 드러난다. 이러한 결함 때문에 고대 기독교의 Pacifism이 무너지고 중세기 이후 아우구스티누스(Augustinus)·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의 '正義의 戰爭論'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正義의 전쟁론을 제기한) 암브로시우스(Ambrose)는 그리스도교인이 전쟁에 참여하는 것의 정당성을 쉽게 표현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 제국의 방어가 곧 신앙의 수호와 일치한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야만인들은 주로 아리인(Arian)쪽이었다. 암브로시우스는 야만의 침략을 하나님의 진노의 표정으로 여겼는데, 그것은 침략의 결과로 일어난 불신앙의 확대 때문이었다. 암브로시우스는 「그리스도교의 신앙에 관하여(De Fide Christiana)」에서 "트라케(Thrace), 다키아(Dacia), 모에시아(Moesia), 그리고 판노니아의 모든 발레리아(Valeria)에서부터 우리는 야만인들의 침략의 발골소리와 비난을 듣는다... 이렇게 로마제국이 그런 방어진들로서 안전할 수 있었겠는가?... 분명히 신앙을 모독하는 사람들이 안전할 수는 없다... 오, 예수여, 세와 독수리가 군대를 인도하지 않고 당신의 이름과 종교가 우리 군대를 인도하게 하옵소서."라고 인정한다.<베인론 지음, 채 수일 옮김 『전쟁·평화·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1) 121쪽. [Roland H. Bainton 'Christian Attitudes Toward War and Peace', (Abingdon Press, 1960) >

아퀴나스는 「신학대전(Summa totius theologiae)」 II-II, q.40, a-1에서 전쟁은 기본적으로 죄이며, 평화가 사랑의 산물이라는 전제하에서 전쟁이 '의로움(justum)'을 지닐 수 있는 원칙과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첫째, 합법적인 당국에 의하여 선포될 경우.(auctoritatis principis)  
둘째, 전쟁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곧 최후의 정당한 수단으로 인정되는 경우.(causa iusta)

셋째, 평화구원을 목표로 했을 뿐 아니라 다음 반드시 좋을 세운다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경우.(recta intentio)

네째, 오직 합당한 전쟁수단이 동원될 경우.(debitus modus)

위의 논의를 價値論의 原則에 따라 분석하면,

① '정의의 전쟁'이라고 말할지라도, 정의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없다'는 價値 相對主義의 입장이 있을 수 있다.

② '정의는 각 나라마다, 각각의 문화에 따라 다르다'는 文化的 相對主義를 표방할 수 있다. 1991년의 걸프전쟁(Gulf War)에서 나타난 미국·유럽의 '正義의 戰爭' 논리와 아랍권의 '正義의 戰爭(聖戰; sacred war)' 논리가 동일하지 않다. 強者の 倖에 弱國 羈軍이, '근대적·西歐的' 가치관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편적 가치로 내세워 '非近代的·非西歐的'인 가치관을 가진 아랍諸國을 억누르면서 文化的 相對(優越)主義를 과시했다.

③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전쟁과 정의가 본래 兩立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정의'는 본디 '法'이나 '法の 준수'와 관련이 있는 개념이다. 국가의 내부에는 법이 존재하지만 국가와 국가 사이의 분쟁을 해결할 강력한 法體系가 없기 때문에 여러 국가들은 武力에 호소하여 자국의 권익을 주장한다. 이는 '사회계약론자들이 말하는 自然狀態'이며, 여기에서는 法·正義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強者が 弱者를 지배하는 '정글의 법칙'이 통용된다. 그러므로 전쟁과 정의는 兩立할 수 없다.<sup>273)</sup>

平和至上主義(Pacifism)는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되는 絕對惡'이라고 단정한다. 이러한 시각에서 보면 正義는 存在하나 정의의 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대하여 '만일 다른 나라에 의하여 自國이 부당하게 침략당했을 경우에도 自國民의 방위를 위한 전쟁이 허용되어서는 안되는'나'는 물음을 제기할 수 있다. 첫 대답은, '당연히 自衛를 위한 전쟁일 경우라도 전쟁은 허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두번째 대답은 '전쟁은 옳 그 자체이다. 그러나 自衛를 위한 전쟁은, 그것이 정말로 自衛만을 위한 경우 금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sup>274)</sup>

273. 根井康雄 「戰爭に關する倫理的問題」, 『宮崎大學教育學部紀要社會科學』, 第70-71號 (1992), 12~13쪽.참조

아트가 인터넷서널을 중심으로 수행하는 세계전쟁, 퍼리즘에 대한 전쟁, 혁명적·민주주의적 방어전쟁은 正義이다.' 그러므로 '正義의 전쟁은 있을 수 있다.'

마르크스, 아우구스티누스, 아퀴나스는 Pacifism의 전쟁관('正義의 전쟁은 있을 수 없다')을 부정하고 '正義의 전쟁은 있을 수 있다'고 긍정하는 측면에서 견해를 같이 한다. 그런데 마르크스가 프롤레타리아트 해방·계급투쟁의 관점에 서 수용하는 '正義의 전쟁'의 원칙·기준과, 아우구스티누스·아퀴나스가 '地上에 神의 나라를 건설'하는 목표로 따라 인정하는 '正義의 전쟁'의 원칙·기준이 다르다. 이렇게 다른 원칙·기준은 루터의 '正義의 戰爭論'과 뮌처(Münzer)의 '正義의 戰爭論'을 비교하면 잘 드러난다.<sup>276)</sup>

276. 박 종화 교수가 설명하는 바와 같이 루터는, '평화·전쟁'에 관한 한 거의 아우구스티누스·아퀴나스로 이어지는 의로운 전쟁론(正義의 전쟁론)을 수용한다. 루터는 기본적으로 복음을 믿자한 어떠한 폭력도 인정할 수 없으며, 심각한 전쟁과 같은 호전주의도 인정할 수 없다고 신언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 루터는 당시의 상황에서 이른바 종교개혁의 결과라 일컫는 평화직장주의적인 兩派派와 농민혁명을 주도하던 편지 등의 운동에 대항한 영주들의 전쟁을 의로운 전쟁으로 파악하여 격려했고, 또 당시 독일에 위함이 되면 티키족에 대항한 결연한 전쟁도 그 범주에 넣었던 것이다. 특히 종교개혁 최후에 속하는 평화직장주의자들이 신앙성서의 '산상수훈'(마태복음 5-7장)을 바탕으로 하는 데 반하여, 루터는 여기서 "세상권세에 복종하라"고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로마서 13:1-7)을 또 다른 축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나.

실제로 평화와 전쟁의 문제에 관한 한 루터는 아우구스티누스·아퀴나스의 입장을 견지하면서 의로운 전쟁의 전제조건 가운데서 전쟁신포의 '합법적 권위' 내지는 당국이 누구냐 하는 데 대한 관심이 컸다고 본다. 이 문제에 관해 종교개혁·국파는 당시의 영주로 대표된 정치실체의 합법성을 전혀 인정치 않았던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루터의 정치윤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2왕국론(Zwei-Reiche-Lehre)'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그는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하는 하나님 의 당국과 지상의 당국의 분류방식을 받아 수락이론을 만든 것이다. 곧 당국(Civitas, 藩城) 대신에 통치(regnum)를 원용하여 하나님의 통치(regnum Dei)와 악마의 통치(regnum diaboli)의 부정을 역사과정으로 설명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와 '국가'의 두 팔로 구성되어 있으며 둘은 상호간에 역할이 구분되지만 악마의 통치에 대한 투쟁에 共戰한다는 것이다. 교회는 나뭇대로의 복음에 의한 합법성을 지니고 있고(justitia Dei), 국가는 그 나뭇의 합법성(justitia civilis)이 있는 데 둘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자신을 위한' 개인윤리에 있어서는 그리스도인(Christensum)으로서 '산상수훈'에 따라 행동하며, '타자를 위한' 정치윤리에 있어서는 세상인(世上人, Weltperson)으로서 로마서 13장에 따라 행동한다는 것이다. 이



렇게 보면 전쟁은 개인윤리가 아닌 정치윤리의 차원이므로 국가가 싸우므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루터는 당시의 집권영주층의 정치적 권세에 대한 어떤 무력적 항기도 성서적으로 옳지 않다고 보았으며, 동시에 불의한 전쟁에는 참여하지 말되 그것이 정의로운지 불의한지 판단하기가 어렵게 때를 세속권의 내지는 국가의 결정에 복종하라고 한다. 결국 루터는 중세기부터 교회의 해방이라는 작업은 성공이러기 보다 또 다른 엄청난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된다. <박종화 「기독교로 화해운동의 이론과 실천윤리」, 위의 책, 30~41쪽.>

마르크스 · 엥겔스는 16세기 독일농민전쟁의 지도자인 핀처를 높이 평가한다. 마르크스 · 엥겔스는, 핀처와 독일농민들의 '폭로운 전쟁'에 찬사를 보내는 한편, 기독교의正義의 전쟁론을 재승한 루터의 反農民의 태도를 비판한다. 여기에서 아우구스티누스-아퀴나스-루터로 이어지는 기독교의 '正義의 전쟁론'과 핀처-마르크스-엥겔스로 이어지는 혁명적 '사회주의적正義의戰爭論'의 黨派性(Parteilichkeit)이 생긴다.

핀처의 입장에서 볼 때, 국가와 교회를 지배하고 있는 착한 반기독교적이며 이들을 물리치는 것이 神에 의해 선택된 사람들의 사명이다. 그에 의하면 기독교 공권력은 神을 부인하는 자들을 제거하는 데 그 목적을 사용해야 한다. 영주들이 이를 거절하면 神은 인민을 선택할 것이며, 인민들로 하여금 무력과 권력을 장악하도록 명령할 것이다. 핀처의 인민중고 개혁의 강령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神을 부인하는 공권력에 대한 저항의 권리 및 혁명적 권력의 창출에 관한 이론이다. 그에 의하면 공권력이 神에 의해 부여된 임무, 즉 신앙이 깊은 사람들을 보호하고 神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벌하는 임무를 지키지 않으면 인민들이 들고 일어나 神을 부인하는 사람들, 즉 영주와 귀족 및 수도사들의 권력을 박탈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권력에 부여된 무력은 일반 인민들의 것이다.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위의 책, '핀처' 項, 425~428쪽.>

핀처는 철두철미하게 '농민의 편에선正義의 전쟁'을 강조함으로써 마르크스 · 엥겔스의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을 위한 '正義의 전쟁론'의 선구자 역할을 한다. 특히 핀처의 '正義의 농민전쟁'에 주목한 엥겔스는 핀처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언급한다: "핀처는 루터가 말했던 조용한 토론 · 평화로운 개량(der friedliche Fortschritt)을 선포하지 않았고 자신의 제후와 인민에게 '로마의 성직자들에게 대한 무장봉기'를 호소하였다. 그리스도는 '나는 평화를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칼을 주려고 왔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당신들 [작센의 제후들]은 이 칼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만일 당신들이 하나님의 종이 되고자 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복음의 길을 가르막는 사악한 자들을 내쫓고 파멸시켜야 한다. 그리스도는 매우 진지하게 명령한다(누가복음 19:27): '나의 왕국을 원치 아니하던 자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고. 당신들의 칼이 도둑주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힘만으로도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공허한 주장을 구실로 삼지 말라. 왜냐하면 그럴 경우 당신들의 칼이 칼집에서 녹슬기 때문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를 가로막는 자들을, 바알(Baal)의 성직자를 멸망시키듯이 무자비하게 파멸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기독교회

## 제4장. 마르크스의 평화론

본 논문의 제2장 「마르크스의 폭력 개념」에서 살핀 바와 같이, '계급 없는 사회'를 가장 평화로운 사회로 묘사하는 마르크스의 계급이론 가운데에서 평화의 계기를 발견할 수 있다. 계급투쟁의 목표가 생산양식의 변혁에 의한 '계급 없는 평화로운 사회'인 바, 여기에 평화의 계기가 있다. 마르크스는 계급 없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強力을 동원한 혁명-계급투쟁을 인정한다. 그러므로 그는 추상적 · 낭만적으로 "평화"를 외치는 平和至上主義者가 아니라, '革命的 平和論者'이다. 마르크스가 '革命的 平和論者'라는 규정은 마르크스에 있어서 전쟁의 계기와 평화의 계기를 동시에 포괄한다. '혁명에 의한 平和'를 주장한 마르크스의 논리에서 전쟁의 계기와 평화의 계기를 동시에 발견할 수 있다.

전쟁의 계기를 유발한 자본가 계급의 자본축적은 '否定的 否定'을 거쳐 프롤레타리아 解放의 계기를 가져온다. 이 해방의 계기는 본원적 축적-폭력-전쟁의 계기와 대비되는 의미에서 '평화의 계기'라고 부를 수 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이러한 해방의 계기-평화의 계기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질곡과 더불어 시작된다.

자본주의적 私的所有가 개인적 소유를 否定하는 단계, 즉 본원적 축적에 공한 자본가 계급이 독립생산자 · 無產大衆을 수탈하는 단계에서는, 부르조아에게 개만 平和가 약속되므로 大衆들에게서 平和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그러나 無產大衆이 少數 橫領者(자본가 계급)를 수탈하는 '否定的 否定' 단계의 계급투쟁(프롤레타리아트 해방전쟁)에서 平和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다. 즉 否定的 否定을 통하여 '모든 생산수단의 共同占有에 입각한 노동자의 개인적 소유를 재건'함으로써 平和를 實現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마르크스의 '전쟁과 평화의 변증법'을 認知할 수 있다. 이처럼 否定的 否定 단계의 계급투쟁(프롤레타

는 결코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MEW 7, p.352.)

계급차별 · 私有所權이 없는 千年王國을 건설하기 위하여 蜂起도 不辭하겠다는 핀처의 '正義의 전쟁론'이 革命을 지향했다면, 루터의 '正義의 전쟁론'은 한갓 改良(Fortschritt)을 지향했다. 두 사람이 똑같이 성서를 바탕으로 '正義의 전쟁론'을 이끌어 냈으나, 각기 다른 결론에 이른다. 따라서 두 사람의 '正義의 전쟁론'의 차이는 해석학적인 문제가 아니라 黨派的인 문제 즉 世界觀의 문제이다. 이는 루터의 세계관을 통하여 드러난다.

핀처가 일으킨 반란으로 말미암아 루터주의가 대중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기회는 실감한 타격을 받았다. 농민들의 고통을 동정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방법에 대해서는 개탄하고 있었던 루터가 '평화애로의 충고'(1525)를 썼으나 농민들의 평정을 회복시키지 못했다. 그리하여 그의 다음 저서인 '학살과 살인을 처벌하는 農民群에 반대한다(Against the Robbing and Murdering Hordes of Peasants)'(1525)에서 그는 군주들에게 '미친개' 같은 농민들을 '공개 또는 비공개'로 으로 치고 썰고 죽이라'고 촉구하였다. 제후들은 루터의 말대로 따랐다. 반란은 분쇄되었으며 수천명이 살해되었다. 알베르트 마틴 편, 오 만규 옮김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양심」(서울:성광문화사, 1982) 120쪽. [Albert Martin 「War and Christian Conscience」] >

루터는 평화적 진보(die friedliche Entwicklung)와 소극적 저항을 선포하고 있었다. 루터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폭력과 유혈로 지키지는 복음(das Evangelium mit Gewalt und Blutvergießen Verfechte)을 보고 싶지 않다. 세계는 말씀(das Wort)에 의하여 정복되었고, 교회는 말씀에 의하여 유지된다. 교회는 말씀에 의하여 옛날로 돌아갈 것이고, 敵그리스도가 폭력 없이 권세를 얻었듯이 그는 폭력 없이도 몰락할 것이다" <MEW 7, p.348.>

위의 인용문 중 '폭력과 유혈로 지키지는 복음'의 '폭력(Gewalt)'은 핀처의 농민봉기를 지칭하는 말이다. 핀처의 'Gewalt'는 '蜂起'를 통하여 實現되지만, 루터의 'Gewalt'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實現된다. 루터에 따르면 'Gewalt(權勢)'의 起源은 '하나님의 질서'에 있다. <로마서 13:1> 각 사람은 위에 있는 權勢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Jedermann ist untertan der Obrigkeit, die Gewalt über ihn hat... die bestehenden Gewalten sind von Gott verordnet.) 루터의 2황국론에 따라, Gewalt는 계속적인 Gewalt(성서의 '칼')와 정신적인 Gewalt(하나님의 '말씀')로 世上에 나타난다. <Joachim Ritter 편 「Historisches Wörterbuch der Philosophie」 'Gewalt' 項, 3권, p.562> 바로 여기서 루터와 핀처의 'Gewalt 論' 즉 전쟁론의 相違점이 발견된다.

리아트 해방전쟁)을 통하여 얻은 평화가 진정한 평화임을 마르크스는 강조한다.

### 제1절. 마르크스 평화론의 특징

근대 부르조아 사상가들의 평화론의 특색은, '평화'를 전쟁이 없는 상태로 보는 데 있다. 이들은 戰爭不在로서의 평화를 상정함으로써, 평화에 관한 牧歌的인 信念을 배양하거나, 평화에 대한 이성적 · 도덕적인 태도를 갖게 하는데 공헌했다. 이들은 무엇보다도 제후와 국왕의 권세욕과 탐욕이 전쟁의 원인이라고 보기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이런 지배 세력들이 제거된다면 인민들 사이의 평화도 실현되리라 생각했다. 그러나 프랑스 혁명에서 부르조아지와 인민 대중이 봉건 지배세력에 대해 승리를 거두었으나, 그토록 갈망하던 평화를 얻지는 못하였다. [이와 같이] 자본주의의 현실은 신흥 부르조아 계급이 예고했던 理想과 對반대의 것이었다. 생산수단에 대한 자본주의적 소유가 인간을 지배하는 힘이 되는 한, 계급투쟁과 전쟁은 노동계급과 그 밖의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와 억압 만민이나 합법적저 현상이다. 자본주의는 본성상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277]

이처럼 마르크스의 평화론은 '자본주의가 평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데에서 시작한다. 부르조아 사상가들의 평화론이 '戰爭不在로서의 평화'를 강조하는데 그쳤으나, 마르크스의 평화론은 '프롤레타리아트) 解放으로서의 평화'를 주장하는 쪽으로 나아간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평화론은 근대 부르조아 민주주의자들의 평화론에 대한 反命題(anti-theses)로서의 성격을 지닌다.

#### 1. 프롤레타리아트가 주도하는 평화

부르조아지가 벌이는 전쟁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태도는 서로 다를지라도, 프롤레타리아트는 본성上 평화 · 전쟁방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프롤레타

277. 한국 철학사상연구회 편, 위의 책, '평화' 項, 1355쪽.



리아트는 노예나 중세기의 농민과 달리 사회적 행동에 있어서 독립된 주체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人身的인 종속관계로부터 자유로우나 생산수단의 소유를 완전히 빼앗긴 근로자이다. 이 때문에 프롤레타리아트는 전쟁을 통하여 이득을 기대할 수 없으며, 전쟁에 대한 어떤 利益關心도 갖지 않는다. 그러므로 계급으로서 프롤레타리아트는 늘 전쟁의 반대자였다.<sup>280)</sup>

프롤레타리아트가 평화에 마음을 두는 이유를 밝힌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이 지배하는 사회의 규칙은 평화이며, 노동이 평화의 버팀목임을 강조한다. 참된 평화를 지향하는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이 평화의 근간이며, 평화를 위한 首尾一貫한 최초의 세력이 노동자 계급이라는 것이다. 이 점에서 프롤레타리아트 주도의 평화는, 부르조아지가 주도하는 평화와 성격을 달리하고, 平和 至上主義의 '평화'와 차원을 달리한다고 볼 수 있다.

## 2. 평화도 정치의 연속이다.

계급사회의 지배계급이 자산의 이익 때문에 전쟁을 벌이는 데 저항하는 정치 투쟁 가운데서 평화의 사상이 싹튼다. 즉 평화의 사상은, 전쟁의 원인이 계급 사회를 파괴하는 정치투쟁, 전쟁을 불가피하게 수행하는 낡은 국가권력을 타도하는 혁명과 당연히 연계되어 있다. 따라서 과학적 사회주의는, 이러한 정치투쟁과 의 연결 속에서 평화의 사상을 고찰한다.<sup>279)</sup>

마르크스에 의하면, 평화는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투쟁의 산물이다. 그러므로 '전쟁이 정치의 연속'인 것처럼 '평화도 정치의 연속'이라는 가설을 수립할 수 있다.

278. ウェ・ザ・グラウン, 渡原 正基 옮김 「勞動者階級, 社會主義, 平和」, 『世界經濟と國際關係』, 1979년 제11호, 10쪽.

[Академия Наук СССР: 「Ми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и Международные Отношения」, No.11, 1979]

279. 平野義太郎, 위의 책, 71쪽.

공산주의는 바로 人類의 문제이며, 단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sup>281)</sup>

위의 인용문에서 평화와 관련하여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첫째는, 공산주의가 평화를 완벽하게 보장할 수 있는가, 공산주의 단계의 평화상태는 어느 정도인가를 묻는 질문이다. 둘째는, '공산주의 단계에서 평화의 수혜자는 프롤레타리아트 뿐인가'라는 질문이다.

영겔스가 말하듯이 공산주의는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不和를 초월하는 '和' 자체이다. 공산주의는 반드시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不和를 止揚할 것이기 때문에, 現在時態에서만 이 不和를 인정한다. 인류를 거의 양분하 다시피 했던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和' 이야말로 최고의 평화상태라고 말할 수 있다면, 공산주의에 의하여 이러한 至高의 평화상태를 달성할 수 있다.

영겔스는 (공산주의에 의한) 두 계급의 不和 초월(평화)을 언급한 부분이 한 가지 尙반적인 계급화해를 주장한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음을 의식한 듯, 1892년의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독일어 再版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자기비판한다: "本書의 이론적 입장이 오늘날의 나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주의할 만하다. [本書를 집필한] 1844년에는 근대적인 국제사회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나의 이 저서는 국제사회주의의 萌芽的인 발전단계의 하나를 대표할 뿐이다."<sup>282)</sup>

이러한 영겔스의 '변명'에도 불구하고 영겔스는 '공산주의는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不和를 초월한다'는 문구를 수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므로 영겔스의 '공산주의= 두 敵對階級の 不和 초월'을 평화 문제로 끌어들이 '공산주의는 두 적대계급의 不和를 초월(止揚)한 최고의 평화상태·至高의 평화상태'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공산주의는, 인류 역사의 先行한 어떤 단계와도 다른 단계, 즉 참으로 '恒久的인 평화'의 단계, 진보적인 평화의 단계이다. 이는, 세계 공산주의 사회의 시민인 各個人에게 평화가 到來하는 인류문명의 새로운 발전

281. Engels 「Lage der arbeitenden Klasse in England」, MEW 2, p.505.

282. 新松涉 지음 「エンゲルス論」 (東京: 筑摩書房, 1994), 293쪽.

계급사회에서 평화는 전쟁이 아닌 상태, 즉 전쟁들 사이의 휴지기를 의미하며, 이 기간 동안 지배계급은 새로운 전쟁을 준비하거나 다른 국가나 민족을 견제이라는 수단을 쓰지 않고도 예측시킬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한다.<sup>280)</sup>

계급으로 적대적인 사회에서 전쟁과 평화는 두개의 서로 다른 存在形態일 뿐이어서 強固한 평화체제를 이룰 수 없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대중들에게 평화롭게 살 권리가 보장되는 민주주의적인 평화가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정치투쟁을 통하여 정치권력(국가권력)이 프롤레타리아의 손 안에 있도록 해야 참된 평화가 확보될 수 있다. 이처럼 정치투쟁을 통한 평화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보면 '평화도 정치의 연속이다.'

## 3. 평화의 최고상태는 공산주의이다

1840년대 영국 노동자의 처참한 생활을 그린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의 결론 부분에서 영겔스는 '자본가의 착취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는 노동자 계급에 의한 혁명은 오고야 말 것이다. 사태의 평화적인 해결을 이끌어내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警告한다. 한편 영겔스는 위의 警告에서 한 발짝 물러나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러나 그것은 부르조아지의 성장발전이 아닌 프롤레타리아트의 발전에 좌우된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사회주의적·공산주의적인 요소를 수용하는데 비례하여, 그에 正比例하여, 혁명은 流血·復讐·狂暴을 감소시킬 것이다. 공산주의는, 그 원리에 따르면,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不和(Zwiespalt)를 超越한다. 공산주의는 이 不和를, 오직 현재에 대한 역사적 意義라는 점에서만 승인하며, 이 不和가 未來에도 정당화될 것으로 認知하지 않는다. 공산주의는 꼭 이 不和를 止揚해야 할 것이다. 공산주의는, 이 不和가 現存하는 한, 억압자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憤激이 필연적인 것으로, 초기 단계의 노동운동의 가장 중요한 지렛대로서 승인한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이 憤激을 넘어서는다. 왜냐하면

280.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위의 책, '평화' 項, 1333쪽.

단계이다. 이와 같은 평화, 즉 공산주의 평화에 도달하기까지 멀고 먼 역사의 道程을 더듬어 찾지 않으면 안된다.<sup>283)</sup>

두번째 질문과 관련하여 '공산주의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닌 인류의 문제'라는 영겔스의 언급에 따라 '공산주의가 보장하는 평화도 노동자만의 것이 아닌 인류의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평화를 주도했으나, 그 평화의 성파는 인류에게 돌아간다고 볼 수 있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인류를 대표하여 평화를 쟁취했기 때문에, 인류가 평화의 수혜자로 될 수 있다.

그런데 영겔스는 '공산주의는 인류의 문제이며 단지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記述에 대해서도 『영국 노동자 계급의 상태』 독일어 再版 서문(1892년)을 통하여 자기비판을 한다: "예컨대 '공산주의는 노동자 계급의 단순한 黨派的 敎義(Parteidoctrin)가 아니라 자본가를 포함한 社會를 해방하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한다'는 주장은, 추상적인 의미에서는 올바르지만 실제로는 無益하며 좋지 않다."

한편 영겔스는 "사회혁명과 실천적인 공산주의(der praktische

Kommunismus)가 우리들의 현재의 관계에서 생겨날 필연적인 결과라면, 우리들은 무엇보다도 먼저 사회제도에 대한 폭력적이며 流血的인 변혁을 방지할 수 있는 方案을 연구하는데 몰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위한 수단은 단 하나 밖에 없다. 즉 공산주의를 평화적으로 실시(die friedliche Einführung) 하던가, 적어도 공산주의를 준비하는 것이다."<sup>284)</sup>라고 말하며 '공산주의의 평화적 실시'를 강조한다.

이는 사회제도의 流血的인 해결을 원치 않는 영겔스의 심경을 잘 드러낸 문구이다. 여기에서 流血的인 변혁을 방지할 수단으로 공산주의의 평화적 실시'를 주장한 점을 이해할 수 있으나, '평화적'이라는 말의ニュ앙스가 문제이다.

283. ウェ・ザ・グラウン, 渡原 正基 옮김 「勞動者階級, 社會主義, 平和」, 위의 책, 30쪽.

284. Engels 「Zwei Reden in Elberfeld II」, MEW 2, p.556.



앵겔스가 '공산주의의 실시'에 굳이 '평화적'이라는 말을 삼입한 뜻을 정확히 간파하는 것이 요체이다. 공산주의는至高의 평화상태인데 평화적으로 실시되는 길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는지에 관하여 앵겔스에게 되묻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앞의 가설('공산주의는至高의 평화상태')은 '但 공산주의가 평화적으로 실시될 경우'라는 조건을 부가해야 성립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산주의의 '至高의 평화상태'가 未來時制에 속한다면, 공산주의의 과도기인 사회주의 단계의 평화<sup>285</sup>는 현재완료 또는 近接未來 時制에 속할 것이다. 물론 부르조아가 지배하던 부르조아 민주주의 시대의 평화는 過去時制에 속한다. 마르크스는 생산양식이 변혁되는 과정·정도·속도에 따라 평화의 성격도 변증법적으로 변화(예를 들면 근대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평화에서 '과학적' 사회주의의 평화에로의 변증법적·質的인 변화)할 수 있음을 간파했다. 여기에서 마르크스 평화론의 動的인 측면을 발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 평화론이 動的인 요소를 갖출 수 있는 요인은, 그가 혁명을 상정하면서 평화문제에 접근한 데 있다. 마르크스가 혁명의 평화론자로서 자신의 平和觀을 설정한 방식을 추적해보아 나누어 설명함으로써 마르크스 평화론의 구도를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 제2절. 마르크스 평화론의 구도

### 1. 혁명과 평화

285. 사회주의에서는 공인 활동과 농업 활동, 정신적 활동과 육체적 활동간의 대립이 널리 지양되며, 각 종족 및 민족간에 권리의 평등화가 실현된다. 착취 없는 사회에서는 상호 협력과 상호 보호가 사람들의 공동 작업과 공동의 삶을 특징 짓는다. 노동자와 그 동맹자, 즉 인민이 주인이 된다. 그리하여 자민족과 타민족에 대한 억압과 수탈 및 전쟁과 침략에 관심을 쏟는 어떠한 계급도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평화가 사회주의의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특징이다.(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위의 책, '사회주의와 공산주의' 項, 635쪽.)

사회주의는 경제적, 중립적 정치적 부르주아를 안고 있는 낮은 사회와는 반대로 평화를 그 국제적 원리로 하는 하나의 사회 질서를 창출한다. 왜냐하면 이 때는 모든 민족들에서의 지배적 원리가 노동이라는 동일한 원리에서 착취가 아니기 때문이다.(같은 책, 640쪽.)

밖에 없다. 공산주의의 실현에 의하여 국가는 死滅하고 인간의 自己疏外가 극복되어 땅(地上)에 평화가 깃든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평화구상은 '(세계공산주의) 혁명에 의한 평화'이며 'Assoziation'이 이러한 평화의 담지자(Träger)이다.

289)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발상은, 일종의 終末論的 發想 또는 至福千年王國을 待望하는 발상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한다. 그러나 마르크스는 1872년 9월 2일 제1 인터내셔널의 '헤이그 대회에 관한 연설'에서 '혁명에 의한 평화'의 구상을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밝힌다: "노동자는, 새로운 노동조직을 수립하기 위하여, 머지 않아 정치권력을 장악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일을 소홀히 하고 가법게 여긴 고대의 기독교도들처럼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王國을 잃을 것이다."<sup>291</sup>

### 2. 노동과 평화

마르크스에 따르면 "아무도 배타적인 활동영역을 갖지 않고 각자가 원하는 어떤 분야에서나 자신을 도야시킬 수 있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사회가 전반적인 생산을 조절하기 때문에 사냥꾼, 어부, 목동 등은 비판가가 되지 않고서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오늘을 이겼을, 내일은 저것을, 곧 아침에는 사냥을, 오후

290. 마르크스에 따르면 <서로 고립된 私的인 個人(Privatmensch)이 '分業· 경쟁'에 묶여 있는 市 民社會는 프롤레타리아트 혁명에 의하여 <自己活動이 獨立적 생활과 습-하는, 자유롭게 연합한 個人들에 의하여 모든 생산력이 領有됨으로써 個人性(Individualität)을 본격적으로 전개할 수 있는, 共同占有에 입각한 개인적 소유가 재건되는> 'Assoziation'으로 이행<자본주의 생산양식으로부터 綜合된 생산양식(die assoziierte Produktionsweise)에로의 移行(MEW 25, p.455) 자본의 권력으로 現象하는 '社會的 生産力'을, '노동자 Assoziation'이 自覺적으로 再組織하는 과정>하게 된다. 이 Assoziation에서 '모든 생산이 결합된 개인들(die assoziierten Individuen)의 手 中에 집중되면 公權力(부르조아지의 專權)은 정치적 力量을 상실한다'. (MEW 4, p.482.) 이 'Assoziation'은 마르크스에 있어서 평화론적 사회성을 적극적으로 표현한 말이다. 그러므로 'Assoziation'은 마르크스의 '평화'로 인도하는 안내자이며, 마르크스의 '평화'를 이끄는 1타버이다.(田畑 稔, 위의 책, 70~76쪽,참조)

291. Marx "Rede über den Haager-Kongress" MEW 18, p.160.

평화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접근방식을 한 마디로 말하면 '혁명에 의한 평화'이다. 마르크스의 혁명에 의한 평화론은 '現狀維持를 위한 평화론'<sup>286</sup>과 다르며, 평화 그 자체를 혁명의 목적으로 보는 '평화를 위한 혁명론'도 아니다.

세계평화·국제적 평화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를 마르크스에 묻는다면, 그는 "세계혁명에 의하여 달성할 수 있다"고 대답할 것이다. '공산당 선언'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한 개인에 의한 다른 개인의 착취가 폐지되는 것과 같은 정도로 한 국민에 의한 다른 국민의 착취도 폐지될 것이다. 한 국민 내부의 계급의 대립이 없어짐과 아울러 국민들 상호간의 적대관계도 없어질 것이다."<sup>287</sup>

마르크스가 말하는 '自由人들의 연합(Verein freier Menschen)',<sup>288</sup> 자본주의의 노동방식인 통합노동(combined labour)이 아닌 運帶勞動(結合勞動; associated labour)을 수행하는 '노동자의 자유로운 結社(die freie Assoziation der Arbeiter)' 즉 'Assoziation'<sup>289</sup>으로서의 '공산주의'는 세계적 규모로 실현될 수

286. 현재 전쟁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런 상태를 평화로 간주하는 것이 '현상유지를 위한 평화론'이다. 이 평화론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現狀을 유지하고, 그것을 지키려 한다. 그러나 '현상유지를 위한 평화론'이 현재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는 끊임 없는 전쟁의 역사인 바, 평화를 영원히 지속시키기 위한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이 평화론은 현재의 '準戰時體制'를 긍정하므로 軍閥의 논리가 생겨날 수 없다. 결국 '현상유지를 위한 평화론'은 평화를 확보할 수 없다.<川本兼 지음 『國家は戰時を 초근호つていいのだ』(東京: すすさわ書店, 1992), 16~18쪽.>

287. Marx · Engel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MEW 4, p.479.

288. Marx "Das Kapital" MEW 23, p.92.

289. 마르크스의 저작 곳곳에 散在해 있는 'Assoziation'이라는 말은, 그 문맥에 따라 '협동하는 일(MEW 1, p.283.)' '협동조합(MEW 18, p.62.)' '협동생활'('Grundrisse', Dietz版 p.76.) '협동단체(MEW 21, p.186.)' '협동관계(MEW 21, p.110.)' '공동조합(MEW 4, p.119.)' '공동적 결합(MEW 4, p.161.)' '공동사회(MEW 4, p.182.)' '결합(MEW 7, p.248.)' '결합사회(MEW 4, p.482.)' '결합체(MEW 25, p.674.)' '집단결합'('Grundrisse', Dietz版, p.484.) '연합(MEW 3, p.338.)' '연합사회(MEW 16, p.195.)' '연합체(MEW 36, p.361.)' '結社(MEW 1, p.154.)' '협회(MEW 18, p.376.)' '조합(MEW 2, p.55.)' '연대(MEW 3, p.74.)' '단체(MEW 2, p.433.)'를 뜻한다.<田畑 稔, 위의 책, 23~24쪽.>

에는 旣시를, 저녁에는 목축을, 저녁식사 후에는 비판을 할 수 있게 된다."<sup>292</sup> 이것이 牧歌的 社會分業에 입각한 마르크스 平和論의 상징적인 표현이다.

마르크스의 이와 같은 牧歌的인 평화론은, "이리가 어린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이르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을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sup>293</sup>(이시야 11:6-8)는 '天國의 평화'와 비슷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마르크스는 또 『고타강령 비판』에서 "공산주의 사회의 보다 높은 단계에서 개인이 노예와 같이 분업에 의해 예속되는 상태가 소멸되고 이에 따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의 대립이 소멸된 뒤, 노동이 단지 생활을 위한 수단인 아니라 그 자체가 제1차적인 생활유구로 된 뒤, 개인들의 전면적 발전과 더불어 생산력도 증대하고 協同的인 富가 모두 泉[泉]처럼 噴出하게 된 뒤 - 그 때가 되어서야 비로소 부르조아적 권리의 좁은 지평은 완전히 극복되고 사회는 자기의 깃발에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 사람에게는 자신의 필요에 따라! 라고 쓸 수 있다."<sup>293</sup>고 밝히면서, 공산주의에 의한 至高의 평화상태를 예견한다.

協同的인 富가 샘처럼 噴出하는 공산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사회적 분업노동(특정된 직업)이라는 拘束으로부터 解放되는데, 그러한 노동이 아닌 필요에 따라 소비물자를 분배받는 사회가 가장 평화로운 사회이다.

이 때의 '노동'은, 고한노동(苦汗勞動)<sup>294</sup>의 성격을 拂拭시킬 수 없는 'labour'로부터, 제각·장각·장조활동 내지 遊戲의 愉樂을 포함한 'Work'로 탈바꿈한다. 마르크스는 노동시간의 단축을, '必然의 王國'에 기초하여 '自由의 王

292. Marx · Engels "Die deutsche Ideologie" MEW 3, p.33.

293. Marx "Kritik des Gothaer Programms" MEW 19, p.21.

294. 장시간 노동·저임금 노동 등 좋지 않은 조건 밑에서 자본가의 착취에 그대로 복종하며 반노예적 상태로 행하는 노동.



國'의 영역이 확대되는 중요한 지표로 생각한다.<sup>295</sup> 마르크스는 必要勞動(필요 노동 시간)의 極小化와 自由時間의 極大化를 통하여, 즉 labour의 極小化와 Work의 極大化를 통하여 공산주의의 理想的인 상태를 이룩하려는 생각을 굳힌다.<sup>296</sup>

295.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인연한다: "자유의 王國(das Reich der Freiheit)은 실제로 缺如와 外的目的性(die äußere Zweckmäßigkeit)에 의하여 규정되는 노동행위(das Arbeiten)가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시작된다. 따라서 그 王國은 本性上, 본래의 물질적 생산의 영역을 넘어서서 존재한다... 이 영역에서의 자유는 오직 사회화된 인간, 結合된 생산자들(die assoziierten Produzenten)이 자연과의 新陳代謝를 합리적으로 규제하여, 그 신진대사가 명목적인 위력으로서 그들을 지배하는 대신 신진대사를 그들의 공동적인 통제 아래에 두는 것, 최소의 노력으로, 質들의 인간적 자연(die menschliche Natur)에 가장 적절한 조건 아래에서 신진대사를 수행한다는 점에서만 존재한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필연의 王國(Reich der Notwendigkeit)에 머물러 있다. 이 王國의 건너편에서, 자기목적적으로 인경된 인간의 힘의 전개(die menschliche Kraftentwicklung, die sich als Selbstzweck gültig)가, 자유의 창된 王國이 시작된다. 그러나 자유의 王國은 어떤 필연의 王國을 토대로 하여야만 開花될 수 있다. 노동일의 단축은 기본조건이다." (MEW 25, p.828.)

마르크스에 의하면 노동일의 제한은 해방의 先決條件이며(MEW 16, p.192.), 노동자 계급을 정신적·육체적으로 향상시켜 궁극적인 해방을 달성하기 위한 第一이다.(MEW 16, p.555.)

296. 마르크스는, 個人들이 '필연의 王國'과 '자유의 王國'이라는 두 영역에 속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필연의 王國'의 건너편에서, 또한 이 '필연의 王國'을 토대로 하여 '자유의 王國'이 전임되며, 거기에서의 '자유'는 '자기목적적으로서 인경된 인간의 힘의 전개'로 이해된다. 그리고 이 두 王國의 轉換점은 '자유시간'이다. 이 경우 '자유'의 의미는, 이를 '필연의 王國' 속에서 보면 '非勞動時間 [餘暇時間]'이라는 소극적인 자유이지만, '자유의 王國' 속에서 보면 '자기목적'인 '힘의 전개'의 시간으로서 적극적인 자유이다.(田畑 稔, 위의 책, 167쪽.)

마르크스가 '고라강령 비판'에서 말하듯이 '노동 자체가 제1차적인 生活欲求가 된다'는 것은, '자기목적적으로서 인경된 인간의 힘의 전개'가 단지 非勞動 영역을 수용할 뿐만 아니라 노동영역 자체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를 '初期局面 [공산주의 사회의 초기단계]'과 '高度局面 [공산주의 사회의 보다 높은 단계]'으로 구분하면, 초기 국면은 個人수용 수단의 恒常的 缺如, 개인들의 分業에로의 예속, 정신노동·육체노동의 대립을 역사적인 단계로 하면서 勞動交換을 원리로 삼아 조직되는 共産制 모델이다. 그리고 高度局面은 恒常的 缺如, 固定的 分業, 정신노동·육체노동 대립의 극복을 전제로 '자기목적'으로서 '힘의 전개'를 원리로 삼는 共産制 모델이다. 그런데 이 두 국면은 두 개로 절단된 것이 아니다. 공산제 사회는 '항상' 초기국면에서 高度局面에로의 이행과정·정숙 과정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야 한다. 결국 '필연의 王國'과 '자유의 王國'의 구분은,

9월 25일 '국제노동자협회 창립 7주년 축하회의에서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러한 變革(Veränderung)이 실현되기에 앞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가 필요해지는데, 그것의 첫째조건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군대이다. 노동자계급은 戰場에서 자기를 해방할 권리를 쟁취하지 않으면 안된다."<sup>300</sup> 물론 "우리들은 가능한 한 限 平和的인 방법에 따라(auf friedlichem Wege) 싸울 것이지만 필요하다면 무기를 들고 당신들에 대항하여 싸울 것이다."<sup>301</sup>

1872년 9월 8일의 국제노동자협회의 '헤이그 대회에서의 연설'을 보면, 영국 등에서 의회를 통한 平和移行的의 가능성을 마르크스는 부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유럽대륙의 핵심부분에서는 強力革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륙의 대다수의 나라에서는 強力이 지렛대가 될 수밖에 없다. [이들 나라에서] 노동의 지배를 수립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強力에 호소할 수밖에 없다."<sup>302</sup>

물론 마르크스의 주관적 의도에 即하여 말한다면, 이 '強力'의 행사는 일시적·과도기적인 것이며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도 가능한 限 民主주의적인 형태를 띠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독재의 형태로써 파리로군에 주목한다. 마르크스는 당대의 파리로군과 같은, 민주주의 형태를 띤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서 評회의 계기를 발견한다.

평회는 공산주의의 이의 초기 단계인 사회주의에 내재한다. 평회는 상호 부조와 공동 노동 속에서 결합된 사회주의 공동체 혹은 공산주의 공동체의 사람들 내지는 민족들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 평회는 전쟁의 결여 상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의 사회 생활의 적극적 관계이다. 평회는 생산 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그에 따른 사회적 관계의 필연적 귀결이고 따라서 사회주의적 생산양식 혹은 공산주의적 생산양식이 지닌 내재 합법칙성의 필연적 귀결

300. Marx 'Rede auf der Feier zum siebennten Jahrestag der Internationalen Arbeiterassoziation am 25. September 1871 in London.' MEW 17, p.433.

301. Marx 'Aufzeichnung einer Rede von Karl Marx über die politische Aktion der Arbeiterklasse.' MEW 17, p.652.

302. Marx 'Rede über den Haager Kongress.' MEW 18, p.160.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란, 地上에 至福千年王國이 到來하는 것이며, 이마에 夢을 풀리며 알하는 labour를 수명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나라가 아닌, 자유롭게 자기 개성적인 제작·창조활동(Work)에 종사하는 神들의 나라 즉 인간역사의 종언이다. 마르크스 자신은 공산주의의 到來와 더불어 인류의 前史가 끝나고 '인류의 本史'가 시작된다고 생각했다.<sup>297</sup>

마르크스는 자본기와 노동자가 永久戰爭 상태에 있는(in ewigem Kriegszustand) 인류의 前史가 막을 내리고, 프롤레타리아트가 苦勞勞動(labour)으로부터 해방되어 永久平和 상태에 있는(in ewigem Friedenszustand) 인류의 本史(공산주의)가 到來할 것이라고 믿었다. 결국 프롤레타리아트는 노동의 止揚(Aufhebung der Arbeit)<sup>298</sup>을 통하여 永고한 평화를 누릴 수 없다.

마르크스의 理想郷,<sup>299</sup> 마르크스가 말하는 공산주의, 노동자들에 의한 '노동자들의 왕국'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의하여 실현된다. 마르크스는 1871년

이 '初期' '高度' 구분과 교차하고 있는데, 공산제 사회의 성숙에 비례하여 사회의 規範原理가 '노동고관 원리에서 自己目的 원리로 서서히 비중을 이행한다'고 볼 수 있다.(田畑 稔, 같은 책, 168~169쪽.)

마르크스에 의하면, 자유를 발전시켜 '평화'를 향유하기 위한 기본전제는 노동일의 단축, 즉 그가 자신의 발전에 이용할 수 있는 자유시간의 極大化이다. 이 자유시간은 質(자유시간을 사회적으로 속적인 결과 인은 質) 그 자체이며, 공산주의는 자유시간의 極大化를 통하여 '必然'과 '自由' 사이의 모순을 해결한다.

297. 日本政治學會 편, 『政治思想史に於ける平和の問題』(東京:岩波書店, 1992), 52쪽.

298. 프롤레타리아들이 자신의 인간됨을 주장하려면, 현재의 존재조건, 즉 노동(labour)을 지양해야만 한다. 명확하게 이것은 소외된 노동-자기활동의 否定이다. 그러므로 'Aufhebung der Arbeit'는 '노동의 폐지'가 아니라 노동활동의 근본적인 변혁·否定을 의미한다.(오이저만 지음 윤지현 옮김, 위의 책, 249~250쪽.)

그러므로 한갓 '노동의 폐지'가 아닌 '소외된 노동의 止揚(해방)'을 통하여 평화의 境地에 들어갈 수 있다.

299. 마르크스의 理想郷은, 所有가 국가의 통제·사회적 통제 아래로 이행된 사회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형태의 인간소외의 전제를 이룬다고 마르크스가 간주한 분업·화폐·私的所有의 세 가지가 사라진, 이에 따라 개인의 요구와 사회의 요구 사이의 모든 對立抗爭도 근절된, 인간이 참으로 인간적인 존재로 되는 사회이다.<勝田吉太郎·山崎時彦 편 『政治思想史入門』(東京:有斐閣, 1983), 232쪽.>

이다.<sup>303</sup>

마르크스에 의하면 私的所有·자본주의·제국주의 때문에 전쟁이 발생하는 반면, '노동'과 노동의 담당자인 프롤레타리아트의 정치(투쟁)에 의하여 평화가 到來한다. 레닌이 '전쟁과 혁명'에서 밝혔듯이 "노동자의 혁명을 통해서만 [자본기들이 수행하는] 전쟁을 종식시킬 수 있다."<sup>304</sup> 그러므로 '프롤레타리아트 독재에 의하여 평화가 到來한다'는 명제를 재확인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萬國의 노동자의 동맹이 끝내 전쟁을 絶滅시킬 것이다. ... 경제적 공핍과 정치적인 狂氣를 동반하는 舊社會와 대립한, 하나의 새로운 사회의 국제적인 원력은 평화이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서는] 어떠한 국민에게도 동일한 원칙, 즉 [자본이 아닌] 노동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sup>305</sup>고 말했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전쟁과 평화의 대립'의 背後에 '자본과 노동의 대립'이 있으며, 노동이 평화를 보장한다. 달리 말하자면 전쟁과 평화의 대립의 背後에 부르조아지와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적인 대립이 있으며 프롤레타리아트의 노동에 의하여, 프롤레타리아트의 혁명에 의하여 평화가 보장된다는 것이다.

### 3. 평화혁명과 폭력혁명

마르크스에 있어서 소유에 대한 폭력('소유는 일종의 폭력이다': MEW 4, p.337.)과 정치적 폭력(또는 국가권력)의 구별은, 부르조아지가 정치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했을 때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소유로서의 폭력과 정치적 폭력이 점차 일치하면서 프롤레타리아트와의 敵對關係가 형성된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이미 부르조아지의 手中에 있는 정치적 폭력(die politische Gewalt)을 전부시켜야 한다. 프롤레타리아트가 스스로 強力으로, 곧 혁명적인 強力으로 바뀌어야 한다.'(MEW 4, p.338.) 그러므로 마르크스에 의하면 公的인 暴力(die offizielle

30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위의 책, '평화' 項, 1332쪽.

304. W.I. Lenin, Werke, Bd. 24, p.415; Hans Heinz Holz, Hans Jorg Sandtkühler 'Für den Frieden' (Köln: Pahl-Rugenstein Verlag, 1982), p.36에서 재인용

305. Marx 'Erste Adresse des Generalrats über den Deutsch-Französischen Krieg.' MEW 17, p.7.



Gewalt)과 혁명적 強力 사이의 원칙적인 차이는 없다.(MEW 4, p.347) 소유가 폭력  
의 한 형태인 사회에서만 프롤레타리아트의 Gewalt는 혁명적인 強力으로 나타난  
다.

여기에서 마르크스의 Gewalt 개념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合成할 수 있다:  
① 정치적 폭력, 公的인 暴力 ② 소유로서의 폭력(Gewalt als Eigentum) ③ 부  
르조아지의 반동적인 폭력(die reaktionäre Gewalt der Bourgeoisie) ④ [프롤레  
타리아의] 혁명적인 強力(die revolutionäre Gewalt). 이 혁명적인 強力은 變革된  
생산관계의 產物이며, 強力이 평화적으로 移行될 가능성이 여기에 內在되어 있  
다.<sup>306)</sup>

마르크스는 '혁명에 의한 평화'를 이루는데 強力이 필요함을 인정한다. 위  
에서 언급한 마르크스의 '혁명'은 '노동자 혁명'을 뜻한다. 마르크스에 의하  
면 "노동자 혁명의 첫 걸음은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계급으로의 高擡, 민주주의  
의 掌權이다."<sup>307)</sup> 이를 위하여 "프롤레타리아트는 자신의 정치적 지배를 이용하  
여 부르조아지로부터 모든 자본을 차례차례로 빼앗고(entreißten), 모든 생산도구  
들을 국가의 手中에, 즉 지배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수중에 집중시키  
며, 가능한 한 신속히 생산력의 總體를 集中시키게 될 것이다. 이것은 물론 처음  
에는 소유권과 부르조아적 생산관계에 대한 專制的인 侵襲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sup>308)</sup>

이러한 '빼앗다(entreißten)' '전제적인 침해'<sup>309)</sup>는, '노동자 혁명에 의한 민주주

306. Joachim Ritter 편, op. cit., 'Gewalt' 項, 3권, p.565.

307. Marx · Engel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MEW 4, p.481.

308. Ibid.

309. 「공산당 선언」에서 견제된 바와 같이 부르주아와 재산권 그 자체는 그들만을 부유하  
게 만들기 때문에 '專制的'이라면,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재산권에 대해서 '專制的'  
침해를 가하는 것은 그 어조의 상반함과는 달리 그렇게 사악해 보이지는 않는다.<포사이스  
· 킨스 소피 · 호프만 編著, 부남철 옮김 「서양정치사상 입문」 2 (서울: 한울, 1994), 233쪽.  
[M.Forsyth, M.Keens-Soper, J.Hoffman 'The political classics 2'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한편 엥겔스는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私的所有的의 止揚(Aufhebung des Privateigentums

했다. 그래서 평화적 변화에 함축된 점진성은 이러한 변증법적 종합에 의해 배제  
된다. 둘째, 부르조아는 한 계급으로서 자신들의 소멸에 결코 동의하지 않을 것  
이고, 이는 프롤레타리아를 폭력 [強力] 혁명으로 몰아가게 할 것이다.<sup>314)</sup>

마르크스는 "공산주의자들은 지금까지의 모든 사회질서를 強力에 의하여 전  
복(der gewaltsame Umsturz)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sup>315)</sup>고 선언한다.  
「공산당 선언」은 프롤레타리아트가 권력을 장악하는 혁명에 있어서, 強力の 혁  
명적인 힘을 적극적으로 긍정하고, 'Gewalt'가 역사의 助産婦임을 공공연하게  
주장한다.

프롤레타리아트에 의한 '公的인 사회를 형성하는 上層部 전체의 爆破'  
가 必要視되는 이유는, 마르크스의 國家觀에서 두드러진다. 마르크스는 現存  
하는 국가를 부르조아지의 계급이익을 옹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機構로 보았  
다. 마르크스의 입장에서 보면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계급은 동시에 정치적인  
로 지배하는 계급이기도 하며, 그들은 피지배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기 위한  
暴力機構인 국가를 자신들의 손에 넣는다.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가 부르조  
아지의 支配的地位를 顛覆하여 '프롤레타리아트 독재' 권력을 수립하여 사  
회주의 사회의 건설을 가능케 하기 위하여서는, 자기 자신의 革命的 폭력 [強  
力]에 의하여 기존의 暴力支配 機構를 타파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sup>316)</sup>

한편 프랑스 혁명사 연구를 계기로 '정치적인 Gewalt의 행사'에 착안<sup>317)</sup>한

314. 사르켄트 지음, 부남철 옮김 「현대사회의 정치사상」 (서울: 한울, 1994), 263쪽.

[Lyman Tower Sargent 'Contemporary Political Ideologies』 (Wadsworth Publishing  
Co., 1983)]

315. Marx · Engels 'Manifest der kommunistischen Partei', MEW 4, p.493.

316. 藤田吉太郎 · 山崎壽彦 편, 위의 책, 241쪽.

317. 파리코론을 제정한 마르크스는, 노동자 계급이 기존의 국가구를 직접 장악하기 어려  
운 사실을 깨닫고 "공공式的 정치적 Gewalt 행사"에 관심을 갖는다. 마르크스는 이와 같  
은 새로운 인식에 기초하여, 1840년대 후반의 혁명적인 경제 속에서 쓰여진 「공산당 선언」  
을 재평가한다: "지난 25년에 걸친 대중업의 엄청난 발전, 그리고 이와 함께 진전된 노동자  
계급의 당 조직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우선 2월혁명의 실천적 경험 및 더 나아가 프롤레  
타리아트가 처음으로 2개월간 정치권력을 장악했던 파리코론의 실천적 경험에 비추어 볼

의의 생취(= 평화)를 이루하는데 필요한 強力<sup>310)</sup>을 상징한다.

이 프롤레타리아트의 強力에는 파리코론에서의와 같은 무력항쟁 뿐만 아니라,  
파업 등과 같이 프롤레타리아가 동원할 수 있는 物理的인 힘도 포함된다.

마르크스는 이 強力이 '혁명에 의한 평화'의 動力이라고 강조한다. 이와 같  
은 強力에 기반을 둔 마르크스의 '혁명'에 폭력지향적인 측면과 평화지향적인  
측면이 동전의 양면처럼 內在하여 있다. 부르조아지로부터 자본을 '빼앗는' 과  
정에서 드러나는 強力은, (이를 物理的인 측면에서 보면) 폭력지향적이다.<sup>311)</sup> 그  
러나 동일한 強力이 사회주의(공산주의)라는 새로운 평화로운 사회를 잉태할 것  
이기 때문에 평화지향적이다.<sup>312)</sup> 마르크스는 '혁명'과 '強力'을 적짓기 하면  
서 폭력지향적인 측면과 평화지향적인 측면의 변증법적인 종합을 고려한다. 한  
때 블랑키주의자(Blanquist)의 영향을 받은 마르크스가 혁명적 테러리즘을 강조  
313) 하는 등 폭력혁명론에 빠지는 언급을 하는 한편 혁명의 평화적인 이행에도  
관심을 가진 사실이 이를 증명한다.

마르크스는 평화적 변화의 가능성도 생각했지만 정치적 혁명이 폭력적일 것  
이라고 생각했다. 혁명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폭력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마르크스는 辯證法的인 습 [종합]의 생취는 언제나 급격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

auf friedlichem Wege)이 가능하다면 바람직하며 공산주의는 결코 그것을 배척하지 않는다'  
(MEW 4, p.372.)고 말함으로써, 暴力 至上主義에 입각하여 '전제적 침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강조했다.

310. 노동자들이 부르조아 국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행사하는 힘, 모든 생산도구를 '지배  
계급으로 조직된 프롤레타리아트'의 手中에 집중시키는 힘.

311. 비록 프롤레타리아트의 強力이 정당하다라도 부르조아지의 폭력을 극복할 때 物理力이  
사용된다는 의미에서 폭력지향적이다.

312. 부르조아지의 폭력을 프롤레타리아트의 強力으로 止揚하는 가운데 평화상태가 조성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평화지향적이다.

313. 철사 反革命이 진유림에 걸쳐 무기의 힘으로 연명한다 해도 그것은 진유림에 걸쳐 화  
페의 힘으로 사멸될 것이다. 승리를 무효화 할 이 宿命, 그것은 유림의 破産 國의 파산일  
것이다. 총검의 칼날이 '경제의' 창날에 부딪치면 부식되기 쉬운 부식거칠 쉬이 무너진다  
... 낡은 사회의 잔인한 죽음의 고통, 새로운 사회의 피어린 출생 고통을 단속하고 단속하  
며 집중하는 단 하나의 수단 그것은 혁명적인 테러리즘이다.(MEW 5, p.457.)

마르크스는, 정치적인 Gewalt를 혁명전력의 주요 부분으로 상징한다.

마르크스의 '정치적 Gewalt=革命的 強力'은, 이처럼 자신의 정치이론으  
로부터 導出되는 당연한 귀결이다. 그런데 마르크스의 革命的 強力論은, 일  
체의 예외도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強力を 教條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은 아  
니다. 마르크스 · 엥겔스의 言說을 자세히 검토하면, 그들이 혁명의 방식에  
관하여 매우 유연한 견해를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인터내셔널의 역사적 경험의 축적을 중요시한 마르크스는, 혁명에 있어  
서 노동자계급의 역사적 역할 및 여러 국가들의 정치·경제구조의 구체적 성격에  
대응하는 '혁명의 평화적 가능성에 관한 사상'을 발전시킨다.

「공산당 선언」에서 強力革命論을 주장한 엥겔스는 「공산주의의 원리」에  
서 '私的所有的의 폐지는 평화적인 방법으로(auf friedlichem Wege) 가능한가'라는  
물음(제16問)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그렇게 되면 좋을 것이며, 공산주  
의자들은 물론 그렇게 되는 것을 누구보다도 덜 반대할 것이다. 공산주의자들은  
혁명이 故意로 또 자의적으로 일으켜지는 것이 아니며, 혁명이란 언제나 어디서나  
개별적인 당파들이나 계급 전체의 의지 및 지도에 전혀 좌우되지 않는 정세의  
필연적인 결과이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은, 거의 모든  
文明國家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발전이 폭력적으로(gewaltsam) 억압받고 있으며  
공산주의자들의 반대자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혁명을 목표로 全力投擲하게 된다  
는 것도 잘 알고 있다. 만일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트가 그 때문에 마침내 혁명  
으로 내몰리게 된다면, 우리 공산주의자들은 지금 말로써 옹호하는 것 못지 않게  
행동으로써 프롤레타리아들의 임무를 옹호할 것이다."<sup>318)</sup>

이 경우 '혁명'이라는 말이 필연적으로 '強力革命'을 함축하는 것처럼  
때, 이 강령 [「공산당 선언」]은 몇몇 군데에서 오늘날 낡은 것이 되어 버렸다. 특히 코뮌  
은 '노동자 계급이 기존의 국가구를 단순히 장악하여 그것을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가  
동시킬 수 없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MEW 4, pp.573~574.) 마르크스는 「프랑스에 있어서  
의 內戰」(MEW 17, p.336.)에서도 이와 동일한 내용을 記述한다.

318. Engels 'Grundsätze des Kommunismus', MEW 4, p.372.



쓰이고 있으나 「공산당 선언」의 暴力革命論은 '폭력적으로' 프롤레타리아트의 발전을 억압하고 있던 당시 유럽 諸國의 政治情狀을 근거로 한 주장이다. 이럴 때 '과학적' 사회주의는 '평화적인 방법'을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적' 사회주의는, 사태의 진전을 이성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본래의 임무로 삼기 때문이다.<sup>319)</sup>

위와 같은 '暴力革命의 평화적·이성적 가능성'을 전제로 마르크스·엔겔스는 다음과 같은 경우 暴力革命論의 예외를 인정한다.

① 계급적 균형이 이루어졌을 경우

마르크스·엔겔스는 현실의 국가 속에서 정치권력이 늘 불평등한 방식으로 배분되는 것이 아님을 인식했다. 때에 따라서는 국가를 특정한 한 계급을 위한 '執行委員會'로 볼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즉 사회에 있어서 여러 계급이나 이익집단이 정치권력의 지배를 예외적이고 抗争하며 정치권력을 자신의 손아귀에 독점하려고 서로 투쟁할 때, 국가가 이러한 투쟁을 조정하고 타협을 위한 기반·규칙을 설정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한다.<sup>320)</sup>

엔겔스는 이러한 상황을 예외적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예외적인 현상이지만 투쟁하는 계급들이 서로 세력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국가권력이 의전상 두 계급의 調停者로서 어느 정도의 독립성을 한동안 획득하게 되는 시기가 있다."<sup>321)</sup>

이와 같이 예외적으로 계급적 균형이 형성될 때 굳이 폭력혁명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

② 議會進出的 경우

영국을 비롯한 선진국에 보통선거권이 도입되고, 독일에서도 1890년에

319. 古實美三郎, 위의 책, 108쪽.

320. 古實美三郎, 위의 책, 242쪽.

321. Engels 'Der Ursprung der Familie des Privateigentums und des Staates' MEW 21, p.167.

합법적 수단을 평화로운 혁명(平和革命)의 방편으로 수용한다. 이처럼 의회 진출을 통하여 平和革命의 길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을 때 폭력혁명을 거론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마르크스·엔겔스의 觀點이다.

③ 移行의 多樣性

마르크스 역시 권력의 변동에 있어서 暴力行使가 必須的이 아닌 점을 승인했다. 1872년 제1 인터내셔널 해이그 대회 이후 마르크스는 프롤레타리아트의 권력장악이라는 목표에 이르는 길이 동일하지 않음을 밝히며 '移行의 多樣性'에 관하여 說明한다.<sup>328)</sup>

마르크스에 따르면 사회주의(공산주의)로 移行하는 길은 다양하기 때문에 '暴力行使의 不可避性'을 배제하고 혁명을 論할 수 있다. 즉 폭력·內戰 없이 철저한 사회·경제적 변혁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한 민주주의적 전통을 갖춘 나라에서는 暴力革命 없이 사회주의로 進入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영국과 같이 의회주의가 발전한 나라에서는 평화혁명이 가능하지만,<sup>329)</sup> 독일 등의 대륙의 국가들의 경우 '暴力에 의한 혁명'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한다. "각 나라의 제도·습관·전통을 배려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미 합중국·영국처럼 노동자가 평화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나라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하지 않는다. 만일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내델란드도 같은 부류에 속한다. 그러나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륙의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暴力이 혁명의 지렛대가 되어야 함을 인식해야 한다. 만일 노동의 지배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라면, 노동자가 장차 호소할 것이라 바로 이러한 暴力 뿐이다."<sup>330)</sup>

327. Ibid., p.525.

328. 勝田吉太郎·山崎時彦 편, 위의 책, 244쪽.

329. 마르크스는, 영국의 경우 독일과 달리 판로제나 租税이 없기 때문에 의회를 통한 국가구위의 변화를 유도해낼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영국에서 평화혁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판로제·軍閥의 不在에 있다.

330. Marx 'Rede über den Haager-Kongress' MEW 18, p.160.

社會主義 鎮壓法이 폐지되어 여러 나라에서 불안전하나나 노동자 계급이 어느 정도의 정치적 발언권을 획득하게 되자, 폭력 [暴力] 혁명론이 차츰 자취를 감췄다. 이에 따라 마르크스주의의 국가론에도 미묘한 변화가 생겼다. 엔겔스는 死亡하기 몇달전에 마르크스의 「프랑스에 있어서의 계급투쟁(Die Klassenkämpfe in Frankreich)」의 新版 序文을 쓰면서 '폭력 [暴力] 혁명'의 고비를 느슨하게 풀어놓음과 동시에 노동자 대표가 의회활동에 관여하는 일에 촉박을 보냈다.<sup>322)</sup>

'自覺한多數者에 의한 혁명'을 제시한 엔겔스는 "奇襲攻撃의 시대, 意識있는少數者가 意識이 없는多數者의 先頭に 서서 수행하던 혁명의 시대는 지나갔다."<sup>323)</sup>고 말하면서 젊은 시절의 강경한 혁명론<sup>324)</sup>에서 한발 물러선다.<sup>325)</sup> 엔겔스는 '多數者 革命'을 위하여 노동자 대중은 選舉權을 활용해야 한다고 권유하면서 "우리들이 議會에 진출하게 되리라는 것은 틀림 없고 지금 論爭거리라는 어느 門으로 들어가겠는가 하는 것 뿐이다."<sup>326)</sup>고 말했다.

엔겔스는 또 "世界史는 易살맞게도 모든 것을 顛倒한다. '혁명가들'이며 '顛覆者들'인 우리들이 비합법적 수단이나 顛覆으로 거두는 성과보다 합법적 수단으로 거두는 성과가 훨씬 많다."<sup>327)</sup>고 강조함으로써, 의회진출 등의

322. 勝田吉太郎·山崎時彦 편, 위의 책, 243쪽.

323. Engels 'Einleitung zu Marx' 'Klassenkämpfe in Frankreich.' MEW 22, p.523.

324. 엔겔스는 1846년에 세 사람의 그린(Grün)파의 폭력혁명의 필연성에 관하여 논쟁하면서 공산주의자의 의도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① 부르주아와 이익에 대립하는 프롤레타리아의 이익을 실현하는 것. ② 이를 위한 사유재산의 폐지와 財產共有制. ③ 그 수단으로서 '暴力에 의한'(gewaltsam) 민주주의적 혁명.' 그리고 그는 '그 이외의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MEW 7, pp.60-61.) 마르크스도 1846년 12월에 프루동(Proudhon)을 비판하면서 '대중의 실권적이며 暴力에 의한 행동(die praktische und gewaltsame Aktion der Massen)'만이 現存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MEW 27, p.460.) 이들이 暴力革命論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진제인 듯했다.(古實美三郎, 위의 책, 102-103쪽.)

325. 엔겔스가 1890년대에 이르러, 1840년대의 '奇襲'에 의한 혁명론에서 후퇴한 이유는 '정치권력을 획득하기에 앞서 투쟁이 경과해야 할 오랜 발전단계'가 존재함을 인식했기 때문이었다.(古實美三郎, 위의 책, 106쪽.)

326. Engels 'Einleitung zu Marx' 'Klassenkämpfe in Frankreich.' MEW 22, p.523.

혁명의 국민적 성격<sup>331)</sup>과 관련하여 마르크스가 지적한 혁명의 평화적 이행<sup>332)</sup> 문제, 평화혁명인가 폭력혁명인가 하는 경직된 양자택일의 판단에 중립이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노동자 국가 수립에 있어서 '혁명의 평화적인 이행과 혁명적인 暴力 행시에 변증법적 연관이 있음'을 간파할 수 없다. 따라서 마르크스가 혁명과 관련하여 언급하는 'Gewalt'를 해석할 때, (평화혁명과 폭력혁명의 구분에 집중하기에 앞서) '혁명에 의한 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필요한 暴力'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계급사회의 평화

전쟁은 계급사회의 합법적 현상으로서 종국적으로 착취 계급이 자신의 지배를 확고히 하고 확대시키기 위한 수단이다. 이에 반해 평화는 공산주의의 합법적 현상으로서, 노동자 계급의 투쟁은 이 평화를 목표로 한다. 마르크스는 착취와 억압, 빈곤, 권리의 박탈을 제거하는 동시에 모든 종류의 전쟁으로부터 인류를 해방시키는 것이 노동자 계급의 역사적 사명을 강조하였다. 사회주의 세계체제의 존재와 발전, 사회주의 국가의 일관된 평화 정책은 마르크스의 다음과 같은 교의가 유효함을 입증한다: 즉 '오직 노동자 계급만이 전쟁을 그 뿌리에서부터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오직 노동자 계급만이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정치적으로 불합리한 낡은 사회와 대립하여 하나의 새로운 사회 질서

331. 마르크스는 "혁명은 黨-派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全體民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고 언급한다.(MEW 34, p.514.)

332. "여기에서 '평화적'이란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평화적 방법 혹은 수단이라는 것은 단순히 反動勢力에 양보하지 이것과 타협하지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여된 합법적 장면을 펼 수 있는 대로 유효하게 활용하여 진전과 계몽을 행하고 평범한 대중을 동원·조직하는 것이며, 이럴 경우에 폭력수단 내지 무장봉기 이외의 합법적·평화적 수단은 모두 사용되어도 관계가 없으며, 또 합법적·비폭력적인 모든 수단이 사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수단의 적용에 있어서 어디까지든지 혁명적이 아니면 안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다." <野坂參三의 저음, 黃啓周 옮김 '平和革命論'(서울:民主文化社, 1947), 40쪽.>



를 창조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사회질서 속에서만 평화라는 원칙이 가능하다.<sup>333)</sup>

계급사회에서 평화는 전쟁을 보완하는 또 다른 형태의 정치이다. 전쟁과 마찬가지로 이 평화는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에 기초하며, 그 사회적 내용을 규정하는 것은 지배착취계급의 이해와 계급사회의 적대성이다. 이처럼 평화 역시 계급성을 띠며, 반동적일 수도 있고 민주적일 수도 있다. 계급사회에서 전쟁과 평화는 결코 절대적인 대립물이 아니다. 양자는 정치가 수행되는 형식에 의해서만 구별되며, 정치의 내용은 동일한 것이다. 계급사회에서 평화는 전쟁과 달리 근본적으로 인민대중의 이해에 속하지만, 그럼에도 평화의 갈망은 결코 충족될 수 없다. 왜냐하면 평화라는 것은 잇따른 전쟁 사이의 막간휴식에 불과하고 대개는 전쟁의 결과물이자 나아가서는 새로운 전쟁의 준비이기 때문이다. 평화는 억압과 무력, 우월한 군사력 혹은 일시적인 힘의 균형에 기초해 있다. 그러나 유리한 조건하에서, 다시 말해 진보적인 계급세력이 강력한 힘을 발휘할 때에 그것은 정의로운 평화일 수 있는 것이다.<sup>334)</sup> 마르크스는 정의의 전쟁·不正義의 전쟁, 진보적 전쟁·反動的 전쟁을 구분했는데 후자의 경우에도 이러한 구분이 가능하다고 본다. 착취계급의 이데올로기 공세로 전쟁과 평화의 본질적인 차이가 회색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쟁 보다 못한 평화(강화조약·휴전협정·계급주의의 강압에 의한 평화협정 등)'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계급사회에서는 평화 또한 진보적이고 민주적일 수도 있고 반동적이고 전체적일 수도 있으며, 따라서 정의로운 수도 부당한 것일 수도 있다. 정복자와 억압자들에 의해 강요된 평화적 독재, 계급주의적인 약탈과 무력의 평화, 식민지 내지 식민지에 대하여 그 민족과 국가의 정당한 요구를 회생시키는 대가로 지불되는 이른바 '친선정책'과 평화조약은 마르크스주의자들에게는 부당한 평화로

333.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위의 책, '평화' 項, 1333쪽.

334. 스토이스토프의 공저, 이 신철 옮김 『역사적 유물론』(서울: 세계, 1990) 310~311쪽. (H.Steußloff 'Dialektischer und historischer Materialismus (Berlin: Dietz Verlag, 1978)

쟁에 반대해야 한다는 것이 마르크스 주장이다.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진다: "민약 노동자계급의 해방을 위하여 서로 다른 국민들 사이의 협력이 필요하다면, 민족적 편견을 갖고 약탈전쟁을 위하여 인민의 피와 재화를 탕진하는 대의정책으로 거대한 목표를 실현할 수 있을까?"<sup>335)</sup>

여러 국민들 사이의 友誼를 확립하기 위하여 단순한 도덕과 正義의 準則을 국제간의 관계에 들어맞게 하는 것이 요청된다: "私人(Privatperson)의 관계를 규해야 할 도덕과 정의의 단순한 법칙을, 여러 국민들 사이의 交通(Verkehr)에 있어서 至高의 準則으로 有效하게 만드는 것"<sup>336)</sup>이 요구된다.

마르크스에 의하면 각국의 노동자들이 약탈전쟁으로 민족의 고통을 쏟아붓게 만드는 대의정책에 맞서 투쟁함으로써 약소국의 민족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국제평화를 수립해야 한다. 그러므로 혁명적 노동운동은 사람들간의 관계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도덕과 법률의 소박한 법칙이 국가간의 관계에서도 至高의 법칙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해야 한다. 대외관계의 수립을 위한 투쟁은 노동자계급 해방을 위한 투쟁의 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본적인 관점에 입각하여 제1인터네셔널 時期的 마르크스가 채택한 중심과제 중의 하나가, 간섭전쟁에 대한 반대와 민족적 억압에 대한 비판·민족해방투쟁 지원이었다.

이러한 차원에서 마르크스는 1861~1865년의 남북전쟁 당시에 노예해방의 기치를 든 北軍을 지지했다. 마르크스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 전쟁에 간섭하는 것을 반대하라고 노동자들에게 요구했다.

마르크스는 다른 민족을 억압하는 민족은 자유로울 수 없다고 역설했다. 그것은 영국의 아일랜드에 대한 '강제적 병합'을 '자유롭고 평등한 연방'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아일랜드의 영국으로부터의 완전한 분리를 강제하는 것이 영국 노동자 계급의 해방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338. Marx 'Inauguraladresse der Internationalen Arbeiter-Assoziation' MEW 16, p.13.  
339. Ibid.

평가된다. 민족의 이해와 자주적 결정권과 사회적 진보에 대한 인정, 그리고 국가간의 동등한 권리에 바탕을 둔 평화는 정당한 것이다.<sup>335)</sup>

### 5. 국제평화와 민족문제

마르크스는 계급대립의 지양을 통하여 국가간의 전쟁이 폐지되고 영구적인 평화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계급투쟁은 지속적인 평화를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전쟁도 평화를 위한 수단으로 해석될 수 있다.

평화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국제적·대외적인 원칙이다. 이 원칙은 사회체제의 차이를 불문하고 모든 민족 사이에 우호적인 관계를 실현시키고 국제법, 국가간의 조약·협정을 토대로 국가 사이의 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sup>336)</sup>

마르크스는 '세계혁명'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제평화를 교란하는) 전쟁을 회피한다. 마르크스는 전세계의 프롤레타리아트의 계급의식을 성장시키기 위하여,各國(특히 유럽 선진국)의 프롤레타리아트가 약소국이나 약소민족에 대한 自國의 침략·정복전쟁·간섭전쟁에 반대할 것을 요청한다. 이와 같은 시각에서 국제평화 문제를 다룬 마르크스는 민족적 억압에 대하여 강력하게 비판하며, 민족해방 투쟁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국제평화문제에 대한 마르크스의 기본적인 원리는 '萬國의 노동자들이 단결하라!'이다: "여러 나라 노동자 계급의 단결이, 궁극적으로 국제적인 전쟁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데 불립적이다."<sup>337)</sup>

이러한 입장에 따라 각국의 노동자는 自國政府의 침략·정복전쟁·간섭전

335. 스토이스토프의 저음 이 신철 옮김, 위의 책, 322쪽.

336. 한국철학사상연구회 편, 위의 책, '평화' 項, 1332~1333쪽.

337. Marx 'Aufzeichnung einer Rede von Karl Marx über die Stellung der Internationalen Arbeiterassoziation zum Kongress der Friedens- und Freiheitsliga' MEW 16, p.590.

340)

### 제3절. 마르크스의 '평화'와 비판적 평화연구자들의 '평화'

마르크스는 '폭력의 不在'로서의 평화, 부르조아지의 폭력이 止揚된 평화를 강조한다. 마르크스의 '평화'는 계급착취·계급차별·억압·虐政·빈곤이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상태를 뜻한다. 마르크스에 있어서 소수의 지배계급(부르조아지)만이 평화를 향유하는 사회는 평화로운 사회가 아니다. 그는, 사회구조적인 차원에서 폭력이 근절되어 사회·국가에 폭력이 內在하지 않는 평화상태를 지향한다.

마르크스는 평화에 관하여 말하면서 폭력·전쟁·계급투쟁·혁명 등 복합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하는 바, 마르크스의 평화론은 重層的인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의 이론적·실천적인 후계자들 중 일부는 이러한 重層的인 요소를 간과하거나, 마르크스 평화론의 다양한 階級(level)을 외면하기도 했다. 이 결과 마르크스 사상에서의 평화지향적인 부분이 거론되지 않는 경향을 낳았다.

이렇게 狹小해진 마르크스 평화론의 영역을 넓히는데 노력한 갈통(Galtung), 쟁하스(Senghaas) 등의 비판적 평화연구가들에 의하여 마르크스 평화론의 精髓가 계승되고 20세기의 시대상황에 걸맞게 현대화되었다. 비판적 평화연구자들은, 마르크스의 'Gewalt'와 유사한 범주를 갖는 '構造的 暴力'을 통하여 폭력 지향적인 현대사회를 해부하며, '구조적 폭력'을 止揚할 '적극적 평화'를 실천의 대상으로 제시한다.

#### 1. 비판적 평화연구자들의 '적극적인 평화'

340. Marx 'Konfidentielle Mitteilung' MEW 16, p.417.



평화연구자들이 평화를 실현하는 조건을 탐구하기 위해 폭력이나 갈등에 관한 연구를 하는 것은 옳지만, 여기에만 치중하게 될 때에는 소극적 평화(negative Friede)에만 머물린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 초반까지의 이른바 보수적인 평화 연구자들은 당장의 폭력과 갈등을 줄이거나 제거하는 것이 평화의 당면 과제라고 파악하였다. 그러나 1960년대 후반부터 등장하기 시작한 비판적 평화 연구자들은, 이러한 평화 연구는 소극적인 평화 탐구일 뿐이라고 한다. 그들은 갈등과 폭력을 일으키는 원인에 대한 탐구와 그 원인을 제거하지 않고서는, 즉 그 원인을 해소시키는 적극적인 평화의 강구 없이는 일시적으로 억제되거나 제한된 갈등과 폭력은 또 다시 나타나게 되고 더 위험하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그들의 주장에 의하면 더욱 더 적극적인 평화(positive Friede)는 인권의 보장 또는 사회 정의, 경제 발전 등의 평화의 적극적인 요인들이 충족되는 상태이다.<sup>341)</sup>

그러면 비판적인 평화연구가 밝히고자 하는 대상과 방법은 무엇인가? 보수적인 평화연구, 안보전략적인 평화연구를 비난하면서 비판적 평화연구가 얻어낸 중요한 개념은 평화에 관한 적극적 개념(der positive Begriff)이다. 평화란 것을 단지 전쟁이 안 일어나는 상태(Abwesenheit des Krieges)로서 이해한다면, 그것은 조용한 상태나 표면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의미하게 된다. 이것을 이들은 평화(peace, Friede)가 아니라 평온(pacification, Befriedung)이라고 개념적으로 구별했다. 평화연구를 평정상태를 이루는 조건에 관한 연구로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권력을 가진 지배자들의 이익에 봉사하는 보수적 이데올로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한다. 진정한 평화연구는 적극적인 평화의 개념을 얻음으로써만 수행될 수 있는데, 이것은 특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잠재적인 요인들이 없어진 상태를 말한다고 갈등이 주장했다. 갈등에게 있어서 이 요인은 바로 폭력이다. 그래서 갈등은 평화 개념을 적극적으로 정의해서 폭력이 없는 상태(Zustand von Gewaltlosigkeit), 그리고 사회 정의의 상태라고 규정했다.<sup>342)</sup>

341. 이 삼열 『평화의 개념과 평화운동의 과제』, 「현대사회와 평화」(서울: 서광사, 1991), 180쪽.

342. 이삼열 저음 『조국의 현실과統一의 實踐』, 42~43쪽.

갈등은 폭력을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부정적 '영향력'으로 이해하고 있다. 영향력은 세 가지 전제조건을 지니고 있다: 영향을 끼치는 어떤 것 혹은 인간주체, 영향을 받는 어떤 것 혹은 인간객체, 영향을 미치는 실천적 방법 혹은 인간의 행동, 이 전제조건들에서 갈등은 폭력의 여섯 가지 차원들을 밝혀낸다. 각 차원은 각기 두 가지 유형의 폭력형태를 포함하므로 이 여섯 차원들에서 폭력의 열두 가지 유형<sup>346)</sup>이 드러난다.

갈등은 영향을 끼치는 주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차원과 구조적인 차원으로 분류한다. 즉 한 인격으로서 행동하는 주체가 있는 경우를 갈등은 '개인적 폭력(personale Gewalt)' 혹은 '직접적 폭력'이라 부른다. 행동주체가 없는 경우는 '구조적 폭력' 혹은 '간접적 폭력'으로 불리워진다. '개인적 폭력'이란 폭력의 주체와 객체가 분명한 경우이며, '구조적 폭력'이란 폭력의 주체와 객체 사이의 분명한 관계가 없는 경우를 의미한다. 한 남편이 그의 아내를 구타한다면 그것은 분명히 '개인적 폭력'이다. 그러나 백만의 남편들이 백만의 아내들을 무식한 상태에 머물게 한다면 그것은 '구조적 폭력'이 될 것이다. 만일 상류층의 평균수명이 하류층의 평균수명보다 두 배나 된다면 거기에는 '구조적 폭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구조적 폭력'의 경우에 폭력은 체제 안에 불평등한 권력관계, 삶의 불평등한 기회, 자원의 불평등한 분배 등의 형태로 포함되어 있다. 자원의 불공정한 분배는 교육기회의 불평등, 의료혜택의 불평등 뿐만 아니라 자원에 대한 결정권한의 불평등한 분배를 초래한다. '구조적 폭력'의 조건은 사회적 부정의인 것이다.<sup>347)</sup>

구조적 폭력이란, 간단히 말하면, 한 사회의 구조나 체제가 갖는 폭력성을 말하는

346. 물리적인 개인적 폭력, 심리적인 개인적 폭력, 물리적인 구조적 폭력, 심리적인 구조적 폭력, 대상이 존재하는 개인적 폭력,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개인적 폭력, 대상이 존재하는 구조적 폭력,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구조적 폭력, 의도적인 폭력, 의도적이지 아닌 폭력, 顯在的(명시적)인 폭력, 잠재적인 폭력.

347. 윤 응진 『평화운동과 비판적 평화연구의 배경과 주제들』, 「평화-이론과 실천의 모색(II)」(서울: 삼민사, 1992), 181쪽.

결국 평화연구는 갈등과 폭력이 없는 평화체제를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라고 생각되는 주장하고 있다. 전쟁과 폭력과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오늘날의 국제관계와 사회질서는 조직화된 평화부재의 상태(die organisierte Friedlosigkeit)일 뿐이며, 이것은 항구적인 위협체제(Drohsystem)이다. 평화연구는 바로 이 위협체제를 평화체제(Friedenssystem)로 바꾸어 놓는 전략과 방법을 개발하는 실천적이며 개방적인 연구라고 그는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평화체제의 탐구는 피히트(Picht)가 말한 대로 평화의 슈트피아에 대한 탐구일 것이다.<sup>343)</sup>

## 2. '구조적 폭력'과 평화의 확대 개념

본 논문의 제2장 제4절에서 언급한 마르크스의 'Gewalt'와 'Macht'의 개념상의 혼선을 극복하기 위하여서는 '폭력'의 범주를 더욱 포괄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착안한 칼통 등의 비판적 평화연구자들이 '構造的 暴力(die strukturelle Gewalt)'이라는 대안을 내놓음으로써, 마르크스의 폭력 개념을 크게 손상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마르크스의 'Gewalt'가 적용될 수 있는 영역을 확대한다.

갈등은 '폭력'의 개념을 확대시킴으로써 인간에 의한 물리적 폭력 이외에도 사회구조적 조건들이 인간에게 폭력으로 작용한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갈등의 견해에 따르면, "만일 인간들이 영향을 받아 그들의 현실적인 육체적 정신적 실현이 그들의 잠재적인 실현(가능성)보다 적다면, 거기에 폭력이 있는 것이다."<sup>344)</sup> 여기서 '폭력'은 '잠재적 가능성(das Potentielle)과 현실적인 것(das Aktuelle)의 차이의 원인'으로 정의되고 있다. '폭력'은 '가능했을 것(das, was hätte sein können)'과 '현실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das, was ist)' 사이의 차이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이 둘 사이의 거리를 더욱 확대하는 것이거나 혹은 이 차이의 축소화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sup>345)</sup>

343. 이 삼열, 위의 책, 46쪽.

344. 가르트랑크 저음, 高柳先男 의 옮김, 『構造的暴力と平和』(東京: 中央大學出版部, 1991) 5쪽. [Johan Galtung 'Violence, Peace and Peace Research, 1969', 외]

345. 가르트랑크 저음 高柳先男 의 옮김, 위의 책, 6쪽.

데, 가령 한 노동자가 저임금의 구조 때문에 착취를 당해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며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다면, 그는 이 사회로부터 구조적인 폭력을 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이 억압을 당하고 착취를 당하여 자아실현을 할 수 없는 것은 대체로 이 구조적인 폭력에 의한 것이며, 실제로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에서 당이나 집이 없어서 굶주려 죽고, 영양실조로 죽게 되는 수천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구조적 폭력의 희생자들이라는 것이다.<sup>346)</sup>

'구조적 폭력'을 이해하기 위한 필수적 전제조건은 사회구조, 특히 사회계층에 대한 연구이다. 갈등은 사회구조를 설명하기 위하여 '행위주체(Akteur)', '체제(System)', '구조(Struktur)', '위계(Rang)', '영역(Ebene)' 등의 개념을 사용한다. 행위주체들 사이에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면 체제가 조직된다. 체제 안에 존재하는 상호작용을 통하여 가치들(Werte)이 교환되고 분배된다. 행위주체들은 보통 여러 체제들 안에서 상호작용한다. 이 상호작용 체제들의 전체가 구조인 것이다.<sup>34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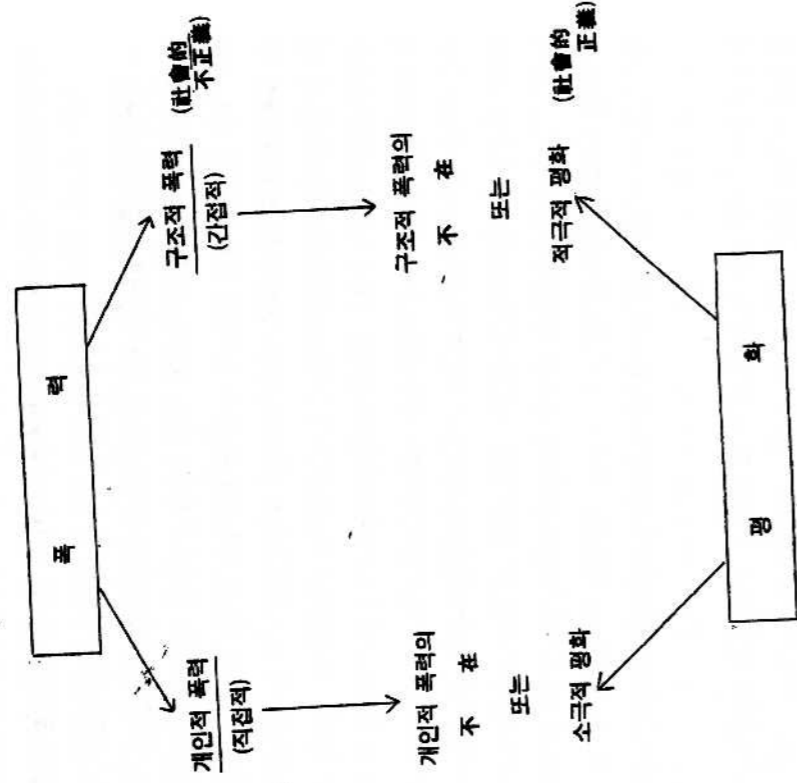
갈등은 개인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의 기본적인 구별에 의거하여 폭력이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음을 강조한다. 마찬가지로 폭력의不在로서 이해되는 주체도 두 가지 측면을 지닌다. <그림 4>와 같이 폭력의 擴大概念으로부터 평화의 확대개념이 나온다.

346. 이 삼열 『조국의 현실과統一의 實踐』, 67쪽.

349. 윤 응진 『평화운동과 비판적 평화연구의 배경과 주제들』, 위의 책, 184쪽.



<그림4. 갈등에 있어서 폭력과 평화의 확대 개념>



동전에 양면이 있듯이 평화에도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 즉 개인적 폭력의 부재와 구조적 폭력의 부재이다. 이것들을 각각 消極的 平和와 積極的 平和라고 명명한다.<sup>350)</sup> 여기에서 소극적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이며, 적극적 평화란 '억압·착취·壓政·인권탄압·인종차별·빈곤 등으로부터의 해방'이다. 따라서 갈등의 '평화-해방'은 마르크스의 '평화-해방'과 접맥될 수 있다. 戰爭不在 상태로서의 평화 개념에 이의를 제기하고 '억압·착취·壓政 등으로부터의 해방'을 강조한 갈등의 입장이,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으로서의 平和'와相通하기 때문이다.

비판적 평화연구가인 덴시크(Dencik)는, 적극적 평화를 실현하기 위하여 첫째 변혁의 전략에 따라야 하며, 둘째로 平和研究가 '혁명 연구'의 성격을 지니도록 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351)</sup> 이렇게 解放的 關心을 갖는 비판적 평화연구자들의 변혁지향적인 태도<sup>352)</sup>는, 마르크스의 '혁명에 의한 平和'와 비슷한 점이 많다.

구조적 폭력의 축적은, 社會的 公正의 不均等 配分·사회적 가치의 非對稱的

350. 가ルト방크 저음 高柳先男의 옮김, 위의 책, 44쪽.  
351. 평화의 상태를 명시적인 갈등과 저항이 없는 상태로 동일시하는 보수적인 평화 연구는 진정한 평화가 아니라 평정의 연구일 뿐이라고 덴시크는 비판한다. 그는 평화의 실현을 위해서는 평정의 전략(Definitionalstrategie)이 아니라 변혁의 전략(Revolutionstrategie)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상열 「평화와 暴力의 實踐」, 45쪽.)

덴시크는 앞으로의 평화연구는 '혁명연구(Revolutionforschung)의 성격을 지닌 것이어야 함을 역설한다. 평화연구는 폭력에 책임이 있는 구조적 관계들의 폐지를 위한 수단들을 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명은 기존의 권력구조들의 질적인 변혁을 성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법으로써 요청되는 것이다. 이제 혁명적인 평화연구는 '통제·평정·대신'에 '확취, 잔인성, 인간과 사회의 훼손의 형태로 나타나는, 이 세계의 폭력의 뿌리를 공격함으로써 '현실적인 평화'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해방·양극화·혁명'에 관하여 연구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새로운 평화연구의 새로운 '학문적' 인식인 것이다.(윤 웅진 「평화운동과 비판적 평화연구의 배경과 주제들」, 위의 책, 196쪽.)

352. 결국 비판적인 새로운 평화연구자들이 주장하는 평화운동은 적극적 평화 개념에 입각해서 기존의 국제정치 관계를 지배하고 있는 위협체제의 원칙과 합리성을 극복하려는 운동이다. 이를 위해서는 위협체제의 합리성의 강요에서 벗어나려는 해방적 관심이 작용해야 한다고 경하스는 「위협과 평화(Abschreckung und Frieden)」에서 주장한다.(이 삼열 「평화의 개념과 평화운동의 과제」, 위의 책, 181-182쪽.)

구조 속에서 이루어진다. '구조적 폭력'은, 지배적인 특권을 쥔 권력 엘리트와 차별대우 받는 대중들이 구분되는 현실에서 출발하므로 마르크스의 'Gewalt'와 깊은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마르크스의 폭력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구조적 폭력의 축적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갈통, 쟁투스 등의 비판적 평화연구자들이 강조한 '사회'의 부당한 폭력'은,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한 억압체제'와 연관되며 兩者는 '부르조아지의 폭력 체계'라는 공통된 지향점을 갖고 있다. 비판적 평화연구자들이 계급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제의 反平和性, 사회체제의 '조직적인 平和不在 상태', 차별대우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위협(Abschreckung) 체계·불평등한 권력관계를 지양할 실천학(Praxeologie)을 강구한 점에서, 마르크스의 폭력·전쟁·평화론과 만나는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 제5장. 결론

본 논문은, 지금까지 마르크스의 史的唯物論에 입각하여 마르크스의 폭력 개념·전쟁론·평화론을 고찰했다. 본 논문은 '강력(Gewalt)'의 多義性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의 폭력 개념을 이해했으며, '계급'·'자본-노동의 대립'이라는 분석 틀에 의하여 전쟁론을 기술했다. 이어서 '혁명에 의한 평화'를 추구한 마르크스의 평화론을 파악했다.

본 논문의 제2장 「마르크스의 폭력개념」은, 'Gewalt'의 用法, 'Gewalt'와 'Macht'의 관련성, 계급사회에서 'Gewalt'의 적용구조, 경제적인 'Gewalt'와 정치적인 'Gewalt'로의 分化, 사회의 潛在力(Potenz)으로서의 'Gewalt',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內在하는 'Gewalt', 'Gewalt'와 '전쟁·평화'의 변증법적인 관련 등을 분석하고 있다.

마르크스는 「독일 이데올로기」에서 생산력과 교통형태(Verkehrsform)의 모순을 통하여 드러나는 소위된 폭력(die fremde Gewalt)을 논증한다. 「공산당 선언」에서 '프롤레타리아트의 強力에 의한 革命의 가능성'을 제시한 마르크스는, 「要綱」에서 'Gewalt'가 사회의 저변에 깔려 있는 潛在力으로 內在하는 점에 주목한다.

마르크스는 사회에 潛在되어 눈에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한 사회를 계급적으로 지배하는 'Gewalt'의 內涵한 구조를 파헤친다. 본 논문은 「자본론」의 가치형태론을 중심으로 이와 같은 'Gewalt'에 대한 內在的인 접근을 시도하면서 '상품-화폐 관계와 폭력', '자본-국가와 폭력' 문제를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본 논문은 특히 일취세르의 「자본론」에 대한 徽候的 觀察方法에 따라 'Gewalt'가 자본주의 사회에 不在的으로 現前하는 구조'를 밝혀내고 이에 기초하여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內在하는 폭력을 규명한다.

본 논문은, 자본주의의 상품-화폐 관계에 不在的으로 現前하는 內在的 暴力構造를 해명하기 위하여, 지라르의 욕망 이론과 (이를 자신의 화폐이론에 접목시킨) 아그리엠타의 폭력론을 수용한다. 그런데 마르크스 자신이 「자본론」에서 가치형태론과 폭력을 직접 연계시키는 논리를 전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巨觀的인 노동·생산 패턴



다임(Paradigm)으로 內在의인 暴力構造를 해명하는데에는 한계가 따른다. 본 논문은,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지라르의 '육망' 패러다임을 인용하여, 微觀의인 수 준의 폭력까지 망라한 內在의 暴力를 총체적으로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이어서 '상품-화폐 관계와 폭력'의 분석에 기초하여 '자본-국가와 폭 력'에 관하여 기술하는데, 民法 體系를 보호하는 정치적 강제력 체계로서의 국가를 통하여 매겨지는 정치적 폭력을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다. 국가권력이 자본-임노동 관 계에 개입하여 잉여가치의 착취를 엄호함으로써 자본주의 생산양식이 재생산되고 있 으나, (第3項 排除의 논리에 의하여 國家가 사회의 '결'과 '박'에 선 특수한 공적 권력 체계의 형태성을 띠므로) 자본의 폭력이 感知되기 어려운 內在의 暴力의 重層的인 구조를 본 논문은 論究對象으로 설정했다.

그리고 본 논문은, 자본주의적 축적의 역사적 경향과 폭력-전쟁-평화의 변증법적 인 관계를 다음과 같이 밝힌다: 자본주의적 私的所有가 개인적 소유를否定하는 단계, 즉 본원적 축적에 성숙한 자본가 계급이 독립생산자·無産大衆을 수탈하는 단계에서는, 부르조아에게만 주권이 약속되므로 프롤레타리아트는 주권의 가능 성을 확보할 수 없다. 그러나 자본가 계급의 생산방식이 스스로 控制에 빠지면서 無産大衆이 少數 操權者(자본가 계급)을 수탈하는 局面이 전개될 수 있는데, 이 리한 '否定의 否定' 단계의 계급투쟁(프롤레타리아트 해방전쟁)에서 주권의 가능 성을 찾아볼 수 있다. 즉 否定의 否定을 통하여 '모든 생산수단의 共同占有'에 입 각한 노동자의 개인적 소유를 재건'함으로써 주권을 쟁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점에서 마르크스의 '전쟁과 평화의 변증법'을 認知할 수 있다.

제3장 「마르크스의 전쟁론」은, 제2장의 'Gewalt'에 관한 論議의 연장선상에서 전개되고 있다. 이 책은 'Gewalt'에 의한 계급정치의 延長으로서의 전쟁을 고찰한다. 이러한 전쟁은 社會戰爭, 즉 '萬人의 萬人'에 대한 투쟁, '전쟁'의 형태로 發現되기도 한다. 그리고 노동시간을 제외한 자본가와 노동자의 끊임 없는 敵對關係가, 은폐된 內戰의 산물임을 마르크스는 지적한다. 이 책은 이와 같은 마르크스의 폭 넓은 전쟁 개념에 따라 전쟁의 존재형태를 밝혔으며, 마르크스가 當代의 전쟁을 평가한 내용을

의 인간성의 회복'을 배경으로 전쟁론·평화론을 전개한 점이 돋보인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마르크스가 그리던 공산주의의 평화는 아직도 到來하지 않았다. 汗汗勞動 인 'labour'가 사라지고 창조적인 'Work'를 즐기는 '평화로운 사회'는 유토피아로서만 남아 있다.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에 따라, 각 사람에게는 필요에 따라 분배하는' 평화로운 사회, '필연의 왕국'에 기초하여 '자유의 왕국'을 건설해가는 '주권의 왕 국'은 마르크스의 原典에서만 확인될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마르크스 전쟁·평화론의 이론구조와 현실의 不一致'를 초래한 원인 을 찾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이는 마르크스 사상의 '이론-실천의 습-'을 규명하는 더욱 큰 작업 중의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마르크스의 'Gewalt' 개념과 사회현실 의 관련성에 대한 규명, 현대 자본주의의 상품-화폐·자본 관계에 현상하는 '內在의 暴力'의 분석, 현대 자본주의에서 'Gewalt'가 국가권력으로 나타나는 歷程의 고찰, 평 화지향적인 국가권력 창출방안의 모색 등이 요청되나 본 논문에서는 課題로 남겨둔 다.

는술하는 가운데 마르크스의 戰爭觀(진보전쟁관, 방어전쟁관, 세계전쟁관,正義의 正戰)을 설명한다.

제4장 「마르크스의 평화론」은, 마르크스가 '革命的 平和論者'라는 전체에 따라 논리를 전개하면서, 근대 부르조아 민주주의자들의 평화론에 대한 反命題(anti-these)로서의 마르크스 평화론이 '(프롤레타리아트) 해방으로서의 평화'를 주장한 점을 강조 한다. 이 책은, 평화의 최고 상태는 공산주의에 있음을 전제로 '혁명과 평화'·'노동과 평화'·'평화혁명과 폭력혁명' 등에 관하여 서술한다. 여기에서 노동자의 자 유로운 結社, 즉 'Association'이 평화의 담지자임을 밝혔다. 그리고 'labour'의 縮小化 와 'Work'의 擴大化를 통하여, '必然의 王國'에 기초하여 '自由의 王國'을 건설하는 가 운데 구체적인 평화의 像을 그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평화혁명과 폭력혁명」 은, 'Gewalt'가 '혁명에 의한 평화의 動力'임을 강조했으며, 새로운 사회의 助産婦로서 의 'Gewalt'의 평화지향적인 측면을 부각시키고자 했다. 즉 'Gewalt'의 폭력지향적인 측면과 평화지향적인 측면의 변증법적인 종합을 고려하면서, 마르크스에 있어서 폭력 혁명과 평화혁명이 어떻게 分岐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 책은, 이러한 논리전개 에 기초하여 혁명의 평화적인 이행과 強力革命的 上관성을 해명하려고 했다.

그리고 본 논문은, 마르크스의 평화론을 現代化하는 차원에서 비판적 평화연구가 들의 평화론을 도입한다. 칼통·정하스 등이 인명하는 '구조적 폭력'이 마르크스의 폭 력 개념과 유사한 범주를 지닌 점에 착안한 본 논문은, '組織화된 平和不在의 상태'를 지양하기 위한 解放的 關心을 강조한다. 즉, 해방적 관심을 갖고 ('혁명 연구'로서의) 평화연구에 앞장선 비판적 평화연구자들의 변혁지향적인 태도가, 마르크스의 '혁명에 의한 平和觀과 相通하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일반적으로 마르크스를 평화의 사상가로 평가하는데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는 근대 부르조아 민주주의의 평화론을 '과학적' 사회주의의 평화론으로 高揚·發展시킴으로써 평화론의 質的變化를 시도했다고 볼 수 있다. 마르크스는 폭력-전쟁론에 있어서도 수평적인 분석에서 벗어나 총체적인 인식을 함으로써 '量'에서 '質'로의 변화를 추구했다. 마르크스가 노동과 자본의 대립, 계급투쟁, '類的存在로서

## 참고문헌

### 1. 마르크스의 原典

<1> Institut für Marxismus-Leninismus 編

「Karl Marx Friedrich Engels Werke (MEW)」(Berlin: Dietz Verlag, 1983)

### 2. 단행본

- <1> Marx 저음 『Misère de la philosophie』(Paris: Editions Sociales, 1947)
- <2> マルクス 저음, 林直道 편역 『資本論第一卷 프랑스語版』(東京: 大月書店, 1976) [Marx 『Le Capital』(Paris: Éditions, Maurice Lachatre et Cie, 1872~1875)]
- <3> 이 상열 저음 『주의의 哲學과 統一의 實踐』(서울: 햇빛출판사, 1991)
- <4> 알튀세르 저음, 김진영 옮김 『자본론을 읽는다』(서울: 두레, 1991) [Louis Althusser 『Lire le Capital』(Paris: François Maspero, 1968)]
- <5> 宮川實 저음, 두레 편집부 옮김 『資本論 解説』(서울: 두레, 1986)
- <6>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마르크스 레닌주의 연구소 저음, 김라함 옮김 『칼 마르크 스 전기』(서울: 소나무, 1989)
- <7> 이해영 편 『앨벤스 연구』(서울: 녹두, 1989)
- <8> 알버트 마틴 편, 오 만규 옮김 『전쟁과 그리스도인의 양심』(서울: 성광문화사, 1982) [Albert Martin 『War and Christian Conscience』]
- <9> 野坂參三의 저음, 黃啓周 옮김 『주의革命論』(서울: 民主文化社, 1947)
- <10> 자크 비데 저음, 박정필·김석진 옮김 『<자본>의 경제학·철학·이데올로기』(서울: 세남, 1995) [Jacques Bidet 『Que faire du Capital』(Paris: Librairie des Méridiens Klincksieck et Cie, 1985)]
- <11> 극동문제연구소 편 『原典主義大系』(서울: 1984)
- <12> 프롬 의 저음, 김창호 옮김 『마르크스의 人間觀』(서울: 동녘, 1983) [Erich Fromm 『Marx's concept of man』(New York: Frederick Ungler Publishing, 1961)]
- <13> 돌리츠·가마리 저음, 최범관 옮김 『앙미 오이디푸스』(서울: 민음사, 1994)



[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L'Anti-Œdipe』(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72)]

<14> 김창락 지음 『세로운 서서적성과 해방의 실천』(서울: 한국신학연구소, 1988)

<15> 위르겐 에바하 지음, 김형기 옮김 『성서의 폭력』(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8)

[Jürgen Ebach 『Das Erbe der Gewalt』(Gütersloh: Gütersloher Verlagshaus Gerd Mohn, 1980)]

<16> 田畑 穂 지음 『マルクスとソシエーション』(東京: 新泉社, 1994)

<17> 스토이스트프 의 공저, 이 신철 옮김 『역사적 유물론』(서울: 세계, 1990)

[H. Steußloff 『Dialektischer und historischer Materialismus』(Berlin: Dietz Verlag, 1978)]

<18> W.B. Gallie 지음 『Philosophers of peace and war』(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19> Bernard Semmel 편 『Marxism and the science of war』(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81)

<20> 오이저만 지음, 윤지현 옮김 『맑스주의 철학 성립사』(서울: 아침, 1988)

[Theodor Illich Ozerman 『The Making of the Marxist Philosophy』]

<21> 김 서균 편역 『자본주의 위기와 파시즘』(서울: 동녘, 1987)

<22> 밥 재슬 지음, 이 앙구 · 이 선용 옮김 『자본주의와 국가』(서울: 돌베개, 1985) [Bob

Jessob 『The Capitalist State』(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1982)]

<23> 日本政治學會 편 『政治思想史における平和の問題』(東京: 岩波書店, 1992)

<24> 아그리에타 · 오를레앙 지음, 井上泰夫 · 齊藤日出治 옮김 『貨幣의暴力』(東京: 法政大學出版社, 1992) [Michel Aglietta · André Orléan 『La Violence de la monnai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2)]

<25> 아글리에타 지음, 성낙선 옮김 『자본주의 조절이론』(서울: 한길사, 1994) [Michel

Aglietta 『Régulation et crises du capitalisme: l'expérience des Etas-Unis』(Calmann

Levy, 1976)]

<26> 지노바이에프 지음, 佐野 學 옮김 『스탈쿠스 · 엥겔쿠스 · 엥겔쿠스』(東京: 白癩

社, 1927)

<27> 슈미ット 편, 高田爾郎 옮김 『엥겔쿠스』(東京: 現代思潮社, 1977) [K. Schmidt 『Engels』]

<28> 平野義太郎 지음 『平和の思想』(東京: 白石書店, 1978)

<29> 차인석 외 지음 『사회철학 대개』 3권 (서울: 민음사, 1993)

<30> 今村 仁司 지음 『経験の構造』(東京: 青土社, 1989)

<31> 今村 仁司 지음 『暴力のオントロジー』(東京: 勁草書房, 1992)

<32> 今村 仁司 지음 『理性と權力』(東京: 勁草書房, 1990)

<33> 今村 仁司 지음 『批判への意志』(東京: 勁草書房, 1989)

<34> 今村 仁司 지음 『歴史と認識』(東京: 新評論, 1985)

<35> 今村 仁司 지음 『思想の星座』(東京: 祥泉社, 1987)

<36> 켈리니코스 지음, 황석천 옮김 『마르크스주의의 미래는 있는가』(부산: 열음사, 1992) [Alex Callinicos 『Is There a Future for Marxism?』(London: Macmillan, 1982)]

<37> 켈리니코스 지음, 정남영 옮김 『현대철학의 두 가지 전통과 마르크스주의』(서울: 갈무리, 1995) [Alex Callinicos 『Marxism and philosophy』(Oxford, 1983)]

<38> 越村信三郎 지음, 김진방 옮김 『圖解 經濟學』(서울: 미래사, 1986)

<39> 佐野 學 지음 『生産主義經濟學』(東京: 青山書院, 1951)

<40> 안토니오 네그리 지음, 윤수중 옮김 『맑스를 넘어선 맑스』(서울: 세기, 1994)

[Antonio Negri 『Marx oltre Marx』(Milano: Feltrinelli, 1979)]

<41> 廣松渉 지음 『엥겔쿠스論』(東京: 筑摩書房, 1994)

<42> 川本康 지음 『國家は戰爭をおこなっているのだろうか』(東京: すずさわ書店, 1992)

<43> 藤田吉太郎 · 山崎時彦 편 『政治思想史入門』(東京: 有斐閣, 1993)

<44> 발리바로 지음, 윤소영 옮김 『마르크스의 철학, 마르크스의 정치』(서울: 문화과학사, 1995) [Étienne Balibar 『La philosophie de Marx』(Paris: Éditions La Découverte, 1983)]

<45> 박형신 지음 『정치위기의 사회학』(서울: 한울, 1995)

<46> 芝田蓮午 편 『戰爭と平和の理論』(東京: 勁草書房, 1992)



## 우리 삶 속의 군사주의

여성과 군사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권인숙 | 하버드대학교 한국연구소 Post-doc, fellow

### 1. 머리말

1997년 봄에 나는 '여성과 군사화'라는 강의를 들었는데, 그 강의에서 수강생 각자가 군사화되었다고 판단되는 여성들을 찾아서 인터뷰하는 과제물이 있었다. 대개는 군인가족을 인터뷰 대상으로 삼았다. 그 후 각자의 인터뷰 결과를 토론하는 자리에서 수강생들은 대개 비슷한 내용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인터뷰 대상이 군인의 부인이나 딸이든, 지식 여럿을 군인으로 둔(혹은 두었던) 어머니든, 혹은 죽고 죽이는 군사적·폭력적 갈등이 거의 일상화되어 있는 이스라엘 집경지대에 사는 팔레스타인 여성이든, 하나같이 자신들이 군사화되었다는 전체에 대해 반발하거나 부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군대나 군사문제와 관련해서 자신의 과거나 현재를 쉽게 풀어나가지 못했다. 내가 인터뷰한 여성은 아버지가 해병대 장교였는데, 그녀 역시 자신의 삶을 군대와 관련해서 쉽게 이야기하지 못했다.



이와 비슷한 반응은 1998년 여름에 내가 한국에서 80년대에 학생운동에 참여했던 20여 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군사주의에 대한 의식조사를 했을 때도 나타났다. 군사주의(militarism)와 군사문제 등에 대한 의식을 알아보려고 한다는 나의 취지를 밝혔을 때, 대부분이 그것이 자신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

여성과 군사주의의 관련성에 대한 이런 식의 부인이나 무관심 혹은 무의식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남자와 달리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군대에 가지 않고 비상시에 직접적으로 국방의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이다. 더구나 모성의 주체임을 강조하면서 근본적으로 여성을 전쟁이나 군사주의와는 거리를 둔 존재로 규정하는 시각도 상당히 넓게 퍼져 있다(Ruddick, 1998; 1993; 1990; Warren and Cady, 1994).

그러나 군사화 과정을 단순히 군대 내부에 국한되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전사회적인 것으로 이해하려고 할 때, 이런 무관심 혹은 분리의식은 다른 각도에서의 분석할 거리를 제공한다.

한 사회는 성별에 따라 일정하게 영역이 구분되어 있고 또 바람직하다고 기대되고 요구되는 여성성/남성성의 구분 및 상호관계 속에서 움직여 나가며, 군사화 과정도 이런 사회구성의 맥락 속에 함께 자리잡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하게만 보이는 이 관련없음이나 여성의 존재적 거리 두기의 철학이 오히려 여성의 군사주의와의 관련성과 군사화된 사회에서 여성의 역할이 드러나는 것을 가리고 있을 수 있다. 다시 말해 이런 가시적인 관련없음은 군사화가 진행되면서 성차별적인 분업, 영역구정 그리고 기존의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유지·강화시키면서 억압적인 여성성을 재생산하는 실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원천적으로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한편 한국의 경우 남자들에게도 '군사주의'나 '군사화'는 일상적으로 쉽

설명할 만한 카테고리 혹은 개념이 성립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알아보면서, 아울러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일부 여성들의 군사문제에 대한 인식 또한 밝혀보고자 한다.

## 2. 여성과 군사주의에 대한 여러 생각들

1900년 초 이전부터 미국과 영국에서는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은 활동가와 학자들이 전쟁발발이 여성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전쟁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밝히려려고 노력해 왔다.<sup>1)</sup> 그러나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여성과 군사주의에 대한 구조적인 설명을 피하는 연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시작되었다. 루디 등은, 자녀양육 등을 실천하게 되는 여성들은 본질적으로 전쟁이나 군사주의와 거리를 두게 된다는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여성을 평화운동의 주체로서 자리매김했다. 미국에서 일어났던 '평화를 위한 여성파업'(Women Strike for Peace, WSP)<sup>2)</sup>은 실제로 모성이라는 공통점을

1) 리딩톤에 의하면, 웨이커교의 진통을 이어받은 영국과 미국의 여성평화운동은 1816년부터 시작되었다. 19세기 중반 이후에 영국의 몇몇 참정권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참정권을 평화문제와 연결시켜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런 미국과 영국 여성들의 평화운동에 대한 활발한 참가는 계속 이어진다(Liddington, 1989). 또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에서 엠마 골드만, 제인 애덤스, 릴리언 윌드, 그리스탈 이스트만 등은 여성의 참정권과 동등한 정치적 대변은 평화로운 세계를 만들기 위한 필수조건이라고 선언했다(Zeiger, 1996). 이후 운동의 맥은 미국 여성의 평화를 위한 파업(1961)과 영국의 그린햄 침언 운동(1982~89) 등으로 이어진다. 여성과 전쟁의 관계를 알리는 또 다른 특별한 저서는 버지니아 울프의 *Three Guineas*(1938)이다.

2) 평화를 위한 여성파업(1961~70)은 1961년 11월 1일 미국의 중산층 백인여성들 수천 명이 평화를 위한 전국적인 시위를 벌이면서 시작되었다. 다양한 정치적 배경을 가진 여성들이 모성이라는 공통점을 내세우며 반핵·반전 운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그러나 60

게 이해되는 개념이 아니다. 사실 군사주의라는 말은 현실적으로 거의 쓰이지 않고 있다. 한국의 남성 정치평론가를 만나서 이야기했을 때도 군사주의라는 단어를 무척 낯설어했다. 다른 지식인층 남자들은 말도 마진지였다. 또한 내가 인터뷰했던 여성들 모두가 군사주의라는 말을 들어보거나 써본 적이 없다고 대답했다. militarism을 한국어로 표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단어인 '군국주의'에 대해서는, 모두들 히틀러 혹은 2차대전 시기의 일본을 떠올리면서 현재 한국 현실을 설명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낱은 개념으로 본다고 반응했다.

군사주의와 관련되어서 가장 광범위하게 쓰이는 말은 군사문화였다. 군인들의 문화가 사회지배적인 통치문화(홍두승, 1996; 변화순, 1995)와 접목되고 확산된 것을 지칭하는 군사문화는 군사정권 아래서 오랜 세월을 보낸 한국 사회의 다양한 문화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상당히 유효한 개념이다. 그러나 군대문화의 시민사회로의 접목이라는 한정적 의미를 갖고 있는 군사문화는, 사람들에게 내면화되어 있는 이념이나 가치체계를 설명하는 데는 많은 한계를 지닌다. 즉 북한을 극단적으로 적대화시키고, 이 집단에 대한 적개심과 공포심 그리고 반복되는 전쟁 가능성을 통한 긴장감 조성, 국가방어의 신성화, 미군주권에 대한 대중들의 일방적인 지지, 국민개병제, 30여 년의 군사정권 지배를 가능케 했던 토대들, 광범하게 퍼져 있는 다양한 이념과 가치체계, 세부화된 문화 등을 포괄하면서 총체적으로 진행되었던 한 사회의 군사화 과정을 군사문화라는, 이미 한 정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으로 설명해 낼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에서는 여성과 군사주의의 밀접한 관련성과 그런 관련 속에서 여성 차별적 현실이 유지되는 맥락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한국처럼 군사적 긴장도가 높고 군사정권이 오래 지배한 나라에서 군사문화라는 개념 이외에 군사화나 군사주의적 지배를 기반으로 했으며, 영국에서 핵미사일 기지 건설에 반대해서 일어났던 그린햄 침언 운동(Greenham Common)<sup>3)</sup>은 여성만의 평화운동이었다. 또 환경주의적 페미니스트들은 여성-본성-평화의 관계를 강조하고(Warren and Cady, 1994), 길리건은 관계 중심적인 여성의 자아형성 과정을 보여줌으로써 여성은 평화 그 자체나 평화적 해결방법을 선호한다고 주장하였다(Gilligan, 1982).

그러나 남성과 다른 여성의 본성이나 실천에 대한 강조는 결과적으로 남성성/여성성의 본질적 분리를 기초로 해서 전래되어 온 성별역할을 지지하는 결과를 낳는다. 가부장적인 군사주의의 기본 맥락을 반복하게 만든다는, 풀기 힘든 어려움에 빠지는 것이다(Kaplan, 1994; Peach, 1994). 탈역사적인 이 관점으로는, 여성이 군사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 외에는 여성이 구체적·역사적으로만 아니라 지금의 다양한 현실 속에서 애국적인 군인으로, 간호사로, 어머니로, 노동자로, 상징으로 그리고 대중으로서 적극적 혹은 무의식적으로 전쟁이나 폭력성을 띤 민족적 저항 혹은 군대에 참여해 왔고 앞으로도 참여하리라는 것을 설명할 수 없다.

이와 전혀 다른 방향에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군대참여나 레일라운동의 전신으로서의 참여를 여성이 남성과의 동등함을 얻어나가는 중요한 도구로 보기도 한다(Feinmann, 1998; Siehm, 1996; Hervet, 1994).

년대 말 70년대 초 들어서 모성을 강조하는 이들의 활동은 급진적 페미니스트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기도 했다(Swerdlow, 1993).

3) 영국 그린햄에서 8년여에 걸쳐서 진행되었던 여성들만의 핵미사일 기지 반대운동(1982~89)은 직접 기지 주변에 캠프를 설치하고 그곳에서 숙식을 하면서 다양한 반전 이미지 등과 행동방식을 보여줌으로써 그 운동의 지속성과 함께 많은 화제를 낳았고, 이후 여성평화운동의 하나의 상징이 되었다(Cook and Kirk, 1983).



이 관점에서는, 동등한 군대참여를 통해서 쟁취된 성적 평등은 사회의 민 주화를 앞당길 수 있다고 본다. 실제 여성의 군대참여는 아직도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이다. 여성의 군대참여는 자유주의 여성주의자들의 주장에서 많이 제기된 바 있는, 동등권을 얻고 고정된 성별 역할분담이나 남성성/여성성의 틀을 해체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남자와 똑같은 능력과 실 천을 보여주자는 맥락에서 현실적으로는 상당한 실효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 관점은 남성을 기준으로 남성화된 사회질서에 응하면서 남성과 같아지려고 한다는 논리의 허점을 지니고 있으며, 한 사회의 군사화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것이라는 비판을 평화운동에서의 여성주체를 강조 하는 페미니스트들에게서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국가가 운영하는 군대에서의 여성참여는 증가추세에 있으며 니카라과· 남아프리카공화국· 우간다· 북아일랜드 등지의 수많은 저항운동의 군대조직에 여성들이 참여해 왔다.<sup>4)</sup> 미국의 경우 1997년 현재 군대 내 여성의 비율이 13.5%나 되며(Enloe, 2000), 이스라엘에서는 여성도 징병대상이 되고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 사관후보생 시험이 22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다(<sup>4</sup>한국일보, 1998. 2. 23).

이런 현상이 여성의 취업기회 확산과 더불어 나타난 (육체적 강함이나 국가안보나 폭력적 저항운동의 주체가 됨으로써 형성된) 지배적인 남성성에 대한 도전이든 아니면 군사주의나 지배적인 남성성의 확산의 일환 이든, 군대가 여성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조직이 될 현실적 가능성은 아

4) 한국전쟁 당시 남부군에 여성전사가 상당히 있었다는 사실은 많은 증언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다. 또한 니카라과 산디니스타 운동에서 여성들의 게릴라운동에의 참여는 유명하다(Randall, 1994: 1981). 그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Cock, 1993)이나 필리핀 또는 우간다 등의 많은 아프리카 민족이나 국가들에서 여성들의 무장전사로서의 활동은 일반적이다.

결국 비공식대사로서의 활동을 했다는 점을 그려내기도 했다(Moon, 1997). 또 신디아 인로는 이 성별화된 관련성을 한 사회 내에서뿐 아니라 국제관계에서 본격적으로 읽어내고 있다. 그는 전세계에 퍼져 있는 군사기자들이 어떻게 주변의 매춘부나 군인의 여자친구 혹은 아내, 평화운동가, 여군들이 기부장적인 군사주의적 질서 속에 편제되어서 해내는 기지와 역할의 실천에 기대고 있으며, 또 이들의 역할이 상호 배타적이면서도 윤택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군사기지를 성공적으로 유지하게 하는 중요한 기초인지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Enloe, 1989).

### 3. 누가 군사주의자인가

공공연한 군사주의자를 만나기는 쉽지 않다. 군사주의는 전쟁을 정당화하고 바람직한 사회적 활동으로 보이게 하는 가치관의 체계로서 또는 전쟁이나 전쟁준비와 관련된 사회적 실천이나 태도들의 총합으로서 이해되어 왔다(Mann, 1988). 사실 전쟁이나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이데올로기로 보이는 이 부정적인 느낌의 군사주의는, 사람들이 공개적으로 믿고 내면화하고 따르는 신념들의 일정한 합의 형태를 띠기도 하는 이데올로기로 간주하는 것이 부적당해 보인다.

실제로 자신은 전쟁을 찬성하고 전쟁준비를 옹호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실천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세계 여러 곳에서 군사분쟁이 일어나고 있으며 미국이 이런 분쟁에 거의 매년 개입하고 많은 경우 군사적 개입으로 확대되지만,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내재해 있는 군사주의 때문이라는 것을 규명하려는 노력 또한 많지 않다. 그보다는 지배야욕에 불타는 소수 권력층이나 군수업자들의 음모로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 있어 보인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는, 대부분의

주 냐다. 즉 여성의 군대참여를 둘러싼 논쟁은, 각각의 입장이 여성의 현실을 부분적이고 파편적으로 반영하고 있음으로 해서 이에 따른 일정한 설득력과 허점을 동시에 지닌 채 평행선을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유의미한 논쟁이 진행되기 힘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의 군대참여를 찬성 혹은 반대 식의 논쟁으로 끌고 나가는 것은, 여성들이 다른 형태로 군대라는 조직의 활동에 참여하고 그 존재를 지지하는 역할, 즉 군인의 부인이나 가족으로서 혹은 군인을 대상으로 한 매춘여성으로서, 군사화된 사회에서의 한 성원으로서 성별분업에 참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결국 여성 군인의 존재는 군대 조직에의 보다 가시적이고 적극적인 형태의 참여이고 군사화된 실제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런 두 가지 흐름과는 다른 방향에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군대조직의 형성과 유지, 한 사회의 군사화 과정이 성별 분업화된 역할과 특성의 남성성/여성성의 사회적 형성에 얼마나 깊이 의존하면서 진행되고 있는가에 관심을 쏟고 있다(Enloe, 1988; 1993; Elstain, 1987).

버지니아 울프는 *Three Guineas*(1938)에서 한 사회가 어떻게 성별화된 카테고리로 완벽하게 나누어져 있으며, 여성과 남성이 다른 방식으로 그리나 전쟁을 만들어내고 진행시키는 구조에 얼마나 깊숙이 얽혀 있는지를 탁월하게 설명하고 있다. 울프의 시각을 확장시키면서 일부 페미니스트들은 전체 구조를 성별화된 맥락에서 풀어보는 것이 여성이 군사주의를 이해하는 관건이 된다고 주장한다. 캐서린 문은 미군기지 축소를 막기 위해 진행되었던 70년대 한국 정부 주도의 미군기지 정화운동(매춘여성들의 성병문제와 개별관리를 위한 운동)을 예로 들면서 미군기지 주변의 매춘여성들은 미군들이 그 남성성을 잃지 않고 병사로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디딤돌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한미 안보문제의 중요한 대상이 됨으로써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음모의 흐름 속에 말려들었거나 잘못된 민족주의나 인종주의의 광기의 결과로서 이런 분쟁을 겪게 되는 순박한 희생자로 비쳐진다. 무력분쟁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평화를 기치의 위에 놓고 있으며 전쟁폐해를 익히 겪어서 아는 지금에 이르러서도 이런 분쟁이 사람들의 군사주의적 신념체계에 뿌리를 두고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랫동안 민주주의 질서를 지켜왔다는 미국에서 이라크에 미사일 공격을 할 때마다 60% 이상의 국민들이 무조건 지지를 보내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 많은 민족분쟁이나 종교적 분쟁이 군사적 대결로 치닫는 이유는 무엇일까? 엄청난 내전을 거친 끝에 독립한 알제리에서 아직 도 내분을 집단적 폭력으로 해결하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내전을 겪은 이후의 남아프리카공화국에 총기문화가 크게 번창해서 하루에 19명이나 총에 맞아죽는 이유는 또 무엇일까(Cock, 1997)?

군사주의(militarism)의 일면적 규정, 즉 군사조직 존립의 정당성을 인정하고 그 조직과 그 조직성원들에게 힘을 부여하면서 전쟁과 전쟁준비를 정당화하기 위해 단편적으로 존재하는 이데올로기라는 규정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 규정만으로는 한 사회 내에서 또는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군사적·집단적 폭력에 대한 전사회적인 실천이나 지지를 설명해 내기 힘들다.

언제든지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 있는 흐름과 동력이 내면화되어 있는 가치체계와 일상생활에서의 실천 없이 군사주의는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 없다. 군사주의는 바로 그 내재된 가치체계와 일상적 실천 속에 자리잡은 이념을 의미한다. 폭은 현대의 민족이나 우방들 또는 집단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명분하에 갈등의 해결을 위하여 집단적 폭력(Cock, 1993)을 사용하고 그것을 정당화하는 이념의 출기가 군사주의라고 규정한다. 그



리고 인로는 이런 집단적 폭력을 가능케 하는 집단이 유지되고 힘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이른바 전사로서의 남자다움 그리고 그런 남자다움을 보조·보완하는 여자다움의 사회적 형성과 함께 이런 집단의 유지·보존을 위한 훈련과 단일적 위계질서, 역할분업들을 자연스럽게 보이도록 하는 여러 제도적·신념적 장치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는 반(反)군사주의자와 군사주의자의 경계선이 많이 허물어진다. 민족국가들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 세계질서에서 군사주의를 실행시키고 대변하는 다른 표현들—국가안보, 국가보위, 민족간의 힘의 균형 등—이나 제국주의적 억압 혹은 민족 내부의 갈등과정에서 나타나 는 게릴라운동, 억압받는 사람들을 위한 정의 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집 단적인 폭력과 무장화는 쉽게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부인할 수 있는 문제 가 아니다. 즉 사람들이 군사주의라고 표현된 그 무엇을 싫어하고 군사주의 의가 되고 싶어하는 그렇지 않든, 군사주의는 아직도 광범위하게 우리 의 가치와 실천 속에 존재하는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이다. 많은 사람들이 현대의 민족국가 중심의 체계에서 그리고 억압하는 자와 억압받는 자 의 갈등 속에서, 그 밖에 정당화될 수 있는 여러 상황 속에서 믿고 의지하 는 이데올로기인 것이다.

군사주의자를 만나기 쉽지 않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가치나 실천이 군사주의와 연결되어서 해석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는, 일반적으로 군사주의는 민족주의나 가부장제와 많은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 가부장제 나 민족주의의 속에 자리잡은 그런 특징들을 강화·보강해 주는 신념체제 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민족주의와 가부장제가 항상 군사주의를 동반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대에서 민족주의나 가부장제와의 긴밀한 관계없이 군사주의만 따로 존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집단적 폭력의 정당화는 나의 집단을 다

의 부재 여부를 떠나 늘 집안을 책임지고 가족을 유지해 나가는 역할을 하게 된다. 밤낮이나 계절의 구별 없이 전투 준비상황을 중심으로 한 신속하고도 원만한 명령집행을 생명으로 하는 군대조직에서 이들 부인들의 협조가 없을 경우, 군대조직이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 힘들다. 또한 남성 군인들을 갖은 이동과 비상, 타지훈련 등으로 가족 내에서 어른성원으로서의 안정적인 역할을 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인들은 직업을 가지기가 힘들다. 이러한 취업 불능의 조건은 오히려 군인부인들이 항상 군대의 값싼 예비군적인 역할을 하면서, 각종 군대행 사에 무임노동의 대상으로 차출되게 한다(Harrison and Laliberte, 1994).

우리나라도 캐나다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다.<sup>5)</sup> 그중 홍두승의 연구결과는 좀더적 관점이 크게 고려되지는 않았지만, 해리스 등의 연구와 거의 일치하는 면을 보인다. 홍두승은 군인가족의 특수성을 다섯 가지로 요약 하고 있다.

- (1) 지역적 이동이 빈번하다. (2) 격오지(隔澳地)에 고립되어 근무할 가능성이 많으며, 따라서 가족이나 친척들과 떨어져 생활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3) 남편 또는 아버지 부재현상을 빈번하게 경험하고 있다. (4) 직장(군)과 가족이 철저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5) 사회적 기회의 박탈과 경제적 결핍을 경험 하고 있다. (홍두승, 1996, 227쪽)

이처럼 군대조직과 관련된 군인부인들의 끊임없는 무임노동은, 많은

5) 한국에서 군인가족에 대한 연구는 아주 드물다. 특히 페미니스트 관점에서의 군인가족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가 더욱 쉽지 않았다(없었다). 관련된 연구들은 한국군방연구원의 직업군인복지관련보고서(정선구 외, 1989; 1990)와 오세호의 석사학위논문(1984), 홍두승(1996)의 군인가족의 고립과 적용에 관한 것 등이다.

른 집단과 구분하고 그 다른 집단을 적의 이미지로 만들어내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민족주의의 기본 속성, 즉 우리 민족의 이익과 보존, 번영을 배타적으로 최우선시하면서 이를 위한 어떤 실천도 미화되고 내부의 단결을 위하여 주변 국가나 민족을 경계하고 적대시하는 민족주의는 민족국가 단위의 군사주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속성이다. 물론 민족주의, 특히 제3세계 민족주의의 정당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정당성의 여부를 떠나 민족주의라는 틀은 아주 쉽게 군사주의를 내포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변화순은 한국의 현대문화를 단적으로 가부장적 군사문화라고 통칭하였다(변화순, 1995). 위계질서를 강조하고 상명하복의 질서가 강한 유교적 문화와 근대문화의 결합이 사회에 끼친 영향을 논하면서, 여성 역할의 끊임없는 보조 서열화도 그 하나의 특징으로 든다. 가부장제와 군사주의의 특성 하나는 가부장제에서의 역할과 군사주의에 관련된 역할이 여성에게 는 특히 큰 차이가 없이 결합된다는 점이다.

이런 특성이 여성과 군사주의의 관련성을 드러내지 않게 한다. 예를 들어 군인부인의 경우, 이들이 군대와 관련해서 하는 역할과 가부장제에서 형성된 성별분업화된 여성의 역할이 별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라는 조직이 군인부인들의 노동과 협조에 어떻게 기대어서 유지·운영되는가는 제대로 인식되지 못해 왔다. 해리스와 웰리버트는 캐나다의 군인부인들을 연구하면서 군대조직과 군인부인들의 대가 없는 노동의 관련성을 보여주었다. 집안일이나 자녀양육 등, 부인들의 협조 없이 기존 남성 군인들의 삶이 정상적으로 유지되기는 거의 힘들다. 군인들의 잦은 이동에서도 부인들이 거의 전적으로 이사를 도맡아 하고 자녀들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 하는 등 대가가 없는 노동을 하지 않는다. 기존 남성 군인들은 정상적인 집무수행을 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부인들은 남편

나라들에서 도전을 받지 않고 별 문제의식 없이 지속되어 왔다. 해리스와 웰리버트는, 가부장적인 성별 노동분업 속에서 당연한 듯이 형성된 자연스러움이 군대조직에 대한 군인부인들의 협조와 무임노동 제공을 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분석한다. 군인부인의 경우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자연스럽게 비치는 가부장적인 성별분업이 어떻게 한 나라의 군대조직을 지지·유지하는 데 이용되고 사실은 필수 불가결한 부분으로 자리잡게 하는가 하는 점이다. 여성과 국가안보의 기려진 긴밀한 관련성을 들여다볼 수 있는 좋은 경우라고 생각한다.

가부장적인 남성성/여성성은 군사주의의 뼈대를 이루고 있는 남성성/여성성과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군사화 과정은 폭력적이고 전투력의 향상을 중심 목표로 해서 훈련된 남성성을 옹호하며 가부장적인 남성성에 폭력적인 면을 더하면서 동시에 기존의 가부장적인 남성성을 강화시킨다. 인로는, 모든 군인들이 전투에 참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투력을 배양시키기 위해 기대되는 군인의 자질은 군대에서 요구하는 남성성의 근간을 이루며 군사화된 사회의 남성성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Enloe, 1983). 또 폭은 전쟁과 상관없이 군대는 거칠고 주도적이고 공격적이며 경쟁적이고 객관적이고 지배하려 들고 성취하려 하며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는 전사에게 요구되는 남성상을 요구하고 이를 키워내는, 이 같은 성질이 군사회된 많은 사회에서 사실상 남성상의 기준이 된다고 본다(Cock, 1993).

남성성은 성별화된 사회에서 여성성의 상대어이다. 물론 한 사회에서 이상적인 남성성은 계속 변화한다. 베트남 파병시 유행했던 '새까맣고 용감한 김상사' 스타일의 남성이 언제나 지배적인 남성상이지도 않고, 남성의 여러 복합적인 면을 대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아직 우리 사회에서 는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지 사람이 된다'는 전제를 상당수 사람이 포 기하지 않고 있다. 제2의 학교로서의 기능이 상당히 인정되고 있는 편이



다. 조성숙은 군대를 다녀온 사람들에게 관한 연구를 정리하면서 군대의 영향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군대는 보통남성들을 초인적인 인내력과 강인함을 지닌 군인으로 기르  
기 위해 부단히 남성 우월의식을 불어넣고, 둘째 계급사회인 군대는 '힘'의 논  
리로 상하관계가 유지됨으로써 권력 지향성을 키우게 되며, 셋째 고된 훈련과  
군대생활의 긴장을 해소하는 방편으로 성을 오락화함으로써 여성을 성적 존재  
로 비하하는 성 편견을 갖게 된다. (조성숙, 1997, 159쪽)

남자는 강해야 하고 가족 부양자로서의 책임감을 가져야 하며 힘의 논  
리에 적용하여 성공해야 한다는 것 등은 가부장적인 남성상 속에서 계속  
유지·보존되어 온 성질이지만, 한국에서는 군대경험을 통해서 집단적으  
로 방향하게 재교육되는 기본적인 남성성이다. 여전히 높은 성폭력 발생비  
율<sup>6)</sup>이나 비대하게 성장한 유흥산업·매춘업과, 남성들의 이런 집단적인  
군대경험과 그 속에서 형성된 남성성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를 검토해  
보지 못했지만, 상식적으로 상당한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성성에 대한 이분법적인 규정—매춘여성과 순결한 여성 등—의 비교  
와 대립 속에서 한쪽 여성성의 극단적인 성의 상품화와, 다른 쪽 여성집단  
의 성도덕에 의한 집중적인 규제는 남성들의 군대경험 속에서 양성된 가  
부장적이면서 여성이라는 성을 상품화·대상화하는 데 익숙해진 남성성  
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6) 임순영이 제시한 한 통계에 따르면, 1990년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3위의 강간범죄 발생  
전수를 기록하는데 신고율 2.2%를 감안한다면 우리나라의 강간범죄 발생건수는 거의  
경이적인 수치에 달한다고 한다(임순영, 1995).

무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사회화 과정으로서 군사화를 강조할 때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은, 어떤  
의식상태에서 각 개인 혹은 집단이 군사화 과정을 겪으며 또 군사화를 가  
치로서 받아들이거나 그 실천에 참여하게 되느냐 하는 점이다. 만약 의식  
적인 군사주의자가 그리 많지 않다면, 군사화 과정에 가담케 되는 무의식  
은 이들 과정과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 하는 점도 함께 공명해치는 사안  
중의 하나이다. 기존에 진행되었던 연구에서 거의 밝혀지지 않은 이 관련  
성을 밝혀내는 것이, 군사화와 관련된 개념의 의식적 발달 없이 지속적인  
군사화 과정을 거쳐온 한국의 경우 그 사회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  
다고 본다.

그람시의 헤게모니 개념은 이 군사화와 무의식 사이의 역학을 살피는  
데 도움을 준다. 그람시는 지배집단이 피지배집단을 통제하고 이것을 유  
지하기 위해서 노골적인 힘이나 생산도구의 독점뿐만 아니라 엄청난 다  
수의 편견과 감정·인식·규범·가치 속에 숨어 있거나 배어 있는 동시  
적이고 즉각적인 동의에 의존하고 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헤게모니라는  
개념을 쓰기 시작했다(Gramsci, 1971; Leary, 1985).

자연스럽고 잊어버릴 만하고 꼬집어서 말하기 쉽지 않은, 즉 버릇이 형  
성되어 가는 과정처럼(Comaroff and Jone, 1991), 헤게모니적 지배는 다수  
의 사람들에게 무의식적으로 동일하게 형성된 생각이나 도덕, 가치 속에  
불명확하게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자  
신들의 경험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견해를 헤게모니적인 문화에 직접적으  
로 도전할 수 있는 세계의 관점으로 전환시켜 내는 것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어려운 과정이다"고 레어스는 표현하고 있다(Leary, 1985).  
이 스며들어 있음은, 다수의 견해라고는 하지만 그 견해의 존재 자체도  
느끼지 못할 만큼 일상화되어 있음을 뜻하고, 당연히 여기고 사는 것 속

#### 4. 일상성과 군사화: 그 헤게모니적 실제

군사주의가 개인이나 조직, 사회운동 그리고 전체 사회의 형성에 끼치는  
영향과 과정을 설명하는 데 군사화는 핵심 개념이다. 즉 군사화는 이념  
또는 가치체계로서의 군사주의의 일상화·사회화를 일컫는 개념이다. 군  
사회는 전쟁이 벌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군사주의의 영향에 대해 관심을  
갖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새롭게 만들어져 가는 개념이다. 특히 성별화  
된 군사주의의 영향을 해석해 내려는 페미니스트들이 관심을 갖고 있  
는 개념이기도 하다(Emloe, 1983; 1993; Moon, 1998; Cheney, 1998).

로스는 군사화를 군사력 강화 측면에서만 설명하고 있는데(Ross, 1987),  
군사력 강화라는 단일한 관점은 군사주의에서 여성의 존재 및 군사주의  
와 여성의 관계를 밝히기 어려운 문제점을 가질 뿐 아니라 군대나 군사력  
강화와 직접적인 관계가 드러나지 않는, 그렇지만 그 속에 삶이 어떤 형  
태로든 편입되어 있는 사람들을 철저히 타자화시키는 논이기도 하다.  
군사주의와 군사화의 관련성에 관해서, 길리스는 군사화가 군사주의보다  
유용한 개념이라고 주장한다(Gillis, 1989). 군사주의는 탈역사적이면서 추  
상적이고 보편적인 이념 수준의 개념규정에 머무는 데 비해, 군사화는 더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사회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개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군사주의와 군사화는 상호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개념이다.  
또한 군사주의는 단순히 보편적인 세계관이나 이데올로기가 아니다. 실  
제로 군사주의는 늘 민족주의나 가부장제 또는 다른 이데올로기들과 연  
인 형태로 나타남으로써 한 사회 또는 국제관계에서 구체적이면서 역사  
적인 상황성을 띤다. 군사화는 사회적 과정이고, 군사주의는 세계관이라  
고 이분법적으로 주장하는 것(Chenoy, 1998) 역시 실제적인 사회적 실천  
속에서 군사화와 군사주의 사이의 변화하는 역사적인 상호성과 역동성을

에 감춰져 있는 동의를 의미한다.

사실 상식적으로 군대의 힘은 지배층의 가장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힘  
이자 협박의 근원이다. 그러므로 군사주의나 군사화 과정을 분명하고  
숨겨진 동의로 특성화된 헤게모니적인 지배의 과정으로 상상하리라 결코  
쉽지 않다. 그러나 인종차별주의나 성차별주의 그리고 계급차별주의처럼  
부정적이지만 영향력 있는 이데올로기들에서도 이렇게 직감하기 쉽지 않  
다는 것이, 그 광범위한 영향력의 중요한 이유이자 수단이었다. 다시 말  
해 제도화 각종 담론과 일상생활의 문화 속에 다양한 형태로 담겨서 실천  
되고 있는 또 다른 실체가, 다른 인종·성·계급의 열동성을 공공연히 민  
고 옹호하는 것만이 그 차별주의의 실체라고 믿는 단순논리 속에 가려져  
있던 것이다.

헤게모니적 지배에서도 드러나지만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는 투명하고  
명확한 모습이나 담론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들 이데올로기는 여러 층  
의 문화에 스며들어 있고, 뿌리내린 그 모습은 잘 인식되거나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다(Frankenber, 1993). 게다가 이들 이데올로기와 비교해  
볼 때도, 하류하류의 삶 속에 배어 있는 군사주의라는 형태는 거의 밝혀  
지거나 알려지지 않아왔다. 군사화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매일의 실  
천과 표현 속에서 군사화된 성격을 파악하기 거의 힘들게 다양한 문화적  
형태들 속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인로의 설명을 들어보자.

군사화는 교묘한 과정이다. 우리가 '전쟁'이라고 부르는 집중적인 군사화 과  
정과 우리가 '평화'라고 부르는 '전전(戰前)' 또는 '전후(戰後)' 또는 '전쟁 동  
안에도 군사화는 이루어진다. 군사화는 한 사회의 어떤 부분이 군대나 군대의  
가치에 의지하거나 지배당할 때 일어난다. 실제로 어떤 것이든 군사화될 수 있  
다. 장난감, 결혼, 과학적 연구, 대학의 커리큘럼, 모성, 이 모든 것들이 군사화



될 수 있다. 부성(父性), 에이즈, 이민, 인종차별주의, 패션, 저널리즘 그리고 만병 등도 군사화될 수 있다. 심지어 동성애 권리도 군사화될 수 있다. 이런 모든 과정들은 의미나 관계의 변화로 진전된다. (Enloe, 1993, p. 100)

이런 군사화 과정에는 우리가 군사문화의 확산이라고 해서 문체제를 해왔던 것도 많이 포함된다. 그러나 상당 부분이 집단적인 문체제의 없이 진행되곤 한다. 실제로 지배집단은 군사주의를 표현하는 직접적인 담론을 거의 쓰지 않는다. 군사화가 가장 노골적으로 나타나고 군사주의적 가치질서가 표면에서 활동하는 전쟁중에는 '적을 무찌르자' 등의 직접적이고 원색적인 용어가 쓰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런 적개심을 포장하기 위해서 여러 다른 담론들이 보충적으로 때로는 주도적으로 나타난다.

우리가 별 반발 없이 따르고 믿는 가치나 도덕들, 애국심, 자기희생, 조국을 지키는 것, 정의의 실현, 궁극적인 평화의 추구 등이 그런 것이 된다. 전쟁발발에 대한 사전준비, 힘의 균형, 자기방어, 억압받는 자를 위한 정의, 조국의 번영, 지구의 평화 등이 전쟁을 하지 않을 때의 유용한 담론이 된다. 게다가 이런 담론들 중에는 우리가 거의 문체제하지 않고 상식처럼 받아들이고, 다시 말해 당연하게 여겨온 논리들이 의외로 많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방어의 필요에 대해 어느 정도 공통된 전제나 단일화된 생각을 하고 있다. 제3세계 국가나 민족의 경우 제국주의의 식민화를 막기 위한 자기보호 차원에서의 무력확보나 민족해방투쟁을 위한 무장화의 필요성 또는 일상적으로도 강한 군사력이 평화를 위한 거의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 등은 다수의 동의를 즉각적으로 끌어낼 수 있는, 저변에 깔려 있는 공통된 가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군사화 과정에서 나타나 는 또 다른 특성은 군사주의나 군사화가 불가기적 혹은 흑백논리로 판단

의나 군사화, 심지어는 일반적으로 쓰이는 군사문화와 더불어서 바리본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한국 사회에 관해 그토록 많은 토론을 했으면서도 한 번도 이런 주제를 논해 보지 않았을까? 한두 가지의 설명으로 이런 의문에 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적인 대답—분단이라든가 전쟁의 긴장감,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는 지리적 조건 등을 중심으로 한 설명—과 함께 그 기저에 깔려 있는, 다수의 동의를 얻고 있지만 우리 삶 속에 무의식적으로 퍼져 있는 불명확한 많은 전제들을 체계모니적 관점에서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군사주의의 확산은 현대 한국에서는 박정희정권이나 전두환정권 아래서 군사화된 교육, 경제정책, 사회를 조직하는 데 있어서의 군대조직 개념의 사용, 성별 분업화된 노동과 문화의 확산을 통해서 공고화되었다.<sup>7)</sup> 문송숙은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여러 기업이나 기관들이 반영 혹은 포합하는 군대의 가치나 관습들은 한 사회의 군사화 또는 탈군사화를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학생·노동자·가정주부들 각자가 자신들에게 내재화되어 있는 군사적인 담론이나 경쟁, 성별 역할·영역의 분류를 받아들이고 있다면 군사화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Moon, 1998).

7) 군사주의의 영향을 이야기하면서 일본 점령시대의 영향을 부인하려는 것은 아니다. 일제의 통치방식은 노골적인 군사적 지배방식이었고, 특히 만주전쟁 발발 이후에는 학교·공장 등 모든 것이 직접적 군대조직으로 여겨질 만한 상황이었다. 그리고 해방 이후 남한에서 일본의 지배방식과 문화가 미군정의 지배를 가지면서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지고 이어져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 연구는 군사정권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 현대 한국의 집약적인 군사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므로, 일제시대의 영향을 일괄하게 분리해서 보려고 한다.

할 수 있는 이념이나 과정은 아니라는 것이다. 정당성이나 정의와 관련된 집단적 가치판단은 그 집단이 위치한 상황과 맥락에 의해서 내려져야 하고, 군사주의나 군사화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sup>8)</sup>

한국은 어떤 식의 기준으로 보더라도 군사적으로 가장 긴장된 나라 가운데 하나이다. 냉전이 해체된 이후에도 변함 없이 전쟁 가능성을 떠올리며 북한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지금은 7, 80년대와는 많이 다르다. 일단 더 이상 군부가 직접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다. IMF의 여파인지 아니면 언론에 조금 더 공개되어서인지는 몰라도, 군축문제도 제법 거론되고 일정하게 동의도 얻고 있는 듯하다. 또 군의 비리도 더 이상 성역이 아닌 듯 조금씩 알려지고 있다. 이런 현상들은 한국 사회가 탈군사회되어 나가는 징표를 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의문은 그대로 의미를 지닌다. 왜 우리 사회에서는 군사주의나 군사화 또는 이런 개념들을 대체할 만한, 즉 우리 사회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군사주의적 질서를 파헤칠 개념이 생기기 않았을까. 한국 사회같이 군사적 긴장감이 높고 북한의 핵보유 여부가 계속 논란이 되고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하고 있는 나라에서 왜 평화운동은 백안시당하고 반전운동은 반미운동 이상의 의미로 확대되지 못했을까?

한 미국인 교수가 한국을 방문해서 비무장지대 근처의 무장군인을 보고 온몸에 소름이 끼치고 군사적 긴장감이 절로 느껴졌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나에게서는 별 이상할 것이 없는 모습들이 저렇게도 느껴질 수도 있구나 싶어 놀란 적이 있었다. 나는 한 번도 소름이 끼치거나 그 모습을 심각하게 받아들인 적이 없기 때문이다. 그저 어렸을 때부터 늘 보아오던 모습일 뿐이었다. 이것은 미국의 한 친구가 나의 삶이 군사화된 삶이 아냐고 물었을 때 당황했던 기억과도 비슷했다. 그 친구가 말한 군사화의 개념이 무엇이었던간에, 내가 놀랐던 것은 나는 한 번도 내 삶을 군사주

이러한 군사적인 질서에 대한 하나의 대응으로 80년대 격렬한 반(反)군사독재운동을 거쳤고 그 성과도 가시적으로 기졌다. 그러나 끊임없이 적의 이미지를 생성해 내는 반공의식이나 전쟁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성립된 국가안보 의식, 중국이나 일본 등의 힘에 대적할 수준의 군사력 확보 의식 등은 거의 도전을 받지 않고 이 사회의 밑바탕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유지되고 있다.

내가 인터뷰했던 대부분의 진보적인 여성들은 군대의 존재에 대해 회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북한뿐 아니라 강대국에 맞서기 위해서도 일정한 무장화는 필요한 것 아니냐고 했다. 이런 생각들이 현실적 타당성과 정당성을 얼마나 갖는가는 현재의 나의 관심사가 아니다. 다만 군대의 존재와 그로 인한 힘의 균형, 필요시에는 집단적 폭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전제에 대한 동의와, 그 이전에 이런 주제들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도 느끼지 않았던 그 사실 속에서 군사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는 우리의 실체를 엿볼 수 있다.

물론 그런 군사조직이 효율적으로 존재하고 반공이나 국가안보 논리가 정상적으로 집행되기 위해서 함께 진설되는 성별분업과 역할규정에 얼마나 동의하고 있는지는 개인간의 편차가 많고, 어떤 면에서는 군사주의적 신념체계에 반발하는 의견도 많이 갖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이런 잠재화 된 다수의 동의가 직접적으로는 60년대 후반의 베트남 파병을 반발 없이 밀어붙이는 힘이 되었고, 그로부터 30년 뒤인 90년대 초에 이웃 일본에서 는 엄청난 반발을 일으켰던 걸프전 파병시 의무원 등의 지원도 사회적으로는 없이 진행시킬 수 있었다고 본다.

결국 우리의 민족주의 의식 속에 그리고 전쟁의 경험과 분단상황을 통해 신성화되어 버린, 가리앉아서 새삼스럽게 강조할 필요도 없어져 버린 집단적인 국가방어 등에 대한 동의 속에서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조직



화 경험의 하나였던 군사화 과정이 그 구체적인 실체를 별로 드러내놓지 않고 진보적인 지식인들까지도 지배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5. 맺음말

한국의 지난 역사와 현재의 문제 또는 문화적 흐름을 설명할 때, 군사주의나 군사화의 시각에서 본 면면들이 우리 사회의 모든 것을 설명 혹은 대변해 줄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더군다나 여성과의 관련성 면에서 군사주의의 영향력이 유교적 가부장제나 자본주의적 성별분업의 그것보다 더 클 것이라고 믿지는 않는다. 다만 우리 현대사에 대한 재평가가 이리저리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요즘, 우리 사회를 평가·분석할 수 있는 하나의 키워드로서 군사주의와 군사화 개념을 제기하고 싶을 뿐이다.

군사주의와 군사화의 분석들은 우리가 권위주의, 유교적 가부장제나 여타의 분석들에서도 접근할 수 없었던 국가방위라는 신성화된 전제의 근대조직이 이 사회에서 어떤 정당성을 가지고 존재하면서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 자리잡은, 이와 관련된 가치와 도덕이 양산해 낸 문제들을 짚어볼 수 있게 해준다. 쉽게 상정할 수 없는 여성과 군사화의 관련성이 그 두텁게 가려진 장막 속에서 이 사회의 성별분업과 역할규정 그리고 여성역입의 폭력성을 가중하고 있음도 이 분석들에서만 제대로 이해되고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첫 야당집권 후 민주화로 나아가기를 함께 열망하면서도 박정희 친양론이 거침없이 등장하는, 갈등하는 전환기에 이 분석들은 참 민주화에 대한 하나의 좌표를 제시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다.

## 참고문헌

-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1990), 『여성·평화』, 평화사.  
김순현 (1990), 『군사문화』, 울지서적.  
김영명 (1991), 『군부정치론』, 녹두.  
백종천·온민금·김영호 공저 (1994), 『한국의 근대와 사회』, 나남출판.  
변화순 (1995), 『기부경제 군사문화가 여성의 삶에 끼친 영향』, 『여성연구』 통권 48호, 9월호.  
이호재 외 (1989a), 『한국인의 평화의식과 통일관』, 범문사.  
—— (1989b), 『한반도 군축론』, 범문사.  
—— (1989c), 『한반도 평화론』, 범문사.  
임순영 (1995), 『성폭력』, 이영에 편, 『성, 권력, 정치』, 범문사.  
조갑제 (1988), 『군부』, 조선일보사.  
조성숙 (1997), 『군대문화와 남성』, 여성한국사회연구소 편, 『남성과 한국사회』, 사회문화연구소.  
최은하 (1992), 『한국여성과 평화운동』, 호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홍무승 (1996), 『한국근대의 사회학』, 나남출판사.  
Ashworth, L. M. and L. A. Swatuk (1998), "Masculinity and the Fear of Emascula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M. Zalewski and J. Parpart, eds., *The Man Question in International Relations*, Boulder: Westview Press.  
Berkman, J. (1990), "Feminism, War, and Peace Politics: The Case of World War I," Elshain and Tobias, eds., *Women, Militarism, & War: Essays in History, Politics, and Social Theory*, Savage: Rowman&Littlefield Publishers.  
Boose, L. E. (1993), "Techno-Muscularity and the Boy Eternal: From the Quagmire to the Gulf," Cook and Woollocott, eds., *Gendering War Talk*,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 특집 I 한국 사회의 군사주의문화와 여성

### ■ 주제강연

## 한국 사회의 군사주의문화와 여성

이효재  
(여성단체연합 회장)

### I. 서론

문화라는 낱말이 시사하는 함축성은 참으로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본인은 이것을 제한하기 위하여 문화를 인간의 의식, 관습 및 사회행동을 지칭하고 규정하는 이데올로기, 가치관, 지식 및 언어 등으로 정의한다.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행동의 질서, 인간관계, 사회조직 등은 우리의 의식과 관습을 의식, 무의식적으로 좌우하는 이념과 논리에 의해 지배당한다. 이것은 즉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내포하는 언어구조와 행동규범으로 문화를 형성한다. 언어와 규범은 한 집단이나 계층이 공유함으로써 대화가 가능하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문화란 미술품, 생활용품, 건물 등의 구체적인 형태를 가진 물품, 도구 등등 그 자체를 말하기보다는 그것을 창작하고 만들어내는 지식과 기술, 그리고 그런 것을 아름답게 생각하고 좋아하며 가치를 감상할 수 있는 가치체계와 예술적 인식 등을 말한다. 그러므로 본인의 입장에서서는 문화를 물질적 측면에서 보다는 이념과 관념적 측면에서 논하려는 것이다.



한국의 군사주의문화라는 것은 이러한 보편적 정의를 우리의 역사적 상황과 현실에 적용하려는 데서 개념화한 것이다. 즉, 분단국가를 지배하고 유지해온 군사정권에 의해 형성된 문화의 성격을 비판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전제 한 것이다. 군사정권은 우리의 사회질서와 생활을 통제하고 지배하는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을 정치 이념화하고, 정책을 수립해 왔다. 이러한 이념과 정책이 사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구체화되는 한편 학교교육과 관제선진 등을 통해 개인들에게 내면화시켜온 것이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군사주의문화가 우리 문화사에 있어서 전혀 엉뚱한 이질적인 것의 도입이나 창출인 것만은 아니다. 봉건적 가부장제 전통의 문화를 민주화를 통해 변혁하고 극복하지 않고 지배권력의 유지존속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그러므로 군사주의문화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극복은 봉건적 가부장제 문화에 대한 이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더욱이 남녀평등의 정의로운 인간공동체를 지향하며 모든 계층이 함께 잘사는 민주통일사회를 성취하려는 우리의 입장에서 군사주의문화를 봉건적, 가부장제 전통의 깊은 기반에서부터 파악해야 한다. 현대 독점자본주의와 결탁된 가부장제가 여성을 더욱 차별하고 소외시키며, 생명보전의 공동체적 삶을 주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II. 군사주의문화의 지배 논리

먼저 우리에게 친숙한 민속놀이의 한 예를 들어 군사주의문화의 관습적 기반이 되는 잘못된 가치관을 지적해보려 한다. 이것은 웃음에 관한 이야기이다. 1966년 본인이 이스라엘에 갔을 때에 어느 협동촌의 한 농가를 방문한 적이 있다. 그 집에 열두 살 난 여학생 딸이 있었다. 그 아이에게 한국놀이를 소개하기 위해 가지고 갔던 웃을 보이며서 설명했다. 웃을 쿨러서 말을 쓰는 방법을 가르치면서 한 쪽 말이 상대방의 말을 잡아먹었을 경우, 웃을 다시 칠 수 있는 상이 주어진다는 것을 설명했을 때 그 아이 어머니는 부엌에서 들고 있다가 “No! No!” 를 외치면서 뛰어나왔다. 왜 잡아먹는 자에게 상을 주느냐고 항의를 하면서 그런 볼

을 행사하는 것이다. 공산주의사상을 적대시함으로써 자유민주주의에서 허용하는 사상의 자유마저 박탈당한 것이다. 자본주의사상과 함께 세계 사상사에서 차지하는 사회주의사상의 위치나 인간이 추구하는 사회사상으로서의 그 고고한 이상과 가치, 그리고 그 한계와 제한성 등을 연구하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와 자유, 그리고 권리마저 박탈한 것이다.

이것은 적에 대한 폭력을 정당화한 것으로 폭력이 약자의 정당방위를 위한 폭력이 아니며, 강자의 이익을 위해 무엇이나 독점하고 탈취할 수 있는 힘의 논리를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사회에 만연된 공권력의 폭력화, 성폭력, 친구와 이웃간의 폭력 등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부도덕이 일상화된 것이다. 인간관계에서 대화로 의사소통을 하여 목적을 달성하기보다 폭력적으로 자기의 목적을 탈취하는 전쟁의 질서가 자리잡았다. 일상생활이 죽이고 죽임을 당하며, 빼앗고 빼앗기며, 때리고 맞는 싸움터가 된 것이다. 이는 지배권력의 폭력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러한 폭력성은 사람들로 하여금 지배질서에 복종하며 순응하도록 순치하고, 총화단결, 일사불란이란 전체주의를 강요하여 개인의 저항이나 다양한 대응들을 억압한다. 저항하고 이탈하는 사람은 적이 된다. 내 편이 아니면 적이라는 흑백 논리가 지배한다.

바로 이것은 기득권에 대한 도전이나 비판, 그리고 변화를 요구하는 이론이나 세력을 적대시하는 것이다.

IV. 군사주의문화와 흑백논리

이러한 흑백논리의 단순성은 우리 사회에서 대화의 문화를 꽃피울 수 있는 토양을 없애 버렸다. 우리 사회에는 진정한 대화가 없다. 대화는 개방과 참여의 상호성에서 기반한 민주적인 의사소통의 과정이다. 대화의 진정한 의미와 기회가 군사주의문화 속에서 말살된 것이다. 강자의 명령과 권위적 주장에 대한 반대나 비판이 목적으로 허용되지 않고 탄압되어 왔으므로 가족이나 친구들 사이에서도 자유스러운 의사표시나 논리적 대화가 진행될 수 없다. 의사표시의 자유, 사상의 자유가 없는 상

이를 자기 말에게 가르치는 것을 싫어했다. 나는 충격적인 수치감을 느꼈다. 우리에게는 단순한 재미로 생각되던 놀이의 원리가 남을 잡아먹는 폭력을 허용하고 강자를 우대하는 가치관을 정당화시키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자신의 둔감함을 수치로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남을 잡아먹는 것을 재미로 생각하며 잡아먹는 강자의 정당함을 표창하는 것으로 그것을 더욱 조장하는 생활관습, 이것이 군사주의문화를 쉽게 받아들이게 하는 의식상태의 기반이 되는 것이다.

군사주의문화의 기본 논리는 적을 만드는 것이다. 대항하고 정복해야 할 적을 만들고, 이에 대적하는 힘을 사회적으로 동원해야 한다. 우리의 분단 의식은 공산주의를 반대하고 이에 대항하는, 즉 공산주의 집단을 적으로 삼는 것에서 시작한다. 반공을 국시로 삼는 분단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복한을 적으로 삼아 반공법이나 국가보안법으로 우리의 사상 및 행동의 자유를 억압, 규제해 왔다. 이것은 군사적 대립뿐만 아니라 사상적 대립, 집단간의 대립 그리고 개인들 사이의 불신과 적대감을 조장하며 가족, 친족관계에서도 혈육의 정을 끊고 원수가 되게 하였다.

적은 단순한 대립관계나 경쟁관계로 머물러 있지 않다. 궁극적으로 잡아먹거나 무찔러 죽여 없애야 하는 대상이므로 폭력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군사적 대결에서는 방위만이 아닌 공격을 위한 군사 우위를 목적으로 하므로 폭력과 무력을 정당화하며, 군비증강, 군비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무모한 무력경쟁에 국가가 주력해 왔다.

III. 군사주의문화의 폭력성

분단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군사주의문화는 폭력을 정당화하므로 폭력성이 국가권력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 전반에 만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어의 폭력성이 극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저 사람은 빨갱이다” 라는 말은 사람을 적으로 만들어 사회적으로 죽이는 폭력적 힘을 지닌 것이다. 반공 이데올로기는 개인이 좌의사상을 지닌 것만으로 사회적으로 위협시당하며 소외당하게 한다. 이것은 말과 사상을 통해 폭력적 전쟁

태에서는 자유스런 논리적 전개가 의계당할 수밖에 없다. 자신의 생각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다” “빨갱이 사상이다” 라는 위협을 당하는 경우 대화는 진전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공포 속에서 우리의 사고와 사유를 스스로 억제하며, 단순한 흑백논리 속에서 의식이 자라지 못하게 하였다. 의식과 사고의 흐름이 봉건적이며 보수적인 벽 속에서 차단당해 왔다.

우리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상황으로, 두 세 사람이 모여 이야기 하다 보면 큰소리의 자기 주장이나 싸움이 앞서는 경우가 많다. 길거리를 지나면서 하투에도 한 두번씩은 반드시 싸움하는 광경을 보게 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서구의 길거리에서 볼 수 있는 조용한 대화의 만남이나 모임이 쉽게 볼 수 없다. 또한 친척이나 친구들이 모임 장소에서 도 화투판이 벌어진다. 패를 갈라 도박하는, 잡아먹고 먹히는 화투놀이 가 일상화되고 있는 것이다. 아니면 모임에서 노래 부르기를 좋아한다. 대화의 문화가 없는 상황에서 싸움을 피하는 방법으로 노래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다. 노래 부르기를 좋아하는 우리의 정서와 관행을 부정적으로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다. 노래와 대화가 조화를 이루며 균형을 유지하는 문화가 되어야 힘을 강조하려는 것이다. 노래와 대화로써 진정한 공동체의 정서적 유대와 기반을 다질 수 있는 것이다.

V. 군사주의문화와 가부장제적 위계질서

군사주의문화는 우리 사회의 가부장제 위계질서를 재생산하고 있다. 군사조직의 전형은 독재자, 통수권자를 우두머리로 한 명령체통의 위계질서 조직이다. 명령에 대한 복종이 강요되는 데서 명령은 위계질서의 계통을 통해 하달된다.

민주적 참여를 통한 대화와 타협보다는 명령과 복종이 지배하는 데서 모든 조직은 관료조직화되고 있다. 군사조직은 관료조직의 가장 엄격한 형태이다. 우리 사회는 거대한 군사조직뿐만 아니라 행정관청, 기업체, 금융기관, 교육기관 등도 관료조직화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조직이